



제 1 장

가톨릭노동청년회 중심의 노동참여 (1970년까지)



✻ 제1절 가톨릭노동청년회 설립 이전

1. 복음전래와 신앙공동체 형성

조선은 철저한 신분사회였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회체계가 동요되고¹⁾, 17세기를 전후하여 부경사행원(赴京使行員)들을 통하여 서학(西學)이 전래되었다.²⁾ 서학을 연구하면서 천주교 교리가 진리임을 깨달은 이들 가운데 이승훈(李承薰, 베드로, 1756~1801)이 북경을 방문하여 1784년 2월에 프랑스 예수회 선교사 그라몽(Louis de Grammont, S.J., 梁棟材, 1736~1812)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승훈은 조선으로 돌아와 이벽(李穡, 세례자 요한, 1754~1786), 정약전(丁若誼, 1758~1816), 권일신(權日身,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751~1792) 등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톨릭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서학의 종교적 가치를 통하여 유교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사회발전에 관심을 드러내고, 극심한 박해에도 사회·문화 활동으로 근대사회로 이양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³⁾

그러나 1785년 3월의 ‘을사추조적발사건’(乙巳秋曹摘發事件)⁴⁾ 이후 100여 년 동안 조선의 지배계층은 천주교인들을 박해하였다.⁵⁾ 복음전래 초기의 천주교 신자는 양반 중심이었고, 서

1) 1676년에 양반, 상민, 노비의 비율이 전체의 8.3%, 51.1%, 40.6%이었던 데 반하여 1783년에 34.7%, 59.9%, 5.4%로 역전되고, 1858년에는 65.5%, 32.8%, 1.7%로 양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18~21쪽.

2) 朴星來, 韓國近世의 西歐科學受用, 延世大學敎 國學研究院, 東方學志, 延世大學敎 國學研究院, 1978, 262쪽.

3) 盧吉明, 開化期 및 日帝時代 韓國 天主教會의 性格과 社會活動, 韓國敎會史研究所, 敎會와 역사 제146호, 韓國敎會史研究所, 1987, 8, 22쪽.

4) 명례방(明禮坊, 현 명동대성당 부근) 김범우(金範禹, 토마, 1751~1787)의 집에 모여 이벽의 주도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던 이승훈, 정약전·약용(若鏞 요한, 1762~1836) 형제, 권일신·상문(相問, 세바스티아노, 1768~1802) 부자, 김범우 등이 형조의 사령들에게 발각되어 형조로 압송된 사건: 한국가톨릭대사전 2, 1181쪽. 한국교회사연 구소의 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가 편찬한 한국가톨릭대사전은 1985년에 간행한 『한국가톨릭대사전』, 『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과 1994년부터 2006년까지 간행한 12권의 『한국가톨릭대사전』이 있다. 이 책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1985년에 간행한 것은 ‘한국가톨릭대사전, 1985’ 및 ‘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 1985’로 표기하고, 1994년부터 간행한 것은 ‘한국가톨릭대사전 1’같이 권수로 구분한다: 필자 주.

5) 복음이 전래된 뒤 우리나라의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교회가 기여할 수 있었으나, 1세기 동안의 박해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소극적이지만 서양문화를 접촉하고 수용하면서 각종 산업기술이 도입되어 기술과 노동을 천시하였던 조선사회의 관념이 서서히 바뀌었다.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의 프랑스는 제1차 산업혁명이 진행되어 본격적인 산업화의 단계에 들어가던 때여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후진적인 조선의 산업개발에 폭넓은 근대지식을 활용하였다. 대대적인 박해 이후의 신자들은 대부분 농민·노동자·빈민 등이었고, 박해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지자 선교사들은 신자들의 생존과 빈곤 해결에 관심을 기울였다. 선교사들은 명세실업(明細實業)

울을 중심으로 경기도와 충청도·전라도 일부에만 분포되었으나, 을사추조적발사건 이후 신자들이 산간오지(山間奧地)로 들어가 교우촌(敎友村)⁶⁾을 건설하고 복음을 전하여 양반·중인·상민·천민 등 모든 신분의 신자들이 방방곡곡에 분포되었다.⁷⁾

신자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재산을 박탈당한 채 대부분 사회·경제적으로 비참하게 살았다. 양반출신이라고 하여도 천주교신자로 밝혀지면 과거를 치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목숨마저 내놓아야 하므로 양반행세를 할 수 없었으며⁸⁾, 재산을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⁹⁾ 서울 등 외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에 흩어져 살던 신자들¹⁰⁾을 제외한 대부분은 산 속으로 들어가 화전(火田)을 일구거나 숲을 굽거나 옹기장이¹¹⁾가 되어 겨우 연명하였다.¹²⁾

과 모직산업(毛織實業)의 가능성을 예견할 정도로 실업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는데, 선교의 자유를 얻자 적극적인 실업개발 활동으로 연결하였다: 柳洪烈, 增補韓國天主教會史 上卷, 가톨릭출판사, 1962, 537쪽; 黃明淑, 大韓帝國末期 天主教의 實業振興論-京鄉新聞 論調를 中心으로-,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제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8, 382~383쪽; 노길명, 한국 그리스도교의 성격 형성과 사회개발사업, 高麗大學校 亞細亞研究所, 亞細亞研究, 1983, 142~143쪽; 盧吉明, 迫害期·開化期の 韓國天主教會와 社會開發, 韓國教會史論集 I, 韓國教會史研究所, 1984, 157~217쪽; 노길명, 한국교회의 사회 개발 운동,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95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1. 8, 7쪽. 이 책에서 참고한 노길명의 글은 각주 3)을 포함하여 4가지이므로 이후의 구분은 저자 이름과 연도로 표기한다: 필자 주.

- 6) 교회가 박해를 받아 비밀교회로 존속하다가 배교자나 이웃의 밀고로 와해(瓦解)되어 1791년의 신해박해(辛亥迫害) 이후 궁벽한 산골로 옮겨 이룩한 신앙공동체가 교우촌이다. 이 교우촌들은 1836년 이후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공소(公所)로 설정되거나, 그 가운데 몇 곳은 사제들의 거처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車基眞, 교우촌의 형성과 신앙생활,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246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1, 2~3쪽.
- 7) 신유박해(辛酉迫害) 이후 한국교회의 신분 분포는 양반 21.32%, 중인 4.54%, 양인 22.68%, 천민 1.13%, 신분 미상 50.34%이었다: 崔容奎, 己亥·丙午教難期天主教徒의 分析의 考察-1802~1846년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20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5. 6, 9쪽.
- 8) 박해는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신자들의 생존기반을 박탈한 까닭에 양반신분으로 천역을 받아들인 예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당시신자들의 사회·경제적 존재양태의 단면을 보여 준다: 崔容奎, 같은 글, 9쪽; 방상근, 19세기 중반 천주교도의 경제 기반,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제22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4, 57~63쪽.
- 9) 신유박해 이후 신자들의 경제적 조건은 더 나빠졌다: 崔容奎, 같은 글, 10쪽. 박해는 국가차원의 공식적인 박해, 가족이나 문중에 의한 가정박해, 탐욕스러운 지방관이나 포졸들의 개인적 욕심에 따른 국지적 박해 등 다양하였다. 집안에서 천주학 서적이 나오면 가족전체가 처벌되었기 때문에 가장은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천주교인 가족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박해하였는데, 심한 경우 이벽처럼 죽음에 이르러 할 만큼 단호하고 혹독하였다: 최선희, 조선후기 가문의 천주교인 박해와 인간관의 변화,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제25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5, 323~331쪽. 포교들이 천주교신자 수색에 열성이었던 것은 신자들의 재산을 약탈할 수 있었기 때문에 늘 밀고자와 배교자들이 그들을 따라다녔으며, 이들을 피해 새로운 교우촌을 건설하면 다시 찾아내어 무너뜨렸다: 元載淵, 박해시대 천주교 신자들의 사회적·경제적 생활-〈邪學漢家舍汙物放賣成冊〉의 분석을 중심으로,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기념논총 제1집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343-345쪽; 車基眞, 같은 글, 2~3쪽.
- 10) 이들은 임노동자(賃勞動者), 영세상인이나 영세수공업자로 살아가고, 양반신자들은 주로 교회서적을 등사하여 판매하는 것을 생업을 삼았다. 향상 또는 묵수들은 자신의 직업을 선교에 활용하고, 의원과 약국은 신자들이 서로 소식을 전하는 장소로 많은 중인 신자들이 의원 또는 약국을 운영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신자들의 모임장소, 선교장소를 제공하였다: 元載淵, 같은 글, 340쪽. 方相根, 18세기 말 서울 지역 천주교 신자들의 거주지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사연구 제18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171~174쪽.

박해시대 신자들은 이처럼 척박(瘠薄)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살면서 사도시대 교회의 모습을 재현하였다.¹³⁾ 될 수 있는 한 천주교신자들끼리 통혼(通婚)하고, 물질을 기꺼이 나누었기 때문에 교우촌은 불구자·고아·거지들이 찾아다니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다.¹⁴⁾ 신자들은 이웃이 선종하면 장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비신자들로부터 상당한 신망마저 얻었다.¹⁵⁾

2. 신앙자유와 교회의 산업활동

1) 개항기의 신앙자유

쇄국정책으로 일관하던 조선정부는 1876년에 ‘병자수호조약(丙子修護條約)을 체결하면서 쇄국의 빗장을 풀었으며¹⁶⁾,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으로 외국인에게 자

-
- 11) 金英文, 옹기문양에 끼친 천주교의 영향,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61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3쪽; 元載淵, 같은 글, 339쪽; 車基眞, 같은 글, 7쪽; 盧吉明, 1991, 8쪽; 金眞召, 같은 글, 277쪽.
- 12) Ch. Dallet 지음, 安應烈·崔爽祐 옮김, 韓國天主教會史 上卷, 韓國教會史研究所, 1979, 31쪽; 金眞召, 한국 천주교회의 소공동체 전통,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기념논총 제1집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276~277쪽; 元載淵, 같은 글, 339쪽; 盧吉明, 1991, 7~8쪽; 車基眞, 같은 글, 7쪽; 방상근, 같은 글, 35~37쪽.
- 13) 기민(飢民)이 1839년 기해박해 때는 경기도와 충청도에서만 884,731명이 발생하였으며, 박해를 받던 가톨릭신자들의 고초는 더욱 처참하였다. 대부분 신자들은 깊은 산중으로 피신하여 안정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그런데도 신자들은 늘 상부상조하였다. 계급을 초월하여 재산을 공유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재현하였기 때문에 자기보다 빈곤한 신자들을 식구로 받아들이거나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다. 신자들 간에 의연금을 걷는 것은 한국교회에 하나의 관행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노길명, 1991, 5쪽.
- 14)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성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인간관은 복음전래 초기부터 소외된 이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공(哀矜)을 실천하게 하였다. 특히 고아구제활동은 평신도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1780년대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입국한 이후 체계적인 교회사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여 1852년 8월말에 입국한 메스트르(Joseph Ambroise Maistre, M.E.P., 李, 1808~1857) 신부가 소개한 성영회(聖嬰會, Santa Infantia)를 통하여 1854년 경부터 고아들을 모아 몇몇 독실한 여신자들에게 돌보게 하였고, 점차 고아들이 많아지자 어린이들을 신자가정에 맡겨 키우게 하는 한편, 어린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생업에 필요한 기술을 가르쳤다. 이러한 자비심에 감동되어 새로 입교하는 이들이 많았고,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 여러 곳으로 먼저 나갔다. 비록 오늘날의 고아원처럼 일정한 장소에서 체계적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기관에 이르지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업은 제4대 조선대목구장 베르뇌(Simeon Francois Berneux, M.E.P., 張敬一, 1814~1866) 주교가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여 1859년까지 서울에 유모(乳母)를 둔 고아원으로 발전하였으나, 1866년 병인박해(丙寅迫害)로 중단되었다: 盧吉明, 1991, 4~5쪽; 가톨릭대사전 7, 4736~4737쪽.
- 15) 元載淵, 같은 글, 340쪽; 車基眞, 같은 글, 7쪽.
- 16) 개항으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조선사회는 무방비 상태로 외세의 침탈에 노출된 채 정치·경제·사회 전반

유를 보장하고, 1886년에 비준(批准)된 ‘조불수호통상조약(朝佛修好通商條約)’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선교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하였다.¹⁷⁾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자 교회의 거점이 확대되어 1882년에 서울의 종현(명동)성당이 설립되는 것을 필두로 제물포·원산·부산·마산포·목포 등의 개항지와 갯등이·평양 등 주요한 교우촌과 도시에도 성당이 설립되었다.¹⁸⁾

박해시대에는 산간오지를 전전하는 용기장이나 화전민이 신자들의 대부분이었고, 일반인 거류지에 사는 신자들이라도 자신을 철저히 숨기고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살아가더라도 생명과 신분·재산 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즉, 숨어살던 구교우(舊敎友)들도 비신자들과 어울려 사는 이들이 많아졌으며, 죽음이 두려워 입교를 망설이던 다양한 신분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신문교우(新聞敎友)로 들어왔다.

2) 개항기 교회의 산업지원

개항기는 근대적인 민주국가 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근대적인 사회질서로 전환되던 시기이므로 개화·부국·강병·애국계몽·독립 등과 같은 가치들이 교회에게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요구하였지만, 교회지도자들이 시대상황이나 민족의 요구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여 민족사의 대전환 과정에서 민족교회로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¹⁹⁾ 그러나 일부 한국인성직자들

으로 새로운 변화와 종속을 강요당하였다. 특히 개항 이후 직접적인 외압으로 작용한 청·일 두 나라는 이미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을 받는 상태에서 조선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더욱 가혹하게 수탈하였다: 강만길, 高麗大노동문제연구소 한국노동운동사 1 근대 노동자 계급의 형성과 노동운동/조선후기~1919, (주)지식마당, 2004, 83쪽.

17)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구열강 국가들보다 프랑스와 수호조약이 늦게 체결된 것은 다른 열강들이 신교(信敎)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통상만을 주목적으로 하였지만, 프랑스는 통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선교의 법적 승인을 받아내고자 했기 때문이다: 崔奭祐, 韓國敎會史의 探究, 韓國敎會史研究所, 1982, 187~207쪽. 그리고 1904년에 ‘선교조약(宣敎條約)’이 체결됨으로써 프랑스 선교사는 국내에 토지와 가옥을 매입할 수 있고 또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완전한 종교자유를 획득하였다.

18) 신앙의 자유를 얻자 신자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옮겨 새 교우촌을 형성하였으나, 그들이 새로 이주한 곳은 도시지역이 아니라 대부분 산간지역이었고, 간혹 평야지역으로 옮겨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설성당의 신부들은 장래의 발전을 생각해야만 했으므로 교우촌과 떨어진 도시지역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여 신자들과 신부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車基眞, 같은 글, 4쪽.

19) 당시 교구장은 한국에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하고, 일본을 통하여 개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워 의병운동을 반대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성직자나 신자들을 단죄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사회 비민족화 과정에 기여하였다: 盧吉明, 1987, 22~23쪽. 그러나 러일전쟁 이전인 1903년 7월 27일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891년 5월 15일에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반포한 교황 레오 13세를 알현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프랑스 선교사들을 대체하여 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친로배일(親露排日) 감정 때문이었다. 선교사들의 정교분리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았다: 金眞召, 일제하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 방침과 민족의식,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236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1, 5쪽.

과 시대를 앞서가던 평신도지도자들은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²⁰⁾

애국계몽운동 가운데 주목할 것은 실업진흥론(實業振興論)이었다.²¹⁾ 교회의 산업논의는 수취제도(收取制度) 개선, 자립심 강조, 새로운 산업개척, 실업교육, 저축과 노동 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특히 농업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간주하여 과학적 영농방법, 황무지 개척과 토지보존, 식목장려, 농기구, 종자와 가축의 품종개량 등을 장려하였다.²²⁾

황무지개척은 간도지방까지 확대되었다. 당시 극빈상태였던 신자들이 간도로 이주하여 박해시대에 화전경작의 경험을 살려 황무지를 개간하고 새로운 부락을 형성하였다. 신자들의 개발노력은 영암촌(英岩村)의 연와조합(煉瓦組合), 팔도구(八道溝)의 식산조합, 협동조합 등을 통하여 간도의 주민정착과 자립에 크게 공헌하였다.²³⁾ 간도는 독립항쟁의 기지역할을 하였으며, 교회는 간도를 개발하고 주민을 정착시키는 데 기여하였다.²⁴⁾

20) 선교사들이 채택한 정교분리 또는 사회와 무관한 선교정책으로부터 큰 제약을 받았으나, 민족과 국가가 처한 현실에 응답하고 민중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에 기꺼이 동참하는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수많은 학교설립과 애국계몽운동, 정구하(鄭圭夏, 바오로, 1863~1943) 신부의 의병지원과 풍수원성당 신자들의 의병참여, 1907년에 서상돈(徐相燾, 아우구스티노, 1850~1913) 회장이 주장한 국채보상운동, 1909년에 안중근(安重根, 토마, 1879~1910)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포살(砲殺)한 사건 등은 개회기에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려던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盧吉明, 1987, 23쪽.

21) 개회기에 외국자본가들뿐 아니라 조선상인들도 광업·운수업·은행업·방직업 등 여러 가지 회사를 만들어 근대적인 임금노동자가 생겨났다. 자본가들은 농촌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을 가혹하게 수탈하고 착취하자 노동자들이 조직을 만들고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즉,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노동자투쟁과 노동자조직이 등장하였다. 1888년에 초산 광산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이래 계속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1898년에 성진 본정부두노동조합이 결성된 이후 전국에서 속속 노조가 설립되었다. 이원보, 같은 책, 36~42쪽. 한편, 가톨릭교회는 1891년 5월 15일에 교황 레오 13세가 『새로운 사태』를 반포하였다. 교회는 이 회칙을 통하여 당시 주목되기 시작한 가톨릭사회운동을 강력히 지지하고, 사회주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사유재산제를 옹호하며, 고용자와 노동자가 상호원조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조합을 설립할 것을 권장하였다. 즉, 노동과 노동운동, 노동조합 등에 분명한 자기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이 땅의 노동문제는 서구처럼 사회의 보편적인 문제로 확대된 상태가 아니어서 교회에 긴급한 과제로 대두된 것이 아니었다. 산업을 근대적으로 발전시켜 부를 축적함으로써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 주.

22) 黃明淑, 같은 글, 362~376쪽. 농업은 프랑스선교사들도 관심을 가졌다. 뮈텔(Gustav Charles Marie Mutel, M.E.P., 閔德孝, 1854~1933) 주교가 1899년에 새로운 누에고치 품종을 도입하여 가난한 신자들에게 보급하고, 1901년에 안성성당 주임 공베르(Antoine-Adeadot Gombert, M.E.P., 1875~1950, 孔安國) 신부가 프랑스의 포도종자를 보급하였다. 신자들의 가난을 덜어 주려고 한 일이지만, 한국의 산업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땅 한 켠이 없던 상황에서 교회가 토지를 매입하여 신자들에게 소작을 주어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고 신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최석우, 한국 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223쪽.

23) 崔奭祐, 韓國教會史의 探究, 韓國教會史研究所, 1982, 230쪽.

24) 崔奭祐, 愛國啓蒙運動期の 天主教(1905~1910),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67호(1989. 4.), 한국교회사연구소, 15쪽. 가톨릭 신자들에 의한 간도개발은 조선 총독부의 자료에도 나타난다. 즉, “間道の 天主教는 布教시초에 人民에게 施療를 행하고 金品을 주며 또한 中國 官憲의 暴政을 排除하여 오로지 保護懷柔에 힘쓴 결과, 同 敎의 기초가 益益鞏固하여 邇來 漸次 信徒들이 增加하였다. … 裡面에 있어서 排日思想을 鼓吹하고 있다.”(朝鮮總督府 國境地方視察復命書, 1915, 白山學報 第9號, 서울 白山學會, 224쪽; 盧吉明, 迫害期·開化期の 韓國天主

교회는 병인박해로 중단되었던 고아위탁사업을 1880년에 재개하였으며, 제7대 조선대목구장 블랑(Jean Marie Gustave Blanc, M.E.P., 白圭三, 1844~1890) 주교가 약국·목공소·철공소를 설치하여 남자고아를 2명씩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하고, 고아원 내에 교사를 초빙하여 한글과 한문, 그리고 뚝자리 짜는 법도 가르쳤다. 이처럼 교회는 단순히 고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자활사업까지 확대하였다.²⁵⁾

3) 수도회 초청

교회가 1882년에 신식학교인 ‘인현서당(仁峴書堂)²⁶⁾을 개교한 이래 1893년에 교회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는 38개교, 학생은 376명이었는데, 1904년에 75개교, 693명으로 늘어났다.²⁷⁾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으로 주권이 상실되고, 1906년부터 통감부가 설치되자, 전국각지에서 교육구국운동이 전개되었다.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는 애국지사들은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였다.²⁸⁾

교회도 전국각지에 학교를 세웠으나, 신자들은 가난한 박해로 자녀들의 학비를 부담하기 어려웠고, 교회 역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학비를 요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신자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실업교육이 시급하였다.²⁹⁾

일제통감의 감시를 받는 조선정부는 1906년에 ‘사범학교령’, ‘고등학교령’, ‘보통학교령’ 등을

教會와 社會開發, 韓國教會史研究所, 韓國天主教會創設二百周年紀念 韓國教會史論文集 I, 韓國教會史研究所, 1984, 207쪽에서 재인용.

25) 柳洪烈, 같은 책, 295쪽; 盧吉明, 1991, 8쪽; 黃明淑, 같은 글, 383쪽.

26) 박해가 끝나지 않아 리델(Félix Clair Ridet, M.E.P, 李福明, 1830~1884) 주교가 나라 밖으로 추방된 불안한 시기였다: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뒤텔 문서, 1886, 11호: 金治東, 舊韓末 天主教會의 教育事業에 關한 考察,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4, 38~39쪽에서 재인용. 이 인현서당은 1883년 8월에 종현으로 옮기면서 종현학교(鐘峴學校) 또는 한한학원(韓漢學院)으로 불렸고, 1909년 9월에 학교 설립이 인가되어 ‘계성학교’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사용하였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991, 792~794쪽.

27) 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 1985, 322~323쪽 한국천주교회 교세통계 참조. 당시 교회가 운영한 학교들은 거의 성당에 속하였으며, 성당신자들의 자녀 10여 명을 수용할 정도의 규모였다.

28) 崔奭祐, 같은 글, 11~12쪽.

29) “... 우리의 신자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가난합니다. 대부분 아무런 실업도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가르칠 수가 없었으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학비에 쓰일 선불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도우며 지도해 줄 활동이 필요하며, 그들을 위해 돈을 벌 수 있고, 동시에 천주교공동체 전체에도 명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韓國教會史研究所, 明洞天主教會 200年史 資料集 第1輯 서울教區年譜(I), 天主教明洞教會, 1984, 316쪽.

공포하였다.³⁰⁾ 그러나 이 때까지 교회의 교육기관은 신학교를 제외하고는 초등교육기관뿐이었으며³¹⁾, 재정적인 어려움³²⁾ 외에도 교사들이 대개 정식교원이 아니어서³³⁾ 일정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교수방법이나 지적능력도 부족하였다.³⁴⁾ 사립학교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이 부족한 것은 교육활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다.³⁵⁾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개신교와 경쟁, 이로 인한 자극도 학교설립을 서두른 요인 가운데 하나였으나³⁶⁾, 교회의 인적·물적 자원으로는 독자적으로 사범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³⁷⁾ 교사양성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수도회나 선교회가 절실했다.³⁸⁾

30) 이정순,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원산 수녀원사,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회, 1988, 61~62쪽.

31) 이는 파리의방전교회 선교사들이 민족과 국가의 운명보다 교회의 운명에 관심을 두었고, 정교분리를 선교정책의 근간으로 삼았으므로 사회참여보다 교리전파에 필요한 초보적인 교육활동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한국인에게 고등교육을 실시하려는 의지가 부족하여 대부분의 학교가 초등교육 정도를 고수하는 수준이었다: 金成喜, 한국 천주교회의 교육활동(1882~1910년을 중심으로),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최석우 신부 수품 50주년기념논총 제2집 한국교회사의 성찰,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699쪽.

32) 학교설립의 재정은 프랑스 선교단체나 모금단체가 지원하였으나, 1905년 정교분리 이후 반교권주의 때문에 프랑스교회가 극심한 피해를 받으면서 프랑스에서 오던 선교자금이 대폭 삭감되자, 파리의방전교회는 독자적으로 교육사업을 전담할 수 없었다. 이 무렵 전국적으로 학교설립이 활발해지자 한국인 신부와 신자들이 교육사업을 이끌었다. 이들은 학교운영 자금을 내놓고, 자신들의 사가(私家)를 교사(校舍)로 내놓았으며, 무급교사로 봉사하거나 가난한 학생의 학비와 경비를 부담하였지만, 학교의 경제적 기반 때문에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金成喜, 같은 글, 719~720쪽.

33) 1906년 8월 27일에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칙령 제44호로 공포한 ‘보통학교령’에 의하면, 보통학교 교직원은 학교장·교감·본과훈도(本科訓導)·전과훈도(專科訓導)·전과부훈도(專科副訓導) 등으로 구분하며, 훈도와 부훈도는 반드시 면허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면허장은 사범학교 졸업자와 외국에서 보통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면허장을 소지한 자 또는 보통학교 교원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에 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사범학교는 관립(官立)인 한성사범학교(漢城師範學校) 하나뿐이었고, 이 학교 졸업자들은 관립학교에 채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모든 사립학교에서 이와 같이 까다로운 교원자격을 갖춘 이를 채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大韓帝國 學部, 普通學校令 第17條, 1906년: 金治東, 같은 글, 30-31쪽에서 재인용.

34) “... 신심이 두터운 한 여교우가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교리, 기도 그리고 바느질까지 가르칩니다...”(韓國教會史研究所, 明洞天主教會 200年史 資料集 第1輯 서울教區年報(II), 天主教明洞教會, 1987, 266쪽.

35) 金成喜, 같은 글, 729~730쪽.

36) “... 이 같은 공공사업에서 얻는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결과를 희망하도록 합니다. 이같이 다양한 사업들은 그것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개신교신자들과 야기하는 엄청난 경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선교사업이 46명의 프랑스선교사와 10명의 한국인사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개신교신자들은 남녀 미국인선교사들만 215명이 일하고 있으며 우리의 것보다 50배나 되는 자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활동적인 영국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신교신자들은 YMCA와 같은 젊은이들을 위한 일을 서울에서 정착시켰습니다. 그들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으며, 우리는 적어도 그들에게 어떤 것을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의 중앙위원회는 유럽과 미국의 책들을 젊은이들, 특히 개신교 젊은이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뉴욕의 중앙행정당국에 25만 달러(125만 프랑)의 보조금을 주지하지 않고 요청했습니다...”(한국 살레시오회 백광현 신부 번역, 살레시오회 로마본부 도서관 소장, 뫼텔 주교가 살레시오회에 보낸 1908년 7월 7일자 보고서).

37) 성 베네딕도회가 이미 한국에 진출하기로 결정한 뒤의 일이지만, 뫼텔 주교가 1909년 3월 15일에 성 베네딕도회 노르베르트 베버(Norbert Weber, O.S.B.) 총원장에게 보낸 다음의 편지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나타난다. 즉,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조선대목구장 뮈텔 주교가 1년 가까이 유럽 각지를 다니면서 수도회, 선교회들과 접촉한 끝에 상트 오티리엔의 베네딕토회³⁹⁾를 초청하는 데 성공하였다. 성 베네딕토회는 1909년 1월 1일에 현지를 답사하기 위해 사우어(Bonifatius Sauer, O.S.B., 辛上院, 1877~1950) 신부와 엔쇼프(Dominikus Enschoff, O.S.B.) 신부를 이 땅에 파견하였다.⁴⁰⁾

3. 일제시대의 정치·경제·노동상황

1) 일제식민지배와 민족독립운동

일제 식민지배의 저항운동으로 민족주의운동이 출현하였으며, 3·1운동 이후 사회주의혁명의 영향을 받은 혁명적 독립운동이 러시아와 중국에서 확산되었다. 국외에서 혁명적 민족독립운동이 전개될 때 국내의 보수적 독립운동들은 문화교육운동 형태로 전개되었다. 일제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구조를 변혁하였으며, 산업화와 산

“이 곳 조선대목구의 신부들은 유럽신부 46명과 한국신부 13명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사목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완전히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한국사람들도 교육열에 불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놀랄만한 열성으로 인해 여러 종류의 학교가 곳곳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에서도 지금 좋은 교육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골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사양성, 한국인 수도자와 사제양성, 중·고등학교교육, 상업·농업학교교육, 그리고 가톨릭 내의 여러 단체들의 설립과 지도를 위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인재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힘도 부족합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백 뽀라치도, 한국에서의 초기 베네딕토회의 선교방침, 韓國天主敎會創設二百周年紀念 韓國敎會史論文集 I, 韓國敎會史研究所, 1984, 781쪽).

38) 당시의 어려운 사정은 파리의방선교회의 연말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 즉, “... 여러 선교사들 특히 우도(Paul Oudot, M.E.P., 吳保祿, 1865~1913) 신부와 부이수(Pierre Joseph Bouyssou, M.E.P., 孫以燮, 1872~1949) 신부는 신식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교우들 중에서 기부금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신자들은 그 중요성을 이해하였습니다. 그 같은 것을 실행하는 데에 즉시 대두되는 첫째 어려움은 교사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럽게 그들의 임무를 다할 수 있을 만큼 교육받은 교사는 극히 소수입니다.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을 위해 사범학교의 필요성이 통감되고 있습니다...”(서울敎區年報(II), 54~55쪽).

39) 1884년에 암라인(Andreas Amrhein, O.S.B., 1844~1927) 신부가 창설한 수도회. 한국가톨릭대사전 5, 3289쪽 이하 참조

40) 이 두 신부는 7월 18일 이전에 백동(栢洞, 현재의 혜화동)에 수도원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9월 6일에는 정지작업을 시작하여 12월 6일에 임시 수도원 건물(分館)을 완공하였다. 한국교회사연구소, 뮈텔 주교 일기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396~424쪽. 또 1910년 말에는 2층의 본관건물을 완공하였으며, 이듬해 9월 14일에는 3층의 수도원을 새로 지었다. 그 사이 서울의 수도원은 1909년 12월 13일자로 정식수도원(prioratus)으로 승격되었고, 1913년 5월 18일에는 아빠스좌 수도원(Abbaita)으로 승격되었다. 方相根, 승공·승신학교(崇工·崇信學校), 교회와 역사 제291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8, 9쪽 이하.

업계급의 형성, 수탈농업정책으로 농촌이 황폐화하자 인구구조가 크게 달라졌다.

3·1운동 직후 사회주의가 유입되어 1920년대에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1929년의 원산총과업이 절정을 이루었다.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탄압과 함께 소작쟁의나 노동운동도 쇠퇴하였다. 일제는 노동운동을 민족독립운동과 동일시하여 강력히 탄압했기 때문에 해방직후 노동운동은 이념대결의 장으로 전락하였다.

2) 일본식민지배와 자본주의 형성

식민지 조선사회는 초기에 원료식량 공급기지, 1930년대 이후는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전락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식민지 조선사회의 틀을 규정하였는데, 토지조사의 목적은 토지수탈을 자유롭게 하고 토지에서 생산되는 산물의 약탈기반을 다지는 데 있었다.⁴¹⁾ 일제는 막대한 국유지를 약탈하여 조선 최대의 지주가 되었으며⁴²⁾, 토착지주의 사유권을 배타적으로 보장하면서 토지에 대한 중층적 소유권을 해체하여⁴³⁾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에게 토지가 집중되고, 다수의 농민이 토지를 잃었다.

일제시대 지주소작관계는 1930년대에 정체상태에 들어갔다. 일본제국주의의 만주침략으로 시작된 병참기지와 정책으로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는 토목공사에 엄청난 인력이 요구되어 농촌의 과잉노동력이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높은 소작료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던 소작농들이 만주개발을 위한 일제의 이주정책에 따라 대규모로 조선을 떠났다.⁴⁴⁾

41) 장상환, 현행 토지문제의 성격과 해결방향, 한국 농업농민 문제연구 1, 연구사, 1988, 127쪽.

42) 역둔토로서 국유지에 편입된 것은 13만 4천여 정보로 전체 경지면적의 5%에 달했고, 그 외 신고되지 않은 토지를 90여만 정보나 수탈했다. 그리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는 1910년 이후 7, 8년 사이에 1만여 정보에서 7만 7천 정보로 늘어났고, 일본인 지주는 1910년에는 약 2,000여 명이 8만 7천 정보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18년에는 1만여 명이 20만 정보를 소유했다: 같은 글, 128쪽.

43) 이로써 일제는 식민지적 지배의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토착지주계급을 식민지 지배의 정치적 기반으로 만들었다: 같은 글, 128~129쪽.

44) 김석민, 일제하 조선농업의 성격에 관한 일 연구,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 1987, 62쪽. 1945년 당시 국의 유출자는 약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그 중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제국주의자가 강제로 징용한 약 100만 명을 제외하더라도 그것은 당시 전체인구의 약 1/8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주소작관계에서 계급적 대립은 기본적으로 지주와 소작농의 대립관계였다. 해방직후의 통계를 보면 소작지의 비율은 전체경지의 63.4%, 논인 경우에는 70%에 달했다. 이 중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일본인지주 소유지는 전체경지의 9.9%, 논인 경우에는 14.5%에 달했다. 또 총 농가 200만여 호 중 자작농이 13.8%에 불과한 반면, 순소작농과 자소작농을 합하면 83.5%에 달했다. 자작농 중에는 자작지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극소수의 자작농을 제외한 거의 모든 농민이 9.2% 밖에 되지 않는 극소수의 지주와 대립하던 단순한 계급구조였다: 이경숙, 한국농지개혁의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아침, 1987, 88쪽.

임금노동의 창출은 토지조사사업이 계기가 되었다.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한 기초 위에 일본독점자본의 상품과 자본이 농촌경제를 화폐경제로 만들었다. 특히 가내수공업을 파괴하고 해체하여 농민은 식민지 독점자본의 유통과제에 깊숙이 편입되었으며, 농민의 궁핍화는 몰락농민의 유출로 이어졌다. 이들은 유리걸식하거나 근대적 임금노동자로 전락하였지만, 일제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일부만 고용되고 대부분 과잉상태였다.⁴⁵⁾

1930년대에 일본자본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자본을 급속히 이식하였으며, 식민지 조선 공업의 급속한 성장, 공업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증대, 공장과 공장노동자 증가, 공산품 수출의 증가 등 양적인 면에서 변화하였다. 또한 대공업노동자의 대량창출, 노동과정의 변모, 그리고 제국주의자본과 토착자본의 관계변화는 새로운 분업제도와 기계의 도입으로 남성노동자들이 여성노동자, 유년노동자로 대체되고 실업과 임금하락을 초래하였다.

1928년에 임노동자가 118만여 명, 반공·반농이 100여 만 명이었는데, 겸업의 기회가 매우 적어 반공·반농은 임노동의 기회만 주어지면 곧 농업을 포기할 수 있었으며, 임노동자들도 안정된 직업이 없었다. 임노동자 중 비교적 안정된 직업이었던 공장노동자, 광산노동자, 토건노동자, 운수노동자는 10여만 명에 불과하였으며, 당시 실업자와 유민은 10여만 명에 이르렀다.⁴⁶⁾

상용노동자가 1920년대 말에 10여만 명에 불과하였으나, 1940년대 전반기에 1백만 명 내외에 이르고, 노동조건은 극히 나빠졌으며, 일본 독점자본의 착취는 더욱 가중되었다. 더욱이 식민지적 자본·노동관계의 민족차별은 자본일반의 불이익보다도 더욱 심하여 조선인노동자의 임금은 세계적인 저임금국가로 알려진 일본노동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⁴⁷⁾

한편, 1930년대부터 도시빈민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들은 농촌 과잉인구가 도시로 이동한 결과로 지게꾼, 가사사용인, 행상 등과 같은 잡업직에 대한 노동력의 공급원이 되었다. 농촌에서 유출된 과잉인구가 공장노동자로 전환되지 못한 채 도시빈민으로 집단 거주하면서 도시 잡업층과 같은 극히 불안정한 노동자로 존재하는 특징을 보여 주었다.⁴⁸⁾

45) 김형기, 한국자본주의의 발전과 저임금, 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 화다, 1987, 100쪽.

46) 박현채, 한국경제론, 1987, 39~44쪽.

47) 김형기, 같은책, 101쪽.

48) 정진성, 저임금구조와 노동자의 존재형태, 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 화다, 1987, 92쪽.

3) 일제식민지시대 노동운동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2~1918년) 이후 농민들이 소작인으로 전락하거나 광산·부두하역장·철도부설작업장 또는 공장지대에 모여들거나 해외로 떠났다. 일제자본의 상륙으로 사업장이 늘어났지만, 사업장에 비하여 노동자들이 훨씬 많았다. 이 점을 이용하여 일제자본은 기아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자본을 축적하였으나,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증가와 열악한 노동조건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직을 만들어 임금인상 등 쟁의를 전개하였다. 1912년 6건에 1,573명이 참가했던 쟁의는 1918년 50건으로 6,105명에 이르렀고 1919년에는 84건으로 9,011명이 참가하였다.

1920년대에 일제자본의 적극적인 진출과 ‘문화통치’로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1920년대 초 10만 명에서 1929년 100만 명 이상으로 급증하였고, 공장노동자는 55,000명에서 93,000명으로 늘어났다. 직능별·지역별·사업장별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가 1920년의 33개에서 1929년에는 473개로 크게 늘어나고 전국적인 산업별노조형태도 출현하였다. 이를 토대로 조선노동공제회와 노동대회(1920)를 결성하고 조선노동연합회(1922), 조선노농총동맹(1924), 조선노동총동맹(1925) 등으로 발전시켰다. 이들 전국조직의 이념은 처음 상호부조적 계몽적인 것에서 점차 계급투쟁적인 경향으로 발전하였다. 이 전국조직들은 지역적 사업장별 투쟁을 적극 지원·지도하면서 1923년에 최초의 노동절행사를 벌이는 등 노동자계급을 전국적으로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은 1921년의 부산부두총파업부터 석 달 동안이나 진행되었던 1929년 원산총파업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 임금인하, 해고, 민족차별, 인권탄압 반대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연대파업으로 자본가들과 일본경찰의 탄압에 완강히 맞서 민족해방투쟁의 성격으로 발전시켰다.

1930년대에 일제는 세계대공황을 벗어나고 중국을 침공하기 위하여 노동운동을 탄압하였다. 노동자들은 지하조직을 만들어 사회주의혁명운동과 결합하여 적극 대항하였다. 1940년대 더욱 심해진 일제의 탄압으로 노동조합은 적색노조가 지배하였고 노동자들은 파업 이외에 태업을 주요한 투쟁수단으로 삼으면서 집단 직장이탈, 징용기피, 관공서 습격과 폭행으로 대항하였다.

이처럼 일제시대의 노동자들의 투쟁은 일제의 혹심한 수탈과 탄압으로 초기의 고립분산적인 생존권투쟁으로부터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민족해방투쟁, 사회주의운동으로 변화·발전하였으며 조직형태도 사업장별·직능별·지역별·산업별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4) 일제식민지시대 노동법제

일제 초기의 ‘근로자모집취체규칙’(1918년), ‘임금통제령’(1938년), ‘선원급여통제령’, ‘노동조정령’(1941년), ‘국민근로보국협력령’(1941년) 등은 노동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법령이었다. 소위 ‘국가총동원법’ 체제에서 ‘조선광부노무부조규칙’(1938년), ‘공장취업시간제한령’(1939년), ‘조선직업소개령’(1940년) 등에서 약간의 보호규정을 두긴 하였으나, 이들 법령 역시 노동보호입법이라기보다는 전쟁완수를 위한 노동력 확보와 노동력 수급을 원활히 조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제는 노동단체를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였는데, ‘보안법’(1906년), ‘치안유지법’(1925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조선임시보안령’(1941년), ‘보안법’(1907년), ‘정치옥외집회금지령’(1910년), ‘범죄즉결령’(1910년), ‘민사소송조정령’(1910년), ‘경찰범처벌규칙’(1912년), ‘집회취체에 관한 건’(1910년) 등으로 노동운동,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고 노사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부정함으로써 노동운동이 지하화·폭력화하였다. 또한 1930년대부터 가족주의적 노사협조체제를 강요하여 국가가 노동현장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조선은 일본자본의 식민지적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관계가 규율되었으며, 노동관계는 주로 경찰의 치안단속입법에 의해 규율되었다. 한편, ‘조선구호령’(1944년)은 노동능력을 상실한 노유자, 폐질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부조, 의료, 조산, 생업부조를 지방행정기관에게 모색토록 명령한 것으로 1963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구빈정책의 원형이 되었다.

4. 일제시대 교회와 산업

1) 신자들의 가난

일제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규제하였으며, 선교사들은 기나긴 박해가 겨우 끝난 현실에서 교회가 탄압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여 식민지통치를 부정하지 않고 독립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⁴⁹⁾ 일제는 1915년에 ‘포교규칙’을 제정하여 교회활동을 직접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성직자·수도자·공소회장들의 선교활동, 본당이나 공소를 신설하는 것

등은 총독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헌병이나 경찰이 포교규칙을 시행하는지 감시하였다.⁵⁰⁾

신자들은 여전히 유리객걸(遊離客乞)하는 이들이 많았고⁵¹⁾, 1910년대에 가뭄과 기근으로 살기 어려워진데다, 1911년에 ‘삼림령’과 1912년에 ‘국유삼림산야보호규칙’ 때문에 나무를 구할 수 없는 옹기장이들이 간도나 일본 등지로 이주하여 많은 교우촌들이 위축되거나 와해되어 사목자들은 이주대책에 골몰하였다.⁵²⁾ 사목자들은 하루에 두 끼도 못 먹는 신자들이 많아 이들과 함께 굶었으며, 신자들의 가난을 해결하여 주기 위하여 선교자금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신자들에게 경작시킴으로써 교회의 재정을 확보하면서 신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⁵³⁾

2) 실업학교 설립과 운영

사목자들은 당장 신자들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개항기와 마찬가지로 2세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계속 설립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던 1905년에 60개교에 불과한 학교가 한일합방이 되던 1910년에 125개교로 늘어났다.⁵⁴⁾ 교회는 특히 실업학교들을 세워 신자 2세들에게 직업교육을 통한 자립의 길을 열어 주려고 하였다.

성 베네딕토회는 1910년에 고등기술학교인 승공학교, 1911년 9월 16일에는 사범학교인 승신학교를 설립하고⁵⁵⁾, 교육사업과 더불어 출판사업도 시작하였다.⁵⁶⁾ 이 실업학교는 ‘기도하고

49) 바로 이 때문에 국권수호운동과 독립운동에 일제시대 내내 전 교회가 참여하지 못하였다. 다만 평신도들 가운데 1910년의 안악사건(安岳事件)에 안명근(安明根, 약고보, 1879~1928)을 비롯하여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고, 1911년의 105인 사건에 이기당(李基唐, 안토니오)이 연루되었다. 1919년의 3·1운동 때 교회의 금지에도 서울과 대구의 신학생들이 만세시위에 앞장섰으며, 황해도 은율(殷栗)성당의 윤예원(尹禮源, 토마, 1886~1969) 신부를 비롯하여 강화(江華)·광주(廣州) 등지에서도 신자들이 만세시위의 주동자가 되었다. 이의 결과로 서울·원산·신의주·평양·공주·대구 등지의 감옥에 53명의 신자가 투옥되었다. 나라 밖으로 나가 독립운동을 전개한 신자들도 많았는데, 특히 방우룡(方雨龍) 같은 신자들은 1920년대 초 간도지방에서 대한의민단(大韓義民團)을 조직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가톨릭대사전 12, 9344~9345쪽.

50) 최석우, 국가와 교회의 관계-한국교회 창설부터 日帝末까지-,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47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8, 6쪽.

51)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양양성당 최문식(崔文植, 베드로, 1881~1952) 신부가 뮌헨 주교에게 보낸 1922년 연말 보고서 참조.

52) 파리외방전교회의 뤼카(François Marie Ange Lucas, M.E.P., 陸嘉恩, 1878~1934) 신부는 이들 가운데 일부를 불러들여 내평에 마련한 교구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양양군수에게 산림보호령을 완화해 주도록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양양분당 80년사 편찬위원회, 양양분당 80년사, 천주교 춘천교구 양양교회, 2001, 54쪽; 한국가톨릭대사전 4, 2265쪽.

53)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뮌헨문서 1922-25(양양성당 최문식 신부가 뮌헨 주교에게 보낸 1922년 2월 14일자 서한).

54) 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 1985, 322~325쪽 한국천주교회 교세통계 참조.

55) 교과목은 종교학·윤리학·교육학·한국어·한문·일본어·세계사·지리·수학·박물학·음악·미술·체육 등이었

일하라'(Ora et labora)고 하는 성 베네딕토회의 이념에 따라 '승공'이라 명명(命名)하였다.⁵⁷⁾ 승공학교 입학생은 1910년부터 꾸준히 늘어 1914년에는 70명이 되었다. 1914년 가을 신입생 모집 때 200명이 지원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학교확장에 따른 경비를 마련하기 어렵고, 교사로 일하던 네 명의 수사도 징집되어 학생을 증원할 수 없었다. 기술교사인 수사들이 징집되어 커다란 타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독일인이 운영하는 학교였으므로 영국의 간섭 속에 일본정부가 폐교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다.⁵⁸⁾ 또한 1920년 8월 5일에 원산대목구가 설정되어 성 베네딕토회가 이 지역을 맡아 서울을 떠남으로써 폐교되었다.⁵⁹⁾ 독일의 선진기술을 청소년들에게 전수하여 이 땅의 공업화를 앞당길 수 있었던 승공학교가 폐교됨으로써 교회가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줄어들고 말았다.⁶⁰⁾

다. 1911년 9월 15일 입학시험을 통해 23명을 선발한 승신학교에는 1912년에 26명, 1913년에는 17명이 재학하였다: 방상근, 승공·승신학교,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291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8, 10쪽.

- 56) 1910년에 『성 분도 언행록』을 출판하였고, 안드레아 액켈 신부는 그 때부터 한독문법서를 편찬하기 시작하여 1923년 독일에서 발행하였다: 백 빨라치도, 같은 글, 783쪽.
- 57) 장정란, 외국선교회의 한국선교(독일 베네딕토회의 한국진출과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한국 근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2, 평화신문 2003년 6월 15일자. 승공학교의 교과과정은 4년, 교과목은 기능교육 외에 제도(製圖)·한문·일본어·수학·교리교육을 병행하였다. 수업은 매일 이론 2시간과 실습 8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이론은 기초이론을 학습하였고, 실습은 자신이 택한 학과를 작업장에서 수업하는 독일 도제제도의 실습위주 교육이었다.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이론과 실기시험을 치른 뒤 자격증을 받았으며, 졸업생들은 2년 동안 2급 조수(助手)로 학교에 남을 수 있었다. 작업장으로는 대목공부·소목공부·자물쇠 제작부·양철부·페인트부·제작부(製車部) 그리고 부설 원예부가 있었고, 여기서 제대·춧대·세레반 등을 주문 받아 제작하였다: 백 빨라치도, 같은 글, 787쪽.
- 58) 백 빨라치도, 같은 글, 787쪽. 이에 수도원에서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하여 1918년 6월에 학교의 경영권을 경성 대목구장인 뫼텔 주교에게 이양하였고(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뫼텔문서 1918-72), 1919년 9월 23일에는 경성 대목구 프와넬(Victor Louis Poisnel, M.E.P., 朴道行, 1855~1925) 신부가 성 베네딕토회 소속재산관리 위원으로 임명되어 재산을 관리하였다(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뫼텔문서 1919-Villemot). 이것은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불과하였지만, 이로써 승공학교의 재산은 구제되고, 당분간 운영될 수 있었다.
- 59) 즉, 독일의 패전으로 경제원조를 기대할 수 없었고, 학생들이 만드는 생산품을 판매하여 후원비를 마련하고자 해도 원산에는 판로가 없어 더 이상 학교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신학교, 신학교 기숙사와 수도원을 지으면서 실업학교까지 짓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다. 이에 성 베네딕토회는 서울의 수도원을 존속하면서 승공학교를 계속 유지하려 하였으나, 어느 한 선교지역을 맡으려면 서울의 수도원을 포기해야 된다는 프랑스선교단의 요구에 따라 이러한 희망은 무산되고 말았다: 백 빨라치도, 같은 글, 789~793쪽. 결국 승공학교의 폐교는 독일선교사와 프랑스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던 중 1921년 1월 30일 수도원 구내에 소신학교가 설립되자, 승공학교 학생들은 이들과 함께 건물을 사용하다가 1923년 6월 30일 마지막 학기를 끝으로 폐교되었다. 승공학교는 체계적인 실업교육기관으로 10여 년 간 지속되면서 한국의 실업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方相根, 같은 글, 8~11쪽.
- 60) 이처럼 성 베네딕토회의 교육사업이 실패한 원인은 첫째,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 둘째로 국적을 달리하는 프랑스 파리외방전교회와 독일 성 베네딕토회 사이의 불화와 경쟁, 셋째로 성 베네딕토회의 재정적 어려움 그리고 넷째로 성 베네딕토회 신부들이 학교를 통한 간접선교보다 본당사목을 통한 직접선교를 원하였기 때문이었다. 만약 성 베네딕토회가 승신학교를 유지하여 교사를 배출하고, 승공학교를 꾸준히 지속시켜 실업교육을 구현하였다면, 1920년대 이후 한국교회에서 교사가 부족하여 빚어졌던 교육사업의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고, 암담했던 이 시대에 한 줄기 빛 같은 참교육의 모범을 제시했음은 물론 선교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장정란,

한편, 경성대목구는 1920년에 초등교육기관인 소의학교(昭義學校)를 인수하여 을중실업학교인 소의상업학교로 개편한 뒤, 다시 동성상업학교로 개명하여 운영하였다. 일제시대 교회의 실업교육기관은 고산(高山)의 계명측량강습소(係名測量講習所), 노성(魯城)의 명성측량학교, 신천(信川)의 측량학교 등이었으며, 가난한 대중에게 낮에 일하고 밤에 신학문을 배우게 하는 각종 야간기술학교를 세워 자립의 길을 열어 주었다.⁶¹⁾

3) 노동자 중심 성당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이자 교황 비오 11세가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기념하여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을 반포한 1931년에 일제는 세계적인 경제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주사변’(滿洲事變)을 일으켜 1932년 초까지 중국 북동부지역을 점령하고, 같은 해 3월 1일에 일본의 괴뢰국가 만주국(滿洲國)을 세워 침략전쟁의 병참기지로 만든 다음, 1937년에 ‘중일전쟁’(中日戰爭)을 일으켰다.⁶²⁾

일제가 이처럼 광분(狂奔)할 때 농촌지역이었던 영등포에 경인선과 경부선이 개통되자 이 농민(離農民)들이 몰려오면서 공업지역으로 변모하여 1936년에 경성부(京城府)로 편입되었다.⁶³⁾ 경성대목구는 영등포공소를 본당으로 승격시키고⁶⁴⁾, 경성대목구장 라리보(Adrien

같은 글. 그러나 성 베네딕토 수도회는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자급자족의 생활형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함경남도 덕원과 한국전쟁 이후 왜관에서 인쇄·목공·양조·목축업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산업에 계속 영향을 주었다.

61) 즉, 김해(金海)의 농군학교, 영천(永川)의 노동야학교, 고산(高山)의 노동야학교, 홍산(鴻山)의 상명노동학교, 진남포(鎭南浦) 야학교, 울산의 농무학교 등이다. 한국가톨릭대사전 12, 9359~9361쪽.

62) 교회는 1930년대에 가톨릭 액션(Catholic Action)을 도입하여 남녀청년회를 조직하기도 하였으나, 주로 『가톨릭연구』(1934년 창간), 『가톨릭청년』(1936년 창간), 『가톨릭조선』(1937년 창간) 등과 같은 언론·출판, 의료(1936년 성모병원 설립), 교육 등에 집중하였다.

63) 한국가톨릭대사전 3, 1769-1771쪽;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립동교회, 모랫말 半世紀(道林洞聖堂50年史), 크리스찬 출판사, 1986, 55~69쪽.

64) 경성에 편입된 영등포에 성당이 설립되기 전에도 영등포에는 신자들이 있었고 이들은 본당으로 승격될 때까지 공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경향잡지』 1929년 4월호에 처음으로 영등포공소에 관계된 기사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영등포에 공소가 설립된 것은 1929년 이전임을 알 수 있다. 1929년 당시에 영등포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영등포역과 공업지구개발계획으로 주민이 많아지려 하는 때였다. 영등포는 약현(중립동)성당 소속이었으므로 평상시에는 공소예절을 거행하고, 대축일에는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가 약현성당에서 봉헌되는 미사에 참여하였다. 영등포공소 신자들은 대개 가난한 공장노동자·빈농·행상인들이어서 1930년 이전까지 공소강당을 건립하지 못하여 공소예절은 주로 공소회장들의 사가에서 행하였으나, 150여 명에 불과한 신자들의 열성과 희생으로 1930년에 500원의 경비로 현재 영등포경찰서 뒤흘에 8칸 규모의 경당을 신축하였다. 그러나 영등포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는 것에 비례하여 신자들도 늘어나 1936년 1월에 461명에 이르자 편간두옥(片間斗屋)인 이 공소경당이 비좁아 기도과 예절을 거행하기 어려워 새 경당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본당승격은

Joseph Larribeau, M.E.P., 元亨根, 1883~1974) 주교가 청소년과 노동자들의 수호성인인 요한 보스코를 주보성인으로 모시고⁶⁵⁾, 살레시오회에 맡기려고 하였으나, 살레시오회는 수락할 수 없었다.⁶⁶⁾ 1942년 1월 3일에 경성대목구장이 된 노기남(盧基南, 바오로, 1902~1984) 신부도 영등포성당 사목 외에 기술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1944년에 파리외방선교회 피송(Léon Pichon, M.E.P., 宋世興, 1893~1945)⁶⁷⁾ 신부를 통하여 회원들을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⁶⁸⁾

4) 일제시대 교회의 노동관

일제시대에 교회는 노동을 둘러싼 사상을 이론적으로 표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1933년 6월 10일에 창간된 『가톨릭청년』 등을 통하여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노동·노동자·노동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산주의의 위험과 폐해에 주의를 촉구하였다.⁶⁹⁾ 1930년대부터 공산주의자들

등을 벌였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림동교회, 같은 책, 56~84쪽; 경향잡지 1930년 6월호, 276쪽; 경향잡지 1936년 1월호, 24쪽.

- 65) 신실된 성당 초대주임은 서기창(徐起昌, 프란치스코, 1889~1950) 신부로 신자들에게 요한 보스코 성인의 삶과 영성을 본받고, 그에게 전구(轉求)하게 하였다. 그러나 경성대목구장 라리보 주교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뫼텔 주교가 수도회를 이 땅에 초청할 때 접촉한 바 있는 살레시오회에게 영등포성당 사목을 맡기려고 하였다. 당시 교회의 교육여건이 일제 또는 개신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였고, 노동자들이 많은 영등포성당을 설립한 배경을 고려할 때 라리보 주교의 살레시오회 초청은 예정된 것이었다: 한국교회사연구소, 뫼텔 주교 일기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8, 289쪽 이하; Vincenzo Cimatti, S.D.B., *DON BOSCO IN COREA, il Bollettino Salesiano 63(1939)*, pp.114~117.
- 66) 일본 살레시오회의 치마티 몬시뇰이 한국에 선교사로 진출하고 싶은 의사를 여러 번 피력한 바 있었으나, 일제시대에는 부족한 인원 때문에, 그 뒤로도 일본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비중 또는 다른 나라에서 새로 선교사로 활동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 한국에 올 수 없었다: 프랑수아 빼쉬, 주님!... 어디까지 당신을 따르오리까?, 도서출판 요한사, 2002, 244쪽.
- 67) 김영진, 피송(L. Pichon, 宋世興) 한국 천주교회 사료의 수집가(Collecta),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83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0. 8, 8~10쪽 참조.
- 68) 피송 신부는 살레시오회 일본 관구를 찾아가 “... 서울에 기술학교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땅까지 이미 준 비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Luigi Del Col, S.D.B., *Cronistoria dell'Ispettorato Giapponese di S.Francesco Saverio 1951-1958*, Tokyo, 1958, p.68.
- 69) 한국교회의 반공주의에 대한 글은 『경향잡지』 1921년 2월호 ‘교황 분도 제15위 폐하의 운음’이었다. 3·1운동 이후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공산주의·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윤선자, 한국전쟁과 교회의 피해, 한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146쪽. 그러나 일제말기에 교회는 식민당국자들이 주장하던 반공정책과 동일시하였다. 이는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반공주의를 역설하고,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연길교구 일부에 형성된 소비에트 지역의 교회를 탄압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제가 제국주의 침략의 방법으로 내세웠던 반공정책과 교회가 신앙의 원리 혹은 인간성에 입각하여 주장하던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이 둘을 일치된 것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말기 교회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는 일제의 표면적인 정책이 완전히 매몰된 것으로 보인다: 조광, “8·15광복과

이 적색노조 등을 통하여 노동계를 장악하자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와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하느님이신 구세주』(*Divini redemptoris*) 등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을 비판하였다.⁷⁰⁾ 이 회칙들은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므로 자본가들의 탐욕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인간의 자연권을 박탈하여 그리스도교 정신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배격하였다.⁷¹⁾

5. 해방이후 시대상황

1) 극심한 정치혼란

해방과 더불어 남북이 분단되고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미군정은 이승만, 김성수 등의 보수 민족주의지도자들과 연대를 강화하였으나, 여운형과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좌파는 정치적으로 배제되거나 탄압을 받았다. 특히 좌파진영이 노동조합을 축으로 대중을 동원하여 좌우이념의 대결국면에서 민중들이 희생되었다. 남북한의 이념적 분단이 심해지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은 배제되었다.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선거는 이승만의 정치조직이 최다득표를 하고, 무소속도 높은 득표율을 올렸으나, 한국에서 민주화의 초기단계는 정치엘리트가 중심이어서 민중들의 요구나 소망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정치적 이슈와 공론은 엘리트 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만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을 경험하였다. 더구나 한국전쟁은 경

천주교회”(1945~1950),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70호(1989. 7.), 한국교회사연구소, 18쪽.

70) 일제시대의 자본주의는 친일패관자본가와 일제당국과 일본인 기업주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을 뿐 일반민중은 이들의 희생양으로 전락하여 인텔리 계층이 자본주의와 등지고 사회주의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대 교황들의 사회교리에 관한 회칙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뿐 아니라 나치즘, 파시즘 등도 배격하였다. 필자 주.

71) 교회는 무신론과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과 우려 때문에 일제를 옹호하였는데, 일제의 방공(防共) 정책과 잘 맞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정치적 의미를 항일민족운동과 계급 간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관점에서 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유신론과 무신론의 양자택일이라는 관념적이고 극단적인 판단기준으로 용공이 항일과 거의 같은 의미이던 시기에 일제의 사상공작을 적극 수용하였다: 양한모, 민족통일과 한국천주교회, 일선기획, 1990, 75쪽. 교회는 이러한 반공주의 때문에 사회주의 노선으로 민족독립운동을 하던 이들과 연대하지 못함으로써 친일로 기우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여진천, 한국전쟁에 대한 교회의 입장, 한국사목연구소, 한국 천주교회사의 성찰과 전망 2,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1, 105~106쪽.

제여건을 황폐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통제경제의 틀을 벗어나 경제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과 관료가 부패하여 경제사회는 미미하게 발전하였다.

한편, 1950년대의 한국사회는 도시화, 교육확대, 매스컴의 성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1952년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거주자가 전체인구의 17.7%이었으나, 도시화로 1955년에 24.5%, 1960년에 28%로 급상승하였으며, 서울 인구는 1940년에 935,500명에서 1955년에 1,242,880명으로 증가하였다.⁷²⁾ 교육의 확대로 대학교가 1948년에 31개에서 1960년 62개, 대학생도 24,000명에서 97,819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도시화와 교육의 확대는 새로운 시민계층의 확대와 매스컴의 성장을 통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을 활성화하였다.⁷³⁾

2) 한국 자본주의의 성립

미군정은 한국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고,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일제시대의 양곡공출과 배급에 관한 국가통제조치를 철폐하고 양곡거래를 자유시장에 맡기고, 소금이나 담배·인삼·의약품 등 주요 물자들도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는 악덕상인들의 매점매석으로 물자품귀와 가격폭등을 초래하여 통제정책으로 돌아갔지만, 기본정책방향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또한 미군정은 한국에서 자신과 협력할 자본가계급을 육성하여 한국자본주의를 성립시키기 위하여 미군정기간 동안 귀속재산을 관리하고 민간에 불하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1949년 12월에 ‘귀속재산처리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을 근거로 귀속사업체의 대부분을 무상에 가까운 조건으로 권력과 유착된 관리인 또는 매관상인들에게 불하하거나, 수의계약을 통해 권력을 비호하는 무연고자들이 차지하게 하였다.

한국전쟁은 미군정이 국가자본으로 접수한 귀속기업체의 생산기반과 일제시대로부터 물려받은 식민지경제의 물적유산을 많이 파괴하였다. 이후 파괴로 인한 부족부분은 대부분 원조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50년대는 한국자본주의에서 귀속재산 특혜불하, 외국원조의 특혜배정, 조세금융의 특혜지원 등으로 관료자본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72) 유영익, 1950년대를 보는 하나의 시각, 계간사상(1990 봄), 44쪽 참조.

73) 필자와 같은 견해는 김영명, 한국 현대정치사, 을유문화사, 1994, 183면.

1950년대 농지개혁을 계기로 지주계급이 몰락한 것은 결정적으로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1951~1952년의 연이은 흉작으로 1953년에 95만 톤의 외국곡물을 도입하였고, 1956년에는 평년작의 20%가 감소하여 1957년에 88만 톤의 외국잉여농산물을 도입하여 곡물가격을 폭락시켰다. 연이은 폭락은 농민들의 생활수준을 한계선상으로 끌어내리고, 노동력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농업생산비를 낮추었으며, 저곡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도시지역의 생계비 지수, 특히 주식비 비중이 낮은 것은 저곡가 유지→노동자들 저생계비 유지→저임금 유지로 연결되어 저곡가·저임금 메커니즘이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한국정부 수립 이후 작성된 최초의 경제부흥계획은 1949년의 ‘산업부흥 5개년 계획’이었고, 이승만 정부는 ‘농업증산 5개년 계획’, ‘석탄생산 5개년 계획’ 등과 같이 정부 각 부처에서 작성한 산업별, 제품별 증산계획이 다수 있었다. 경제부흥계획에 나타난 이승만 정부의 재건목표는 전력, 교통·통신, 교육, 보건 등 사회간접자본을 빠르게 재건하려고 하였고, 다음에 철강, 시멘트, 비료 등 외환절약효과가 큰 기간산업을 건설하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민생안정을 위해 소비재산업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한국정부의 의도대로 경제가 재건되지는 않았지만, 소비재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시기 GNP 연평균 성장률은 4.9%이었다. 한편, 1957년을 전후하여 광공업부문의 성장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국내시장의 포화상태와 함께 원조정책의 변화에서 기인하였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간섭이 뒤따르는 원조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제약이 많았다.⁷⁴⁾

1950년대 말까지 미국의 원조를 지렛대로 특권자본이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다른 한편은 특권자본이 결과한 사회경제적 불평등화 요인 속에서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민중이 빈곤해졌다. 이 시기의 경제과정은 노동자들의 생활에 타격을 주어 한국의 저임금구조가 이 시기에 확고하게 구축되었다. 농촌에서 지주·소작관계의 존속, 정부의 낮은 미가정책 강행, 미국잉여농산물 도입과 과중한 조세부담 등을 유력한 지렛대로 저렴한 농촌노동력의 재편·창출, 대미의존의 기형적 공업구조 형성, 원조와 무역특혜에 연유하는 소수기업의 확대와 압도적 다수인 중소기업의 몰락에 따른 공업생산의 부진으로 대량의 실업자·반실업자들이 창출되었다.⁷⁵⁾

해방을 맞아 해외로부터 귀국한 동포들과 월남한 피난민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였으나, 남북

74) 최상오, 외국원조와 수입대체공업화, 이대근 외, 한국경제 발전사, 나남출판, 2005 참조.

75) 김형기, 같은 책, 102쪽.

분단과 일본자본·기술자의 철수 등으로 생산은 급감하고 정치·사회적인 혼란으로 악성 인플레이션까지 만연하여 정부는 노동정책을 제대로 세우기 어려웠다. 더구나 100만여 명의 사망자를 낸 한국전쟁으로 건국초기에 겨우 자리를 잡아가던 산업기반이 철저히 파괴되어 농업부문 종사자를 제외하면 대다수가 실업 내지 잠재실업 또는 불완전 취업상태에 머물렀다.

1946년에 고용된 노동자는 1944년의 60% 수준에도 못 미쳤고, 1947년 실업률이 20~30%에 달하였으며, 1946년 생산자 물가지수가 530%로 폭등하여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급감하였다. 그러나 전체인구의 70% 이상이 아직도 농림수산업 등 1차산업에 머무르거나, 유흥인력을 흡수할 만큼 탄력적인 농업생산력이 존재하여 수많은 잠재실업을 수용하였다⁷⁶⁾.

3) 해방 이후의 노동운동

1945년 8월 15일 이후 노동자들은 생산중단과 생활물자의 절대부족, 엄청난 물가폭등 속에서도 일제의 공장과 재산을 관리하며 생산을 재개하였다. 사회주의 세력은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대중조직기반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1945년 11월에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결성하였다. 전평 조직은 남북한 합쳐 1,194개, 조합원이 50만 명이였다. 전평은 노동자들을 15개의 산별노조로 결집시키고 경제적 일상투쟁과 정치투쟁의 결합을 전술로 친일과 민족반역자를 제외한 진보적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족통일전선정권 수립에 참가함을 강령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민족자주정부를 부정하고 조선총독부의 통치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노동자들의 자주관리를 금지시키고 노동쟁의를 강제중재방식으로 바꿈으로써 노동운동을 억압하였다. 또한 미국의 반소냉전정책의 강화로 남한의 노동운동을 장악하고 조선공산당을 지지기반으로 막강한 정치력을 행사하던 전평을 억압하였으며, 반공청년단 간부를 중심으로 1946년 3월 10일에 대한독립촉성노동총동맹을 발족시켰다.

1946년 9월에 서울철도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폭발하여 전국적으로 동정파업과 동맹휴학이 이어지고, 10월 1일에 대구 인민봉기가 전개되었다. 미군정은 경찰과 대한노총 간부, 대한청년단 등을 동원하여 파업단을 공격하고 간부 16명과 노동자 1,200여 명을 검거하였다. 전평은 미군정에 전면대결로 전환하고 1947년 3월에 구속자 석방, 경찰의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24시간 시한부총파업을 전개하였다. 두 차례 총파업에서 연인원 60만 명에 2,388건

76) 이종원, 한국경제론, 율곡출판사, 2002, 312~313쪽.

의 쟁의를 일으켰으나 피살자 26명, 구속자 8천여 명, 해고자 16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은 채 1947년 8월에 미군정 포고령으로 불법단체가 되었다.

1948년 2월에 유엔한국위원단의 방한을 반대하여 총파업하였는데, 전국주요산업도시에서 200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다. 3,479명이 구속되고 경찰 5명과 시위대 28명이 죽을 만큼 격렬하였다. 미군정이 1948년 5월 10일에 남한단독선거를 강행하자 이를 반대하여 5월 8일에 ‘남조선단선단정반대총파업’을 전개하였으나, 좌절되어 남한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 소멸되었다.

1948년 8월 15일에 출범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무상원조를 기초로 친미반공의 독재권력을 행사하여 정치적 반대파와 사회운동을 철저히 억압하였다. 일제가 남긴 공장이 있었지만 한국전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으며, 전쟁 후 농지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농업경제는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로 피폐되어 절대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방직·밀가루·설탕 등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해 지탱된 소비재공업은 권력과 밀착된 관료독점자본이 지배하였고 미국의 원조자금은 권력유지에 충당됨으로써 부정부패가 극심하였다. 정권은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경찰력으로 억압하고 부정선거로 막으려 하였으나, 1960년 4월혁명으로 붕괴되었다.

원조경제와 독재체제에서 인구는 급증하고 농촌은 과잉노동력이 넘쳤으며, 도시는 실업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였다. 완전실업자는 1957년의 27만 7천 명에서 1960년 43만 4천 명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노동운동의 주력부대인 공장노동자(5인 이상 업체)는 매년 감소하여 1960년에는 1943년보다 3만여 명이 줄어든 23만 5천 명이었다. 1953년에 노동법이 민주적인 내용으로 제정되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실업과 극도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으로 생존자체를 위협받았다. 노동조합은 반공정책의 강화와 공업화의 부진으로 세력을 증대시키지 못하여 조합원은 1959년까지 568개 노조에 28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해고반대 등을 요구하며 전쟁기간 중에도 파업을 전개하였고, 1950년대 말 경제위기가 심해지면서 격해졌다. 1958년까지 40여 건의 쟁의에 1만여 명 정도 참가했던 노동자들이 1959년 95건에 5만여 명이 참가할 만큼 투쟁을 확대하여 독재정권의 몰락을 촉진하였다.

한편, 전평을 타도하고 노동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대한노총은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주력하기보다는 이승만정권의 충실한 지지기반이 되었다. 대한노총의 지도부 결정은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조직이 자유당의 기간단체가 되기도 하였다. 대한노총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과 파벌싸움으로 일관하였으며, 현장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해서는 배신과 기만, 협잡이 빈번하여 중요쟁의 때마다 현장노동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누적되었다. 노동자들의 저항은 1959년에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 결성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노동자들이

중심인 이 조직은 대한노총의 파벌싸움 때문에 복잡하게 구성되기는 했지만, 541개 노조 중 311개 노조가 대한노총에서 탈퇴하여 이 조직에 가담할 의사를 보일 정도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권력의 비호로 노동대중의 권익향상을 외면하고 반공독재정권의 기반 역할에 치중했던 대한노총의 기반은 1960년 정권의 몰락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다.

4) 해방 이후의 노동입법

일본의 패망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미군정기 노동법령은 한국 노동관계법의 근간이 되었다. 다만, 이 시기 노동입법은 주로 노동보호법에 치중되어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 정치범처벌법, 예비검속법 등의 단속법령이 1946년 10월에 폐지되고, 노동자 보호와 원활한 노동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일반노동임금에 관한 법률’(1945년), ‘아동노동법규에 관한 법률’(1946년), ‘최고근로시간에 관한 법률’(1946년), ‘미성년자노동보호법’(1947년) 등 노동조건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일반노동임금에 관한 법률은 미군정이 실시한 최초의 노동관계법으로서 이후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기본이 되었다. 또 아동보호법령을 체계화하고, 노동시간을 규제함으로써 이후 우리 노동관계법의 근간이 되었다.

한편, 미군정은 포괄적인 노동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19호 ‘국가적 비상시기의 포고’(1945년)로 비공익사업의 쟁의행위를 인정하였지만, 노동조정위원회가 조정하기까지는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조정위원회법’(1946년)과 노동행정기구를 확충하기 위한 ‘노동문제에 관한 공공정책 및 노동부 설치에 관한 법률’(1946년)을 마련하였다. 특히 후자는 당시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공장관리운동, 노동조합 조직과 쟁의행위를 억제하고자 하였다.

미군정의 노동정책은 한국의 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노동입법은 노동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것 외에는 주로 개별적 노동관계분야에서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 노동입법의 성격이 노동자의 단결활동보호보다는 점령목적달성이라는 군정당국의 행정필요에 따른 것이었지만, 1930년대 중반 이후 극심한 일제의 노동탄압으로 비합법 지하투쟁화 단계이던 좌익노동운동적 경향이 해방과 더불어 합법이 되면서 이 시기 노동운동의 중핵을 이루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 헌법 제17조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 정하고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함으로써 개별적 노동관계에서 노

동보호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18조는 노동자에 대한 이익균점권⁷⁷⁾과 함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제정을 선언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동조건을 최저기준을 국가가 법률로써 정하되, 그 이상의 노동조건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여 쟁취할 것을 기본으로 하는 노동법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1953년 3월 8일에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같은 해 5월 10일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4법이 제정되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전후 맥아더군정의 노동정책에 의하여 만들어진 일본의 1949년 개정 노동조합법을 모방하여 노동조합의 자유설립주의,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확보, 자율적 단체교섭, 자주적 쟁의조정원칙 등이 반영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조합에 대한 국가개입을 예정하고 있었다. 즉,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내용, 노동조합의 존속 등을 행정관청의 간섭과 개입을 허용하고, 단체협약의 체결단위를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으로 하여 산별·지역별·전국단위 노조연합체의 교섭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노동쟁의조정법도 행정관청이 주도하는 알선제도의 도입, 행정관청의 광대한 심사권 인정, 냉각기간의 설치, 공무원의 쟁의행위금지 등이 있었다.

한편, 노동조건을 최저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일본노동기준법을 계수(繼受)하여 내용은 전향적으로 입법되었다. 감독제도와 벌금으로써 법규위반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로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즉, 국내의 노동환경은 물론 국제 노동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이상적인 모습을 취하였기 때문에 ‘장식적 규범’의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1953년에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뒤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입법적 변화는 없었다.

6. 해방 이후의 교회와 노동문제

1) 해방정국의 혼란과 교회

1945년 9월 초에 미군이 남한에 진주하고, 9월 9일에 미군중사령관인 뉴욕대교구장 스펠만

77) 제헌헌법 제1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였다.

(Francis Joseph Spellman, 1889~1967) 대주교가 명동대성당에서 ‘승전과 해방의 미사’를 집전하였으며, 일제가 추방하였던 미국인선교사들이 돌아와 미군정과 교회 사이를 긴밀하게 하였다.⁷⁸⁾ 미군정이 조선공산당원의 위조지폐사건으로 폐쇄한 조선정관사를 1946년 6월에 교회가 매입하여 대진인쇄소로 개입하여 출판물을 인쇄하였으며⁷⁹⁾, 일제에 의하여 폐간되었던 『경향신문』을 속간(續刊)하였다.

남한교회 지도자들은 1930년대부터 실천되던 가톨릭 액션을 새롭게 해석하고 종전보다 훨씬 큰 비중을 부여하여 해방 이전의 언론·출판·의료·교육 등의 기존영역에 정치와 계급영역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확장하였다. 그러나 북한교회는 종교에 대하여 유화정책(有和政策)을 쓰던 초기 소련의 군사정권시기에는 제한적이거나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지만⁸⁰⁾, 1946년 3월에 시작된 토지개혁으로 교회의 경제기반이 급격히 무너졌다.⁸¹⁾

북한정권은 토지개혁으로 아사지경(餓死之境)에 빠진 북한교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1949년 5월에 함흥대목구장 사우어 주교를 비롯한 덕원 성 베네딕토 수도원과 함경남·북도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신부·수사·수녀 55명을 체포하였다. 평양대목구장 홍용호(洪龍浩, 프란치스코, 1906~?) 주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1949년 5월 14일에 홍용호 주교마저 체포하고,

78) 경향잡지, 1946년 8월호, 13쪽.

79) 경향잡지, 1946년 9월호, 30쪽.

80) 1945년 9월 20일자 스탈린 명의를 지령문을 통하여 북한에 있는 군대에게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예의 바르게 행동할 것”을 지시하고 “종교의식과 예배를 방해하지 말고 성당, 기타 시설에 손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소련당국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였지만, 실제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는 구호에 그칠 뿐 내면으로는 제약하였다. 소련이 북한에서 군정을 시행하면서 취한 제한정책은 강력한 민족주의 세력으로 드러났던 종교인들을 포섭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이들을 이용하려 하였고, 계급정책을 실시한다는 명목에서 민주개혁을 강행하여 종교의 사회적 기반을 약하게 하려고 하였으며,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계급의식을 주입하여 반종교투쟁을 전개하여 점차 종교활동 자체를 매몰시켜 나가려고 하였다: 조광, 6·25전쟁과 한국교회, 교회와 역사 제171호(1989. 8.), 한국교회사연구소, 12쪽.

81) 북한당국이 1946년 3월 5일에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한 ‘북조선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공포하여 토지개혁을 20여 일 만에 완료하였는데, 5정보 이상을 소유한 종교단체의 소유지도 토지개혁의 대상이었다. 교회 소유 부동산 가운데 경작지가 대부분으로 재정의 상당부분을 이 경작지들에서 나오는 소작료에 의존하였다. 토지개혁으로 북한교회는 대부분의 농토를 몰수당하고, 연길대목구지역도 내전이 본격화한 1946년 7월부터 1948년 4월까지 공산당들이 토지개혁을 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함흥대목구와 덕원면속구는 1946년 여름부터 극심한 생활난·식량난으로 1946년 초여름에 신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1947년 봄에 사우어 주교가 서울의 노기남 주교에게 긴급원조를 요청하였다. 남한교회는 1947년 3월부터 경향잡지를 통하여 연길대목구 주교와 신부들을 위한 구제금품을 본격적으로 모으고, 6~7월부터 원조대상을 함흥대목구와 덕원면속구까지 확대하였다. 한편, 북한의 토지개혁 소식이 전해지자 남한농민들이 토지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대주교였던 남한교회는 토지개혁으로 인한 수입감소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웠다. 그러나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신속히 수행한 북한과 달리 남한은 1950년 5월에야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토지개혁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남한교회는 북한교회보다 피해가 적었다: 李圭泰, 해방 공간과 한국 천주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290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7, 9쪽; 강인철, 같은 글, 74~87쪽.

평양시내와 평안남북도의 한국인 신부들을 모조리 학살하였다. 서울대목구 관할의 황해도 사목자들은 1949년 5월 20일부터 체포·연행되어 5월 24일 자정을 계기로 모두 피살되었다.⁸²⁾

남한교회는 남하한 사제·수도자·신자들을 수용하면서 북한신자들에게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공산주의에 순교정신으로 대항하도록 권고하고⁸³⁾, 가톨릭 액션을 다양하고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가톨릭학생회가 학교별로 조직되고, 서울교구청년연합회⁸⁴⁾·서울여자청년연합회⁸⁵⁾·서울가톨릭학생회⁸⁶⁾·대구청년연합회⁸⁷⁾ 등이 속속 결성되었다.

2) 노동과 교회



이해남 교수

좌·우익 대결로 매우 혼란스럽던 해방정국에서 교회는 노동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농업인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대부분 옹기장이나 농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48년 3월에 교황의 사회회칙들을 공식으로 출간하였다. 이해남(李海南, 요셉, 1910~1989)⁸⁸⁾ 교수가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와 교황 비오 11세

- 82) 이 때 북한 전역에서 체포된 이는 한국인 42명, 외국인 123명 등 모두 165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살아 돌아온 이는 외국인 94명, 한국인은 단 한 명뿐이었다: 조광, 같은 글, 13쪽.
- 83) 북한교회 탄압이 점점 강해지고 공산정권의 체제가 굳어지자 한국전쟁 이전에 북한주민들이 대거 월남하여 공산정권의 북한교회 탄압이 남한교회에 알려졌다. 남하한 평양대목구 신자들이 1949년 11월 6일에 명동대성당에 모여 북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북한교회의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 서울대목구는 이북 교회를 위한 특별기도회를 1950년 6월 15일에 명동대성당을 기점으로 6월 28일까지 매일 교구 각 성당에서 40시간 성체조배로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기도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였다: 경향잡지 1949년 12월호, 186쪽; 경향잡지 1950년 6월호 100쪽; 조광, 같은 글, 13쪽.
- 84) 일제시대에 침체되었다가 1946년 7월 7일에 재구성된 서울교구청년연합회의 간부진을 보면 회장 장면, 부회장 조종국, 총무부장 박대영, 교화부장 장발, 선전부장 최일준, 보건부장 박병래 등이었는데, 이들은 이미 40대로 청년이 아니었다: 경향잡지 1946년 8월호 14쪽.
- 85) 1946년 8월 15일에 결성되었다: 경향잡지 1946년 9월호, 29~30쪽.
- 86) 경향잡지 1946년 10월호, 46쪽.
- 87) 1946년 5월 12일에 대구가톨릭청년회로 발족하였다가 1948년 9월 18일에 재발족 되었다: 경향잡지, 1948년 10월호, 156~157쪽.
- 88) 역사학자로 성신대학(聖神大學), 경북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 한양대학교 등에서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였다. 1932년부터 여러 지상의 신춘문예에 당선될 정도로 문재(文才)가 뛰어났으며, 1948년에 천주교 회교 『서학란』(西學亂), 1963년에 장편소설 『애와의 자손들』을 발표하는 한편, 교육과 서양사 관계지식을 많이 남기고, 계속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1949년 8월 26일에 결성되어 1968년 7월 23일에 한국가톨릭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 이관될 때까지 한국가톨릭 평신도운동의 중앙추진단체였던 '대한천주교연맹'(大韓天主敎聯盟)의 총무를 역임하고, 1957년 1월 29일에 혜화동성당 '상지의 좌' 쿨리아가 설립되었을 때 단장이었으며, 혜화동성당에서 유수철(柳秀徹, 도미니코, 1918~1977) 신부와 함께 크리스천 성가정 운동(CFM)을 한국에 소개하고, 1967년 제1회 꾸르실료 모임을 수료하여 한국에 꾸르실료 운동을 개척한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일 만큼 가톨릭 교회의 열성적인 평신도로 활동하였으며, 정년

의 회칙 『사십 주년』을 번역·해설한 『社會秩序의 大憲章. 附 朝鮮社會의 再建路線』을 경향신문사가 출판하였다. 이 책은 두 교황의 회칙을 바탕으로 조선사회의 재건노선으로 사회문제, 경제질서의 재건, 직분(職分), 공익(公益)과 민권(民權), 민주정치, 인류사회의 생활규범 등을 논하면서 해방 뒤의 극심한 좌우익의 사상적 대립에서 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였다.⁸⁹⁾

교회의 노동과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가톨릭청년』에 잘 드러났다.⁹⁰⁾ 가톨릭 액션의 유력한 수단이자 성과로 1947년 4월에 속간(續刊)된 『가톨릭청년』은 해방 뒤 가톨릭 액션의 가장 중요한 지향이었던 반공주의를 반영하여 공산주의에 대한 분석과 경계의 글을 게재하였다.⁹¹⁾

한국 주교단은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2월 연례 주교회의에서 사회재건 문제를 다룬 『사회 질서 재건에 대하여 교도와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공동사목교서를 발표하였다. 이 공동교서는 『社會秩序의 大憲章. 附 朝鮮社會의 再建路線』에 비추어 분석하고, 해결책을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제시하였다. 주교단은 레오 13세와 비오 11세의 회칙을 근거로 교회가 사회문제에 올바른 가르침을 제시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자연적·초자연적 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연법에 입각한 경제 조정원리를 재발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제의 정당성을 천명하고, 농촌문제를 해결하며, 노동공동체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였다.⁹²⁾

퇴직 이후 캐나다로 이민하여 몬트리올에서 선종하였다: 한국 가톨릭 대사전 9, 7084쪽.

89) 崔鍾庫, 第1共和國과 韓國天主教,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05호(1984. 3), 14쪽.

90) 노동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자유롭고 정당히 계약된 노동은 충실히 수행하고, 고용주에게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주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고용주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저축을 착취하지 말며, 종교적 자유와 부도덕하고 나쁜 모범에서 보호하고, 체력과 연령·성별에 적당하지 않은 노동을 시키지 말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吳陸道, 勞動·資本·敎會,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47년 4월호, 2~6쪽. 노사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한 글도 있다. 즉, 노동자가 자본가들의 이익추구의 로봇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으로 만든 고귀한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지위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노동자가 직접 생산에 종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며,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산에 직접 관계되는 문제에 대하여 노동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행복추구권이라는 근본문제에서 출발할 때만 순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필립·무레이 著; 金若望 譯, 勞動의 宗教的根柢,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47년 5월호, 18~22쪽. 또한 해방직후 ‘전쟁’(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과 ‘대한노총’(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라는 양대세력의 병존현상에 대하여 성격은 다소 다르지만 미국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다는 전제에서 J·참버라인이 지은 ‘美國勞働組合運動의 片貌-總裁 「마」氏와 C·I·O를 中心으로-’를 번역 소개하기도 하였다: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47년 6월호, 26~30쪽.

91) 강인철, 같은 글, 50쪽.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는 과정에서 공산권이 매우 확대되었다. 교회는 도처에서 공산주의와 맞섰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교회와 공산주의가 부딪힐 때마다 교회가 변변히 피해자가 되면서 오늘날과는 다른 양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교회의 독특한 시각이 형성되었다. 러시아혁명 이후에 볼셰비키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간주하고 종교를 철저히 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내란 중의 공화국 정부의 교회탄압, 1924년 이후의 멕시코공화국 정부의 교회탄압,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에 합병된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교회에 대한 소련 공산정권의 탄압 등과 같은 교회의 수난과 역대교황들의 입장이 우리나라 신자들에게 『가톨릭청년』, 『경향잡지』 등을 통하여 전달되었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해방직후 한국교회사에서 분단을 심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조광, 앞의 글, 20쪽.

3) 한국전쟁과 교회의 재건노력

해방 직후 극심한 이념대립, 미·소의 군정, 단독정부 수립 등으로 분열된 속에서도 식민지 시대의 압제와 수탈을 극복하고 안정과 발전을 바라던 이 민족은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으로 또 다시 처참하게 무너졌다. 전쟁 이후 자유당독재가 점차 심해지고, 미국의 원조경제체제가 성립되었으며, 농촌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많은 전재민(戰災民)이 발생하고, 전쟁으로 지역 간 이동이 심해져 전통지역공동체가 무너졌으며, 절대빈곤층이 생겨났다. 교회는 전쟁이 끝나기 전부터 신자·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긴급구호정책으로 생존과 정착을 도와주었다.⁹³⁾

남한교회는 휴전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파견된 외국인선교사와 한국인성직자·수도자·평신도 모두 선교에 매진(邁進)하였으며, 전쟁이 삶과 죽음 등 인간의 근본문제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어 좋은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⁹⁴⁾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하고, 교황사절이 내한하여 상주함으로써 교황청과 한국교회가 강하게 결속되었다. 여러 수도회·선교회들이 연이어 이 땅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복음전래 초기부터 명도회(明道會)⁹⁵⁾ 같은 교리연구단체와 청년회·부인회 같은 신심단체들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인 복음화에 힘을 쏟았는데, 휴전 이후 레지오 마리아 같은 사도직단체들이 한국에 들어왔다.

92) 경향잡지 1950년 4월호, 49~62쪽.

93) 신생 후진국으로서 힘겨운 전쟁을 수행하던 한국정부가 전쟁희생자들인 피난민, 전재민(戰災民)·전상자(戰傷者)와 가족들을 제대로 보살피기 어려울 때 한국교회는 긴급구호정책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한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은 1946년에 이 땅으로 진출한 이래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 구호물자를 통하여 전쟁이재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적극 해결하여 준 미국가톨릭복지협회(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 NCWC) 산하 가톨릭구제회(Catholic Relief Service: CRS)가 인적·물적 자원을 대부분 감당하였다.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1953년 6월까지 미국가톨릭복지협회가 보내 준 모든 의약품과 의류의 양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130만 달러에 달하며, 1947년부터 휴전 직후인 1954년 1월까지 원조 총액은 2,500만 달러이었다. 이는 한국전쟁 기간 중 미국의 각종 종교단체들이 한국에 보낸 구호물자의 70%에 달하였다. 車基眞, 같은 글, 5쪽; 한국가톨릭대사전 9, 6052~6053쪽 참조.

94) 휴전이 되던 1953년에 166,471명에 불과하던 가톨릭 신자들이 1958년에 354,843명, 한국교회에 정식으로 교계 제도가 설정된 1962년에는 530,227명으로 급증하였다. 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 1985, 326쪽.

95) 주문모(周文模, 야고보, 1752~1801) 신부가 1796년 5월에서 1798년 사이에 중국 북경에 있는 단체를 모방하여 설립한 교리연구와 선교단체로 초대 회장은 정약중(丁若鍾, 아우구스티노, 1760~1801)이었다. 한국가톨릭대사전 4, 2631~2633쪽 참조.

4) 노동관련 수도권 진출

공장지역의 노동자들을 사목하고, 기술학교로 이 땅의 산업화를 앞당길 수 있는 수도회를 초청하려는 교회의 노력은 광복 이후에 재개되었다.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가 1951년에 일본주재 교황공사 마씨밀리아노 푸르스텐베르그 주교(Mons. Massimiliano Furstenberg)를 통하여 살레시오회를 초청하려고 하였으나⁹⁶⁾, 조건이 맞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⁹⁷⁾ 대신 광주지목구장 서리 하롤드(Harold W. Henry, S.S.C., 玄海, 1909~1976) 몬시뇰이 광주에 기술학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1952년부터 일본주재 교황공사와 살레시오회 일본관구장⁹⁸⁾, 교황청 신앙교리성(Sacra Congregatio pro Doctrina Fidei)과 토리노의 살레시오회 총장 등에게 요청하여 1954년 8월에 살레시오회원들이 광주에 진출하였다.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는 살레시오회가 광주지목구에 진출한 뒤에도 살레시오회 일본관구장에게 회원을 파견하여 줄 것을 거듭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다.⁹⁹⁾ 이에 앞서 1957년 4월 24일에 살레시오수녀회 수녀 4명이 도림동성당으로 진출하였으며¹⁰⁰⁾, 1958년 6월 22일에 두 사목자들이 도림동성당에 부임함으로써 숙원을 해결하였다. 살레시오회는 서울대목구에서 본당사목으로 출발하였으나, 영등포라는 당시 지역적 특성에 맞게 노동자들을 위한 사목에 충실하였고, 청소년노동자들의 전인적인 양성과 같은 자신들의 본래사명을 수행하였다.¹⁰¹⁾

96) “도쿄에 있는 교황사절은 살레시오회가 한국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구장 신부는 한국 진출 문제에 대해 총장 신부에게 연락하였다. 관구장 신부는 교황사절의 말을 듣고 총장 신부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였다.”(살레시오회 일본관구 평의회 일지 1951년 12월 18일). 당시 우리 정부는 일본과 단교(斷交)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공식적으로 상대국을 왕래하기 어려웠다: 필자 주.

97) Luigi Del Col, S.D.B., 같은 책, 68쪽.

98) “도쿄에 계신 교황사절은 우리에게 빨리 한국에 들어가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남쪽에 있는 광주지목구장 서리 신부가 직접 나를 찾아와서 광주지목구에 빨리 와달라고 말했고 내가 지목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대 주겠다고 했습니다...”(살레시오회 일본관구장 타씨나리 신부가 살레시오회총장 지조티 신부에게 보낸 1953년 1월 27일자 편지).

99) “서울 노기남 주교는 성 요한 보스코 성당의 건물과 땅을 아무 조건 없이 모두 살레시오회에 주고 싶다고 하였다. 우리는 성당에 가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토리노 장상에게 문의하도록 하자. 필요한 수속을 토리노에 연락해서 밟도록 하자”(살레시오회 일본관구 평의회기록 1958년 2월 11일).

100) 한국 살레시오회 광주공동체 일지(1) 1957년 4월 20일자.

101) 1954년에 광주대목구로 진출한 한국 살레시오회는 공업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던 광주대목구장 하롤드 몬시뇰의 기대와는 달리 1956년 4월 9일에 인문중학교인 살레시오중학교를 개교하였다. 살레시오회가 공업학교를 개교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광주가 전라남도의 도청소재지이었으나, 공장이 거의 없는 농업지역으로 공업학교를 졸업하여도 취업하기 어려웠고, 정부가 공업학교에 대한 외국의 원조, 즉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를 광주공업고등학교에 집중하였으므로 학교대지 구입과 건물건축 이상의 여력이 없던 살레시오회는 공업학교에 필요한 실습시설과 장비를 매입할 수 없었으며, 학생들에게 공업을 가르칠 공업교사가

한편, 푸코(Charles de Foucauld, 1858~1916)¹⁰²⁾의 영성을 본받아 노동자·농민·환자 같은 이들의 거주지에 살면서 공장노동이나 파출부, 농촌의 밭일을 하는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기쁨과 아픔, 하느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Petites Soeurs de Jésus)가 1955년 6월에 대구대목구장 최덕홍(崔德弘, 요한, 1902~1954) 주교의 초청으로 이 땅에 들어왔다. 이들은 처음에 왜관 삼청동에 있는 나환자 마을에 ‘우애의 집’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하였으며, 1957년부터 서울대목구에 진출하여 목동·사당동·상암동(난지도) 등 무허가 동네에 거주하며 철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 노력하였다. 이들은 공장노동자나 파출부 등으로 생활하면서 인간적인 장벽이나 편견을 무너뜨리고 이웃에게 복음적 가난과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실천으로 심어 주었다.¹⁰³⁾

전쟁의 참화(慘禍)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인 복음화에 전력하던 한국교회가 1950년대에 노동,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설립된 1958년까지 눈에 떨 만큼 체계적으로 노동사목을 전개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당시 교회가 대다수 국민들의 기아로 인한 생존문제 해결을 더 큰 과제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일제시대부터 교회가 노동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 왔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에 1958년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설립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절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대신 같은 달 15일부터 사레지오중학교에 광주대목구와 전주대목구 그리고 한국살레오회의 신학생들을 위한 소신학교를 운영하고, 목공과 선반실습소를 개설하여 기술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였으나 이 실습소는 오래 가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국살레시오회가 서울대목구 영등포성당(오늘날의 도림동성당)을 맡은 이후 서울 남부지역의 성당청년들과 사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계속 확산시켰으며, 이어 나중에 서울의 공업중심지역이 된 구로동공업단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구로동성당(오늘날의 구로3동성당)을 설립하여 노동자 중심의 본당사목을 계속하였다. 또한 오랜 준비 끝에 1967년 3월 3일에 영등포구 신길동에 오늘날 돈보스코청소년센터의 전신이 된 근로청소년기술실습소를 개설하여 기계기술을 가르치고, 대림동공동체에서 목공기술을 가르침으로써 불우한 노동청소년들을 전인적으로 양성하는 자신들의 사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필자 주.

102) 프랑스 가톨릭 선교사. 1882년에 퇴역한 이후 정신적 불안으로 고민하다가 1887년에 가톨릭으로 돌아와 1890년에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들어갔으나, 고독한 생활을 위해 나자렛, 예루살렘의 글라라동정회 여자수도원에서 노무자로 일하다 1901년에 귀국하여 사제가 되었다. 이후 선교사로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의 오지(曠地) 타만라세트(Tamanrasset)로 건너가 원주민 투아레그족(族)의 언어를 공부하여 사서(辭書)를 작성하고 번역하였다. 1905년에 타만라세트 근교에 수도원을 건립하고 선교에 힘썼으나,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압살되었다. 2005년 11월 13일에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그를 시복하였다. 그는 아프리카 무슬림들 사이에 순응적인 새로운 선교방법을 창시하였는데, 그가 선종한 뒤 그의 유지를 받들어 1939년 사하라의 투구르트(Tougourt)에서 창립된 수녀회인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Petites Soeurs de Jésus)가 1955년에 우리나라에 진출하였으며, 1933년에 알제리에서 창립된 관상수도회인 ‘예수의 작은 형제회’(Petites Freres de Jésus)가 1969년에 진출하였다: 한국가톨릭대사전 12, 9032~9034쪽.

103) 한국가톨릭대사전 9, 6386~6387쪽.

❁ 제2절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설립(1958~1962년)

1. 가톨릭노동청년회와 주변 환경



추기경 서임 후(왼쪽부터 천정자, 국제부회장,
카다인 추기경, 송명숙, 국제회장)

교회일각에서 노동과 노동자를 어느 정도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하였으나¹⁰⁴⁾, 전반적으로 척박(瘠薄)하게 보이는 한국교회의 노동사목 역사에서 1958년은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해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¹⁰⁵⁾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노동관계법을 제정하고 노동조합을 성장시키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

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의식구조와 가치관을 가진 이로 육성하거나, 노동자 개인

104) 이 시기의 교회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사십 주년』과 무신론적 공산주의에 대한 회칙인 『하느님이신 구세주』 등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건전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를 제시하였다. 즉, 사회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노동의 필요와 가치로 인하여 만민에게 노동의 의무가 있음을 일깨우고, 그에 따라 균형과 조건을 신성하게 취하여 무차별적인 노동법과 비도덕적인 고용주나 비인도적인 악질 선동자의 모략적인 노동에 대한 처우를 경계함으로써 인류의 공존번영과 이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교회가 노동자의 보호자이며 변호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천명하면서 계급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확실하고 안정된 지위획득과 사업의 성원으로서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황 비오 12세의 1940년과 1954년의 라디오 메시지를 바탕으로 노동정책은 도덕과 신앙에 기초를 두고 발전되고, 모든 국민의 풍습과 제도가 차차 교회의 원리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지만, 도덕적 규율이 경시된 데서 모든 폐단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정의는 공동선을 필요로 하여 유기적인 사회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칙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姜周熙, 『勞動精神을 顯揚함-『메이데이』에 際하여-』,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55년 5월호, 가톨릭청년사, 29~32쪽.

105) 가톨릭노동청년회는 프랑스어 Jeunesse Ouvrière Chrétienne의 번역으로 약자는 JOC이다. 영어로는 Young Christian Worker이며 이의 약자는 YCW이다. 벨기에의 조셉 카다인(Joseph Cardijn, 1882~1967) 신부가 설립하였다. 카다인 신부는 브뤼셀 인근 노동자 집안의 맏아들로 태어나 진학하지 못하고 노동하다가 노동자를 위한 사제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1906년에 사제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감옥에서 구상한 ‘Jeunesse Syndicalist’라는 모임을 전쟁이 끝난 뒤에 조직하고, 이 모임의 이름으로 정기 간행물도 발간하였다. 1921년부터 1924년까지 빠른 속도로 벨기에 전역에 확산되었고, 1925년에 벨기에주교단과 교황 비오 11세가 인정하여 1925년 4월 18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국가적인 조직체로 육성한다는 정관도 채택하였다. 1927년부터 세계 곳곳에 확산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이 운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한국가톨릭대사전, 1985, 16쪽. 이미 일제시대에 가톨릭 운동의 하나로 소개된 바 있다: 佛國가톨릭勞働組合,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35년 12월호, 가톨릭청년사, 40~42쪽.

과 그들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 땅에서 복음정신이 충실한 노동청년들을 양성하여 노동자들과 노동계를 복음화하는 환경사도직¹⁰⁶⁾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설립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¹⁰⁷⁾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청년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청년노동자들과 함께, 청년노동자들의 손으로, 청년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계를 그리스도적인 생활양식으로 만드는 활동단체로 세 가지 기본성격이 있다. 첫째, 일상생활을 통하여 활동한다. 둘째, 일상적인 생활환경 속에서 동료노동자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수련한다. 셋째, 청년노동자들이 공동으로 해결하여야만 하는 문제나 일치되어야 할 상황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청년노동자들을 대변한다.¹⁰⁸⁾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신앙의 진리, 경험의 진리, 사목적 실천과 방법의 진리 등을 통하여 하느님과 세상을 바라본다. 신앙의 진리는 하느님께서 청년노동자들 전체에게 그분의 본질·생명·사랑·행복을 함께 나눌 것을 약속하셨다는 진리이다. 경험의 진리는 이 같은 하느님의 계획이 실제세계에서는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세상 곳곳에는 억압, 굶주림, 전쟁,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특히 청년노동자들에게 저임금, 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노동조건 외에도 산업재해의 위험, 열등감 등이 따라다닌다. 실천의 진리는 신앙의 진리와 경험의 진리에 비추어볼 때 믿을 수 없어 보인다. 이런 갈등 속에서 청년노동자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세상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고유한 사명을 실천한다.¹⁰⁹⁾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유능한 지도자나 박식한 지식인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미숙한 노동자들이 실제로 부딪히는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를 보고 느끼고 사고하여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도록 이끌고 도와준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원칙은 첫째 하느님의 자비하고 냉철한 눈으로 관찰하고, 둘째 하느님의 뜻에 맞추어 판단하며, 셋째 사랑으로 실천한다.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모든 훈련과 활동은 이 관찰·판단·실천으로 시작된다.¹¹⁰⁾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자 자신에 의한 평신도사도직이므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전개하는 일곱 가지 활동은 각각 특별한 한 가지

106) 오경환, 같은 글, 72~73쪽.

107) 이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의 열매로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사십 주년』과 제2차바티칸공의회 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Apostolicam Actuositatem)이 언급한 가톨릭 사회환경 사도직의 시작이요 핵심이다. 그러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회원인 투사들은 무엇보다 자기와 자기 이웃들을 복음화하는 사도가 되어야 한다: 도요안 신부, 2007년 1월 4일자 증언 참조.

108) 한국가톨릭대사전, 1985, 16쪽.

109)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25주년사, 분도출판사, 1986, 43~44쪽.

110) 같은 책, 44~46쪽.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닌, 연결되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역할이 분산된 활동형식보다 총체적인 활동이 노동자나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¹¹¹⁾

이 땅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시작된 1958년은 어용조직으로 전락한 대한노총 위원장 일파의 부정부패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회사와 어용노조 간부들의 보복을 무릅쓰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애쓰다가 궁극적인 걸림돌로 버티던 대한노총에 대항하여 1959년 10월 26일에 설립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국노협)를 준비하고 있었다.¹¹²⁾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그 나라 주교들을 임명하고, 추기경단을 국제화하였던 교황 비오 12세(1876~1958)가 선종하였다. 대신 1961년에 사회교리를 쇄신한 회칙 『어머니요 스승(Mater et Magistra)』을 반포하고, 1962년에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교회의 사명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현대화 운동'(aggiornamento)을 불러일으킨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교황 요한 23세(1881~1963)가 즉위하여 교회가 현대에 적응하려고 본격적으로 몸부림치는 시기를 맞았다.¹¹³⁾

한국교회는 이 해에 대전대목구와 청주대목구가 서울대목구에서 분리·설정되고, 전국에 45개 본당이 신설되었다.¹¹⁴⁾ 그러나 한국교회와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던 1952년을 전후한 시기에 부산정치과동이 중요한 계기가 되어 멀어졌고, 장면이 이승만과 결별하고 민주당에 가담하여 민주당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자 교회와 자유당정권의 갈등이 심해졌다.¹¹⁵⁾

111)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일곱 가지 활동은 노동자 스스로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하여 팀, 섹션이나 교구(연합회), 전국단위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양성활동,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일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노동자활동, 교회와 사회에 대하여 노동자를 대표하여 노동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대표활동, 지속적으로 봉사하여 노동자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발전을 도모하는 봉사활동, 모든 노동자에게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신을 전파하여 그들의 정신과 생활을 혁신하는 대중활동, 비신자와 다른 종파 신자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복음화하는 선교활동, 세계 여러 나라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고통과 기쁨을 형제애로 나누는 국제활동 등으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서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책, 47~50쪽.

112) 이원보, 같은 책, 144~150쪽.

113) 한국가톨릭대사전 6, 3785~3789쪽; 한국가톨릭대사전 9, 6572~6574쪽.

114) 한국가톨릭대사전(부록), 1985, 326쪽.

115) 이승만 정권과 계속 대립하던 한국교회는 1958년 5월 2일의 제4대 민의원 선거에서 9명의 신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그 해 9월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내정된 박양운(朴養雲, 바오로, 1923~2002) 신부를 오로지 천주교회 신부라는 이유로 임명을 거절할 만큼 자유당정권과 사이가 더욱 나빠졌다. 1959년에는 소록도의 천주교신자 의사를 천주교신자라는 이유로 파면·추방하고, 어떤 지방은 공무원신자들이 좌천되거나 파면되기도 하였다. 교회와 자유당 정권의 갈등은 『경향신문』 폐간이라는 극한상황까지 초래하였다. 즉, 1957년 1월에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자유당정권에 대하여 비판 기사를 게재한 것이 빌미가 되어 같은 해 4월에 폐간되었다가 1960년에 자유당정권이 붕괴되면서 4월 23일자로 복간되었다: 한국가톨릭대사전 1, 350쪽. 이승만 대통령은 로마교황청에 법무부장관을 파견하여 야당인 장면세력을 지원하는 노기남 주교를 바꾸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교황청은 이를 위하여 아가지아니안(Gregoire-Pierre Agagianian, 1895~1971) 추기경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모든 사태를 면밀하게 조사한 아가지아니안 추기경은 노기남 주교의 행동이 결코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지 않았으며, 종교인의 고유한 영역 안의 활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돌아갔다: 조광, 휴전 이후의 한국 천주

2.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설립

격동기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설립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정신을 헤아리는 혜안(慧眼)과 이를 바탕으로 복음화에 헌신한 적극적인 평신도들, 자신의 나라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경험하여 실질적으로 인도하고 함께 실천할 수 있었던 국제가톨릭형제회원들(AFI), 이들을 전인적으로 지도할 능력을 갖춘 성직자, 이들에게 협조함으로써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던 수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1948년 3월에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와 비오 11세의 『사십 주년』을 펴내고, 1961년에는 요한 23세의 회칙 『어머니요 스승』을 번역하는 등 노동문제와 노동사목에 관심이 많았던 역사학자 이해남 교수가 유럽 가톨릭교회의 노동사목과 노동활동을 신자들에게 널리 알려 우리나라 신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¹¹⁶⁾



박명자

그는 혜화동성당에서 자신과 함께 레지오 마리에 활동을 하던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 박명자(朴明子, 마리아)의 깊은 신앙심과 건실한 생활태도를 보고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투신할 것을 권유하였다. 레지오 마리에 활동에 열심이면서도 더욱 적극적인 사도직 활동에 목말라하던 박명자가 이해남 교수의 권유를 흔쾌히 수락하자, 이해남 교수는 1957년 10월에 로마에서 개최된 ‘제2차세계평신도사도직대회’에 한국교회 대표로 참가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탈리아·프랑스·독일·일본 등지를 여행하면서 노동조합과 가톨릭노동청년회에 관한 서적들을 구입하여 박명자에게 주었다.¹¹⁷⁾ 박명자는 일본어·영어로 된 책들은 자신이 직접 번역하고, 프랑스어·독일어로 된 책들은 외국어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에게 부탁하여 번역된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문제와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박명자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영성, 목적, 회합과 활동 방법, 투사¹¹⁸⁾ 양성 등과 같은 기본

교회상(1953년~1962년), 교회와 역사 제172호(1989. 9), 한국교회사연구소, 12~13쪽.

11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59쪽 이하; 가톨릭시보 1958년 12월 8일자 이하; 박명자, 2005년 9월 10일자 증언과 송명숙(宋明淑, 켈마), 2005년 9월 27~28일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필자 주.

117) 이해남 교수는 이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와 경향잡지에 자세한 보고서를 기고하였다: 경향잡지 1958년 2월호, 44~49쪽.

118) ‘투사’는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 6장 10~20절에서 언급한 ‘영적 투쟁’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이 성서구절이 말하듯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나쁜 인간이 아니라,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권세와 권력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다. 즉,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처럼 악덕기업주나 이 악덕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되자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들과 혜화동성당 여자대학생 등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10여 명과 함께 이해남 교수의 도움을 받아 1주일에 한 번씩 회합하였다. 이들은 무엇보다 신앙·경험·실천의 진리를 관찰·판단·실천이라는 단순하면서도 복음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과 이웃을 복음화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영성에 매료되었다.



저동 사무실에서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들과 이영미(가운데)

그러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의욕만 있고 실제 활동경험이 없는 이들로 시작되었으므로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어려웠는데, 이들의 이러한 선구적인 노력을 전해들은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 리나 마에스(Lina Myers, 文)가 1958년 3월부터 이들을 지도하면서 본격적인 예비회원 모임이 시작되었다. 벨기에 출신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리나 마에스는 자기 나라에서 가톨릭 노동청년회 활동을 경험하였으므로 이제 막 시작된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지도자로서는 제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 첫 번째 예비회원들은 국제가톨릭형제회가 운영하는 명동 여학생관에서 만나 회합하면서 리나 마에스와 줌머스(Wilgefort

Sommers, 서정림, 마르가리타, 매 안젤라(Angela Mistura) 그리고 첫 번째 한국인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인 김양순(도미나)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¹¹⁹⁾

기업주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위정자와 관료 같은 인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처럼 비록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느님의 모상인 고귀한 인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잡아끄는 악의 원천인 악령과 싸우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 투사는 무엇보다 선악을 확실히 분별하는 지혜, 절대로 악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용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여 하느님의 나라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을 지닐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는 존재이다. 필자 주.

119)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청년 노동자들의 자주·자율적인 조직이므로 스스로 운영하여야 하지만, 1950년대와 1960년대 우리나라 교회는 외국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지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초기에 과건된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들은 다방면으로 한국교회에 공헌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역시 교육과 실제 활동 등에서 이들의 지도를 받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들은 이외에도 본부에서 수시로 날아오는 공문들을 번역하고, 서구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들을 서양언어로 작성하여 발송하는 등 오랫동안 많은 부분에서 공헌하였다. 박명자, 같은 증언; 송명숙, 같은 증언; 김양순, 2005년 11월 15일자 증언; 한성인, 2005년 9월 5일자 증언. 당시 외국교회 원조기관 가운데 직업소년학교를 지원한 기관은 미국가톨릭복지회였고, 노동자를 위한 사회 사업을 지원한 기관은 오스트리아부인회이었다. 서경돈·차기진·이경수·강종훈, 해방 이후 가톨릭교회의 인



박성중 신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설립되던 초기부터 깊은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가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성신대학(聖神大學,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의 전신) 교수로 있던 박성중(朴成鍾, 프란치스코, 1925~1983)¹²⁰⁾ 신부를 1958년 6월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로 임명하여 정식활동단체로 인정하였다. 박성중 신부는 프랑스 유학시절(1948~1954년)을 생 쉴피스 신학교에서 보냈는데, 프랑스의 노동사목에 관심을 가지고 그 곳의 신학생, 신부들과 함께 살면서 한창 발전하는 브뤼셀에 있는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본부에서 카다인 몬시놀의 강론을 듣고 2개월 동안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자 훈련에 참가하는 등 가톨릭노동청년



최초의 선서식을 마치고(1958.11.)

회 활동에 관심이 많았다.¹²¹⁾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예비회원 모임을 지속하던 1958년 11월 14일에 세계 여러 나라를 순방하던 가톨릭노동청년회 창설자 조셉 카다인 몬시놀이 한국을 방문하여 사회실태와 노동활동 현황, 가톨릭노동청년회 진출

권운동,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5, 30~33쪽.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착과 성장에 크게 공헌한 초기 국제가톨릭형제회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들 가운데 송옥자·지춘애·정양숙·윤순녀 등이 입회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오늘날까지 여러 분야에서 열성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길잡이가 되었다. 필자 주.

120) 서울대교구 사제. 경기제2고등보통학교, 경도연수학관(京都研修學館) 등을 졸업하고, 개성 송도보통학교, 만주 만몽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파리 생 쉴피스 신학교에서 수학한 뒤 로마 그레고리안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58년에 귀국하여 성신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초대 지도신부로 임명되어 1969년 7월까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근본 정신·이론을 정립하고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는 등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 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로 있으면서 1960년에는 군중신부단장, 1962년 이민회(移民會) 지도신부, 1966년 한국청소년문제협의회 부위원장 등을 겸임했고, 1969년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직을 물러난 뒤로는 1970년부터 도림동성당 주임신부, 1974년부터 후암동성당 주임신부, 1979년부터 수색성당 주임신부 등을 역임하였다. 수색성당 주임신부로 사목 중이던 1983년 3월 14일에 심근경색증으로 선종하여 용산 성직자묘지에 안장되었다. 한국가톨릭대사전 5, 3133~3134쪽 참조.

121)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59쪽.

에 관한 정황 등을 시찰하였다. 11월 16일에 명동대성당에서 이 예비회원들은 카다인 몬시뇰이 입회하고 노기남 주교가 집전하는 투사선서식을 거행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회기(會旗)와 배지를 받음으로써 정식회원이 되었다. 이 날 우리나라 최초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탄생된 이들은 박명자(마리아), 양인실(이멜다), 이춘자(루시아), 송명숙(젼마), 박종례(베로니카), 심정자(아나스타시아), 이호숙(마르티나), 이수자(소피아), 조옥자(안나) 등으로 이들은 이후 자신을 복음화하면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확대와 발전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화



가톨릭노동청년회 복장을 한 회원들

에 적극 헌신하였다.¹²²⁾

122)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통하여 노동과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박명자는 이를 토대로 자신의 활동을 직장과 이웃들에게 확대 실천하고자 하였으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최초의 섹션이 자리를 잡은 이후 나이가 많아 노동청년회를 그만 둔 뒤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활동하였다. 그는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이 정부로부터 급료를 받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으므로 재무부 예산국장을 찾아가 설득하여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게 하고, 기숙사의 환경과 식사문제 등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계속 노력하였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가 겨울에 따뜻한 옷이 없어 떨면서 근무하는 전국의 버스안내원들에게 점퍼를 선사하게 하는 등 국제가톨릭형제회원 리나 마에스와 함께 버스안내원, 넝마주이들의 인간적인 삶과 복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간호사, 교육부 장학관, 중학교 교장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늘 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체득한 정신과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을 복음화하려고 노력하고, 나이가 많고 병이 들어 불편해진 오늘날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마음을 기꺼이 내어주고 있다. 또한 그 때 함께 회원이 된 이들 가운데 박종례(베로니카)는 서울대교구대표, 송명숙(젼마)은 전국대표로 지속적으로 활동하였으며, 다른 투사들 역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마친 뒤에도 자신의 달란트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복음화를 위하여 계속 활동하였다: 박명자, 같은 증언; 송명숙, 같은 증언 등 참조.

이어 11월 17일에 명동대성당에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창설준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카다인 몬시뇰과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 마리아 밀스맨 부회장,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 평양대목구장 서리 캐롤(George Carroll, M.M., 安, 1906~1981) 몬시뇰, 박성중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서 베네딕토 신부, 대구·춘천·전주·광주 등 각 교구 대표 성직자, 국제가톨릭형제회원 리나 마에스, NC통신 한국주재 기자 패트릭 버크(Patrick Burke) 신부, 읍서버로 이삼복(李三馥, 요한, 1914~1997) 신부 그리고 가톨릭시보사와 가톨릭청년사 기자 등이 참석하였다.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가 축사를 하고, 카다인 몬시뇰이 강론하였는데, 노동자문제는 교황도 해결할 수 없고 노동자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한 가톨릭노동청년들의 규합을 역설하고 무신론적인 사상의 만연을 경계하도록 하였다. 이어 캐롤 몬시뇰을 가톨릭노동청년회 한국지부장에 선임하고, 지도신부로 박성중 신부를 임명함으로써 가톨릭노동청년회가 확산,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다.¹²³⁾

3. 최초의 활동과 색션 확대



새남터 빈민촌 진료봉사 후

최초의 팀은 생활반성과 성서연구를 통하여 자신과 이웃 환경, 사회의 변화, 즉 복음화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발전해 나갔다. 서울대학교병원 간호사들은 안정된 직장에서 높은 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들이 많은데 비하여 간호사들이 부족하

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¹²⁴⁾ 전쟁을 치른 지 얼마 안 되어 정원을 늘릴 예산이 없고, 간호

123) 한국 JOC 드디어 發足-세계 JOC 지도자 『요셉·까르다인』 주교의 來韓을 계기로-,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59년 1월호, 가톨릭청년사, 27~33쪽 참조.

124) 교회가 이들에게 공심제(空心齋)를 관면하여 줄 정도로 당시 이들은 쉴 틈 없이 업무에 매달렸다: 송명숙, 같은 증언.

사들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었다. 대신 이웃으로 눈을 돌려 방직공장 등을 찾아다니면서 노동자들을 만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봉급을 원활하게 받도록 해 주기 위하여 기업간부들을 만나 설득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기 시작하였다.¹²⁵⁾

그러나 간호사인 이들의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활동은 1959년 6월 11일부터 시작한 새남터 빈민촌의 무료진료와 환경개선 활동이었다. 오늘날은 성당과 기념관을 갖춘 새남터성지로 깨끗이 단장되고, 아파트 등으로 재개발된 새남터의 철도주변이 당시는 거의 쓰레기장이었다. 이곳에 땅을 파 공간을 만들고 거적으로 겨우 가린 채 사는 이들은 극도로 빈궁하였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데다 화장실이나 상하수도시설도 없는 등 최소한의 환경조건에도 못 미쳐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아픈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 무료진료와 환경개선활동은 뜻을 같이하는 수사 한 명과 여성신자 의사 한 명¹²⁶⁾, 의과대학과 간호학과 학생 그리고 졸업생인 간호사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당시 그 곳 주민 중에는 폐결핵 환자들이 많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국립병원이어서 관비환자(官費患者)도 있었고, 퇴원하면서 약을 안 가지고 가는 이들도 있어 여러 종류의 여분(餘分)들을 활용할 수 있었다. 늘 못 먹고, 춥고, 배고픈 데다 약마저 쓸 수 없어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들에게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¹²⁷⁾ 회원들은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어 주면서 주변 환경을 위생적으로 바꾸고, 낫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으며, 입교시키기도 하였다.¹²⁸⁾

최초의 회원들이 선서한 이후 박성중 지도신부,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 리나 마에스¹²⁹⁾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성당에 새로운 팀, 섹션들이 설립되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는 확산·발전되었다.¹³⁰⁾ 1959년 6월에 안양성당섹션, 7월에 미아리성당과 세종로성당섹션

125) 박명자, 같은 증언.

126)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오래되어 당시 회원들이 이들을 기억하지 못하여 성명과 소속을 알 수 없다. 필자 주.

127) 송명숙, 같은 증언.

128) 박명자, 같은 증언.

129) 리나 마에스는 1960년 3월 6일에 서울시내 성당회장 30여 명을 대상으로 개최된 평신도사도직 회합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성당회장단의 질문에 답하면서 성당청년들을 가톨릭노동청년회에 가입시켜 적극 활동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가톨릭시보, 1960년 3월 20일자 참조.

130) 당시교회는 『가톨릭청년』, 『경향잡지』 등을 통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역사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창립 과정, 성격, 조직과 기구, 입회자격과 성장단계, 회합과 활동방법 등을 소개하면서 젊은 신자들의 가입을 적극 권유하였다: JOC 서울교구 지부, 한국 JOC의 이모저모, 가톨릭청년사, 같은 책, 33~36쪽; 鄭正道, 한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가톨릭노동청년회-,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60년 6월호, 가톨릭청년사, 95쪽; 金 로마노, 勞働의 가톨릭的 意味와 JOC의 사명,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61년 1월호, 가톨릭청년사, 15~23쪽; JOC

이 결성되었다. 같은 해 11월 29일에 명동성당의 정영도(프란치스코)를 중심으로 세종로성당, 신당동성당, 제기동성당 등의 노동자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 예비훈련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1960년 3월 13일에 박성중 신부 지도로 피정하였으며, 4월 17일에 19명이 명동대성당에서 노기남 주교 집전으로 제1차 선서식을 거행하고 초대 섹션회장에 정영도를 선출하였다.¹³¹⁾



1960년대 초반 도림동성당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조직을 확장하던 1960년에 말레이시아에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개최된 제1차 가톨릭노동청년회 아시아대륙회의에 박성중 신부,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 리나 마에스와 회원대표 양인실(이멜다) 등이 참석하여 아시아 국가들에게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알리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국제동향을 체득하며 견문을 넓혔다.¹³²⁾

1960년 8월에 경향신문 인쇄소 예비팀 같은 직장섹션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는데, 10월 16일에 노기남 주교가 경향신문사 인쇄소 남자종업원 5명, 제본소 여자종업원 3명 등과 민중서관 여자종업원 1명, 안양 금성방직공장 여자종업원 9명 등¹³³⁾에게 투사선서식을 거행하였다.¹³⁴⁾

란 무엇인가?, 경향잡지, 1961년 5월호, 27~28쪽; 1961년 6월호, 32~33쪽 등. 한편, 가톨릭시보는 카다인 문시놀의 방한과 최초의 투사선서식, 가톨릭노동청년회 한국지부 설립 등을 상세히 전한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에 관련된 특집기사, 단신 등 다양한 형태로 거의 매회 보도하였는데, 그만큼 한국교회의 가톨릭노동청년회 대한 관심이 지대하였고, 청년 신자들의 참여가 지속적이었음을 나타내었다: 필자 주.

131) 가톨릭시보, 1960년 4월 24일, 4쪽.

132) “새로운 아시아는 새로운 청년들로부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이 회의에 한국, 일본, 타이완, 홍콩,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버마, 타이,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이 참가하고,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가 옵서버로 참가하였다. 이 회의의 토의의제는 ① 공업화가 젊은 노동자들에게 주는 충격, ② 청년노동자의 문제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사명, ③ 젊은 노동자와 실업, ④ 젊은 노동자들과 결혼, ⑤ 청년노동자들과 노동조합, ⑥ 여자청년의 역할, ⑦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조직·활동·양성, ⑧ 아시아에 있어서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의 방침 등이었다: 가톨릭시보 1960년 3월 27일자. 우리나라 회원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한 양인실은 당시의 생생한 체험과 감동을 참관기로 남겼다: 梁仁實, 새 아시아를 위하여(JOC 아시아대회 참관기), 가톨릭청년사, 가톨릭청년 1960년 6월호, 가톨릭청년사, 76~81쪽.

133) 안양 금성방직공장은 1960년 4월 15일에 예비회원 모임이 발족되었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62쪽.

134) 가톨릭시보, 1960년 10월 9일자.

한편, 한강이남지역은 도림동성당¹³⁵⁾을 중심으로 새로운 섹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한강이북지역이 성당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과는 달리 이남지역은 성당뿐 아니라, 직장섹션도 많이 생겨났다. 도림동성당은 파현우(Raymond Spies, S.D.B., 1922~) 보좌신부가 가톨릭노동청년회 섹션을 설립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1960년 3월 24일에 도림동성당에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젊은 노동자 2명과 만났으며, 6월 12일에 예비모임을 시작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모인 뒤, 8월에 윤석찬(파트리치오)을 선두로 드레스정밀팀, 국제분유팀, 전화국팀을 발족하였다. 12월 4일에는 단원들이 투사선서를 하고, 노기남 주교로부터 회원배지를 받았다.

1961년 5월부터 여성회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으며, 이 해 6월 12일에는 일본가톨릭노동청년회를 설립한 아시아가톨릭노동청년회 지도신부인 파리와방선교회 뮈르그(Jean Murgues, M.E.P.) 신부가 방문하여 박성종 신부와 함께 도림동성당섹션 투사회합을 할 만큼 성장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공단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교양강좌를 마련하는 등 봉사활동에 힘을 쏟았다.¹³⁶⁾ 도림동성당을 중심으로 조직을 확장하던 한강이남지역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61년 1월 14일에 대동모방, 2월 19일에 국제분유 회원들이 선서식을 거행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였고, 5월 21일에는 태창방직 예비팀이 발족되었다.

4. 방지거반 활동¹³⁷⁾

세종로성당섹션의 박수길(사도 요한)이 정식회원이 되기 이전인 1959년 12월부터 약 4개월

135) 당시의 성당 이름은 영등포성당이었으나, 오늘날의 영등포성당이 생긴 뒤에 도림동성당으로 바뀌었다. 이하 도림동성당.

136) 이후 도림동성당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은 도림동성당 사목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도림동성당 사목자들은 당시 급속히 발전하던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목구 남부지구를 지도하고 후원하였으며, 도림동성당섹션 회원들과 함께 인근 공장노동자를 위한 특별미사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점점 성장하여 내실을 기하던 도림동성당 섹션은 서울 남부지구의 중심이 되어 살레시오회 사목자들의 지도로 동양미싱, 경성방직, 태창방직 등의 공장에 팀을 확산시켜 나갔다. 이 때까지 교회는 구호사업의 형태로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기울였으나,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한 사목은 공장 안에서 노동자들이 서로 신뢰하고 유대를 증진하면서 자긍심 고취에 주력하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교양강좌를 개최하고, 더욱 나은 노동조건을 창출하도록 일깨우고자 노력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자신들의 의식제고와 권익보호에 그치지 않고 소외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섰다. 한국살레시오회 도림동공동체일지, 1960년 3월 24일 이하; 천주교 서울대교구 도림동교회, 같은 책, 71. 139~140쪽.

137) ‘방지거반’ 활동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67~68쪽; 경향잡지 1960년 12월호 이하; 가톨릭시보, 1960년 9월 25일 3쪽 이하; 두봉 주교, 2005년 10월 19일자 증언; 박명자, 같은 증언, 송명숙, 같은 증언, 김양순, 2005년 11월 15일자 증언; 이영미, 2005년 11월 25일자 증언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필자 주.



박수길

동안 사회가 철저하게 도외시하던 녁마주이들을 계속 관찰한 다음, 1960년 4월에 중학동 개천가의 녁마주이 거주지를 찾아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을 가까이하고 이들의 경계를 누그러뜨린 다음 이들과 침식을 함께 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이들과 똑같이 생활하였으므로 일반인들로부터 냉대를 받고 갖은 역경을 겪었지만, 이들의 문제점을 자세히 관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구상하여 즉각 실천할 수 있었다.

녕마주이들은 고아 또는 집을 뛰쳐나온 이들이 대부분으로, 신분증이 없어 경찰을 피해 다녔기 때문에 이들의 본가와 연결하여 귀가시키거나 이들을 대변하여 보호하여 주었다. 이들은 주로 녁마를 주워 생존하였으나, 수입이 없을 때는 도둑질이나 소매치기도 서슴지 않았고, 어쩌다 수입이



방지거반 활동

좋으면 저축하는 게 아니라, 주색잡기로 낭비하여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았다.

박수길의 활동은 지도신부와 남녀회원들에게 곧 알려져 방지거팀을 구성하고, 이들의 당면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미국가톨릭구제회, 여성회원들과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들의 도움을 받아 의복과 침구, 먹을거리를 공급하고, 대형천막으로 주

거지를 개선하였으며, 이들의 이부자리와 의복을 자주 세탁해 주면서 성탄 때나 명절 때는 명동 가톨릭여학생관으로 이들을 초청하거나 직접 찾아가 이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형제애를 나누었다.

나아가 생활에 꼭 필요한 한글교습, 기초예절, 저축실천 등을 정기로 교육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게 연결해 주었다. 또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고귀한 인격체임을 자각시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며 살던 이들이 회원들의 복음적인 실천에 감동하여 세종로성당에서 예비신자 교리를 배우며 미사에 참여하고, 자기들과 같이 불우한 동지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자기들과 같은 처지인 창신동(일명 돌산 밭, 60명), 수송동(60명), 금천교(26명), 영동포(50명), 청량리, 홍제동, 영천 등지의 동료들에게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정서적으로 위안을 준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이들을 통하여 서울시내 대부분의 녁마주이들



동대문근로재건대 방문기념

이 회원들과 연결되자, 서울시내 남녀회원들이 이들을 위한 활동에 나서 중학동의 념마주이들과 같은 관심과 지도로 이들의 생활을 바꾸어 주었다. 복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회원들을 따라 자신들도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거듭 태어난 이들은 1962년에 20개 팀, 6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는 커다란 조직체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아직도 사회의 밑바닥에서 살아가지만 근면·절약하여 가톨릭중앙신용조합에 상당한 금액을 저축할 만큼 일신된 생활인으로 바뀌었다.

회원들의 헌신적인 지도로 봉사만 받는 수혜자가 아니라,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자신과 이웃을 복음화하고 환경을 바꾸는 이들로 변모한 사실이 가톨릭시보 등 신문지상을 통하여 계속 알려지자, 이들에게 관심이 없거나 기피하던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정부와 개신교, 불교 등 다른 종교단체들도 동참하였다.¹³⁸⁾

경찰이 1962년 4월까지만 해도 분산되어 있던 이들을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일정한 장소에 통합하여 수용하고, 5월에 정부와 가톨릭, 개신교가 연합하여 ‘근로재건대’를 발대시키고 6월 22일에 교화지도위원회를 발족하여 전국지도신부인 박성중 신부가 부위원장이 되었다.¹³⁹⁾ 이

138) 당시 념마주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복음화를 위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효과를 거두자 개신교와 불교가 동참하여 공동사업이 되었는데, 비록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시작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일치운동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이었고, 1964년 1월 21일에야 ‘일치 운동에 관한 교령’(Decretum de oecumenismo)인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이 반포되었는데도 당시 교회언론은 가톨릭교회의 활동에 대하여 개신교가 적극 참여하는 것이 교회일치운동에 걸림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전망하기도 하였다. 가톨릭시보, 1962년 8월 19일자, 3면.

139) 위원장은 장로교 조향록(趙香祿, 1920~) 목사였으며, 미국가톨릭구제회 한국지부장 캐롤 주교와 가톨릭국제

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명칭도 ‘닝마주이’에서 ‘재건대원’으로 바뀌었다. 서울시내 11개 합숙소 가운데 동대문구, 종로구지역을 가톨릭교회가 담당하고¹⁴⁰⁾, 그 외 지역을 개신교와 불교가 담당하였다. 박성중 신부는 가톨릭국제형제회 회원들과 함께 이들에게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에 따른 노동의 가치와, 닝마줍기도 고귀한 노동임을 일깨워 이들의 열등감을 해소해 주었다.

서울대교구 회원들의 닝마주이에 대한 활동은 대전, 전주, 군산 등지로 확산되었다. 5·16쿠데타 이후 국토건설단에 동원된 뒤에도 이들은 현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관계하면서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처럼 늘 천대만 받던 이들이 달라지면서 주변도 달라지고, 나아가 사회가 변함으로써 가톨릭노동청년회와 회원들이 이 사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실천적으로 입증되었다.¹⁴¹⁾ 이들의 변화는 무엇보다 보통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디어 낼 수 없는 수많은 난관 속에서 이들과 동거하며 이들이 환골탈태(換骨奪胎)할 때까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넣은 박수길을 비롯한 회원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5. 교구조직과 활동강화



경향신문사 건물의 사무실에서 임원들

그동안 국제가톨릭형제회의 가톨릭여학생관을 모임장소로 사용하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성당섹션과 직장섹션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조직이 확대되자 1960년 7월 20일에 본부사무실을 경향빌딩 502호에 설치하고, 10월 24일에 서울대목구 남녀혼성연합회를 조직하였다. 이어 11월 27일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 2주년 행사를

형제회의 매 안젤라 등이 실행위원으로 추대되었다.

140) 이 때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들, 지도신부들 외에 가톨릭여학생관에 기숙하던 여자대학생들이 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인식시켜 주고, 국어와 사회생활 교과목을 강의하는 등 이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141) “JOC에 가입한 뒤로는 우리가 부랑아가 아니라는 것과 또한 우리가 사는 마을을 깨끗이 하여 보자는 의도에서 섹션회합에서 우리의 몸과 의복을 깨끗이 하고 동네청소를 하자고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를 생활을 계획하여 실천하며 앞으로 JOC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하려고 굳게 다짐하는 것입니다”(활동지, 1962. 3).

거행하였는데, 1958년에 9명의 회원으로 출발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2주년을 맞아 정회원 3백여 명, 준회원 수백 명이 될 만큼 괄목하게 성장하였다.¹⁴²⁾ 1960년 11월 20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목구연합회 초대 회장으로 류정렬(柳貞烈, 바오로), 박종례(베로니카)를 각각 선임하여 각 성당섹션, 직장섹션들과 회원들을 지원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하였다.¹⁴³⁾

애초 여성회원들만으로 설립되었다가 남성회원들이 참여하여 혼성으로 활동하였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조직이 급격하게 확장된 데다가 국제가톨릭노동여성청년회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했으므로 1961년 4월 9일에 60여 명의 회원들로 한국가톨릭노동여성청년회를 분리·독립하고 회장을 선출하였다.¹⁴⁴⁾ 독립된 한국가톨릭노동여성청년회는 1962년 2월 25일에 서울대목구연합회를 개최하였다.



버스안내원들과 함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1960년대 초반에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 땅의 젊은 여성들은 직업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방직공장직원, 가정부, 버스 안내원 등이 고작이었고, 최소한의 생존을 위하여 주점 종사원이나 율락여성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가운데 버스안내원들은 늘 교통

사고의 위험 속에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당하면서도 소위 ‘뽕땡’¹⁴⁵⁾을 이유로 온몸을 수색 당하는 등 아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당시 여성회원들은 이런 안내원¹⁴⁶⁾들을 지속 관찰하여

142) 가톨릭시보, 1960년 12월 11일자.

143) 가톨릭시보, 1960년 11월 20일자에 의하면, 서울대목구연합회 회장으로 류정렬(柳貞烈, 바오로), 부회장으로 박수길(朴壽吉), 이 루시아를 선출하고, 선출일자도 11월 6일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25년사의 기록을 따른다: 필자 주. 서울대목구는 이후 회원들의 열성으로 회원과 섹션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1962년 12월 2일부터 편의에 따라 한강을 중심으로 남부지구와 북부지구로 나누어 활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 10월 29일에 남부지구와 북부지구를 연합회로 승격, 독립시켰다: 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62쪽.

144) 가톨릭시보, 1961년 4월 16일, 3쪽; 경향잡지, 1961년 5월호, 39쪽.

145) ‘남에게 건네기 위해 받아 놓은 돈 따위의 일부를 가로채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146) 버스안내원들에 대한 활동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70~72쪽; 가톨릭시보, 1962년 4월 8일자, 3쪽 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여성회원들은 한국일보 1961년 9월 26일자의 ‘빈번한 사고’라는 사실을 두고 서울대목구 임원회에서 토의한 이후 1961년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버스안내원들을 접촉하였다. 안내원들이 회원들을 경계하며 접근하는 것을 꺼렸으나, 회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접촉하여 불광동에 종점을 둔 시내버스회사의 안내원 5명과 최초로 회합할 수 있었다.¹⁴⁷⁾

회원들은 이들의 숙소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대화하거나 편지를 통하여 깊은 유대를 나누었다.¹⁴⁸⁾ 회원들은 장시간 노동으로 상실되어 가는 이들의 존엄한 인간성을 회복하여 주기 시작하였다. 안내원들은 대개 아직 10대의 사춘기 청소년들로 집안환경 때문에 공부하지 못한다. 쥐꼬리만한 봉급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와 동생들을 위하여 송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신들의 처지를 비판하며, 늘 자기 또래 여자 중·고등학생들처럼 공부하고 싶어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갈증을 풀어 주기 위하여 회원들이 영어와 한문 등을 강의하여 검정고시를 준비시켰다.



요리강습회

또한 뜨개질·수예·꽃꽂이 등을 가르쳐 정서를 함양하여 주고, 어린 나이에 돌출된 성적(性的)인 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면서 부득이한 경우에 적절히 대처하는 성교육도 시행하였다. 또한 자신의 권익

하; 박명자, 같은 증언, 송명숙, 같은 증언, 송옥자 증언 2005년 10월 11~12일자; 이영미, 같은 증언; 천정자 증언 2006년 3월 21일자 등을 참조하여 구성하였음: 필자 주.

147)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일이지만, 관찰한 바로 어떻게 하면 안내원들의 고달픈 생활이 좀더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을 건넸다. 연락은 없지만 이렇수록 실망치 말자. 이러한 수차의 노력 끝에 11월 초순 18세의 경희라는 소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난 순간적으로 천주님께 감사를 아니 드릴 수 없었다. 경희가 손님에게 매맞은 다음날, 경희와 같이 기숙하는 10명의 친구들이 왔을 때 성탄을 같이 지내자는 약속을 했는데, 섭섭하게도 오지 않았다. 이유는 아직 모르지만 앞으로 이들을 위하여 많은 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울가톨릭노동여성청년회 회계부장 백정자)

148) “언니, 인간으로서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또한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살아보겠다고 허덕이며, 구원을 바라는 결심도 해 보았습니다. 세상에 버림받고 멸시받는 차장이라는 직업에서 인생의 보람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지난달 두 차례나 언니의 편지를 받아본 뒤 이 직업소녀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는 은혜를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안 것 같습니다. 또한 언니를 만난 날부터 저 자신도 모르게 제 마음의 괴롭고 불안한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직장의 일로 고통스러웠던 차에 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니다. 앞으로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위하여 지난날을 잊지 않고 성실한 사람이 되게 주 성모님께 기구하겠습니다.”(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지, 1964년 3월 1일자에 게재된 불광동합숙소 천 바르바라의 고백).

을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전해 주고, 복음전파와 함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였는데, 자신은 물론 화장실과 식당 등 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선할 정도로 변모하였다.¹⁴⁹⁾

버스안내원들은 늘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하면서도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렸으므로 1960년대 후반 이후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뿐 아니라, 노틀담수녀회와 살레시오수녀회, 살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성가소비녀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등의 관심사업으로 확대되었다.

6. 교육과 조직심화

성신대학에서 영성신학을 강의하던 박성중 신부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성장시키면서 회원들을 전인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¹⁵⁰⁾ 당시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공통적인 관심분야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교재를 편찬하고 세미나를 개최할 때 가톨릭노동청년회 아시아지도신부인 뫼르그 신부¹⁵¹⁾와 성신대학 성서학교수로 가톨릭노동청년회 보좌신부를 겸임하던 프랑스 선교사 변 베르나르도(Bernard Ruchulu) 신부¹⁵²⁾, 국제가톨릭형제회원 리나 마에스 등의 도움을 받았다. 또한 이들과 본부임원들이 협조

149) “그들은 살 맛이 안 나는 거야. 돈 벌면 다 집으로 보내고, 내게 참 아름다운 사례가 둘이나 있어요. ‘언니 아니었으면 나 그 때 죽었다...’ 새 생명이 굉장한 거지. 그걸 우리가 방문해 주고 사랑해 주고 만나 주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언니가 찾아왔다는 거야. 그 겨울이었는데 군밤을 싸들고, ‘야! 아무개야 먹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고백을 받고 너무나... 그 불광동이 그 때 중점이었거든. 간호사 기숙사로 오면서 ‘야! 처녀가 아기도 안 배고 배도 안 아프고 이 세상에 새 생명을 탄생시켰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다...’ 그러니까 이제 도취되는 거야. 얼마나 그게 멋있는지... 죽으려고, 부모 자식, 부모도 못 말리는데, 형제도 못 말리는데, 그런 고백을, 사랑고백을 어디가서 들어요. 내가 무언데, 무엇이기에? 도대체 그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이분한테 이렇게 새로운 생활로 출발을 시킨다는 게 이것이, 노동활동만이 아니거든.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을 때 화장실이 저기 가면 돼. 수세식이 아니고 인제 합숙소거든. 거기 가기 싫은 거야. 여기 다 배설해. 냄새 나. 그럼 그거를 ... 좀더 여성답게, 좀더 사랑 받는 자녀답게, 좀더 성인답게, 좀더 교육받은 사람답게... 교육을 못 받았지. 만 아이들은 중학교 다닐 때 저희들은 와서 그거 했으니까...”(송명숙, 같은 증언)

150) 가톨릭노동청년회 교리강좌를 3년 예정으로 일주일에 1회씩 개설하였다: 가톨릭시보, 1961년 3월 5일자. 박성중 신부는 유럽에서 유학할 때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하였으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도 이미 공의회 이후 사회와 교회의 변화를 예견하고, 회원들에게 그 시대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시대의 징표를 판별하는 능력을 키워 주려고 노력하였다. 이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개최되어 공의회 문헌들이 나올 때마다 회원들에게 문헌을 쉽게 풀어 강의하여 회원들의 교리지식을 심화해 주었다: 송명숙, 같은 증언 참조.

151) 뫼르그 신부는 한국을 자주 방문하여 많은 섹션들을 찾아다니며 지도하고 조언하는 등 박성중 신부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다각적으로 지원·지도하였다: 가톨릭시보, 1961년 6월 18일자 이하 참조.

하여 회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재들을 편찬하였다.¹⁵³⁾ 나아가 1961년 4월 23일에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JOC 구성원 비율실태조사'를 시행하여 회원들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다.¹⁵⁴⁾



뒷줄 왼쪽부터 송명숙, 박성중 신부, 천정자,
앞줄 노기남 대주교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조직을 확장하고 하루빨리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였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젊은 노동자들의 복음적인 실천에 목자로서 감사해 하며 바쁜 중에도 회원들의 회합에 참석하여 이들의 활동상황을 직접 파악하려 애쓰고, 선서식이나 야외활동 같은 제반행사에 참여하여 격려하였다. 이런 노기남 주교의 회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였다.¹⁵⁵⁾ 주한교황사절인 하비에르 주피(Xavier Zupi) 대주교도 1961년 8월 29일에 개최한 한국가톨릭노동여자청년회 위원회에 참석하여 회원훈련과 활동상황을 청취한 뒤 회원들을 격려하고,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위하여 교황청에 원조를 요청하였다.¹⁵⁶⁾

152) 변 베르나르도 신부가 언제 보좌신부로 임명되었는지 현재 알 수 없으나 가톨릭시보 1961년 5월 7일자에 이 사실이 보도된 것을 보면 그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 주.

153) 송명숙, 같은 증언 참조.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기본교재 외에 1961년 부활대축일을 기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보고와 가톨릭노동청년회 방법과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관지 『활동』을 창간하여 타블로이드판 4쪽으로 매월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가톨릭시보, 1961년 4월 16일자. 이어 본격적인 투사 훈련지인 『JOC란 이렇게 시작한다』를 1963년 2월 15일에 간행하였다.

154) 남자회원 45명과 여자회원 3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이 조사에서 정신 노동자는 남자가 37.7%, 여자가 32.6%이었으며, 육체 노동자는 남자 33.3%, 여자 21.6%, 무직 남자 6.6%, 여자 21.6%, 기타 남자 22.4%, 여자 24.2%로 나타났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75쪽.

155) 노기남 주교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위의 증언자들의 증언 외에도 초기회원들의 한결 같은 증언과 행사사진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요한 행사뿐 아니라, 회원들의 소풍사진에도 노기남 주교의 얼굴이 자주 보인다: 필자 주.

156) 가톨릭시보, 1961년 9월 10일자.

서울에서 시작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조직이 지방까지 확산되던 1961년에 가톨릭노동청년회 발전에 관심이 많은 박성중 신부, 변 베르나르도 신부, 서울대목구 가회동성당 신인균(申麟均, 요셉, 1905~1996) 신부, 인천대목구 송림동성당 소 헨리코(Henry Sullivan, M.M., 薛立案) 신부, 메리놀외방선교회 선 로베르토(Robert J. Bouleris, M.M., 宣) 신부, 서울대목구 도림동성당 파현우 보좌신부, 대구대목구 가톨릭노동청년회 김영옥(金榮玉, 세례자 요한, 1930~) 지도신부, 서울대목구 당산동성당 박병윤(朴炳潤, 토마, 1927~2002) 신부, 서울대목구 신당동성당 김대성(金大星, 바오로, 1925~) 보좌신부, 광주대목구 김종남(金鍾南, 로마노, 1935~) 신부, 혜화동성당 류진선(柳眞善, 레오, 1932~) 보좌신부, 미아리성당 황익성(黃益性, 아우구스티노, 1935~2008) 보좌신부, 춘천대목구 천신기(千信基, 세례자 요한, 1934~2003) 신부 등 13명이 모여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발족된 이래 최초로 지도신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들은 가톨릭적 노동활동의 긴급성, 노동세계를 침투·정화하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사명, 각 성당과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와 밀접한 유대에 대한 인식, 미래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발전 등을 논의하고 지도신부들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였다.¹⁵⁷⁾ 이 지도신부회의는 이후 연례행사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었다.

7. 소년부 신설과 활동의 다변화

카다인 신부가 15~25세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창립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청소년기부터 시작하는 활동이다. 1960년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노동현장으로 투입되던 청소년들이 많았다. 이들은 선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기술을 배워 점차 숙련공으로 성장하고, 노동청년회 활동도 선배들이 이끌어 건전한 회원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두담이 청소년들이나 신문배달 청소년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비슷한 또래끼리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청년회 활동을 제대로 배우기 어려웠으므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끌어안고 특별히 지도하였다.

김재규(예로니모)와 다른 2명의 회원들이 서울에서 신문을 배달하는 소년 330명에게 팸플릿

157) 가톨릭시보, 1961년 5월 7일자.

을 발행하여 가정·학교 등에서 오는 정신적 고민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면서 이들을 신앙의 길로 이끌었다.¹⁵⁸⁾ 또한 이태원성당색션은 용산구 이태원, 해방촌 일대의 미군들을 상대하는 구두담이 소년들이 산재한 것에 주목하여 이들을 면밀히 관찰하였다. 문기수를 비롯한 회원들이 흠뻑들로 단체합숙소를 지어 주간은 구두담이로 돈을 벌어서 저축하게 하고, 야간은 이발학원을 보내거나 초·중학교 과정의 야학을 개설하여 김정고시를 준비하게 하였다.¹⁵⁹⁾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이들 신문배달청소년들과 구두담이청소년들을 중심으로 ‘JOC 소년부’를 신설하여 이들 청소년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신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였다. 회원들의 청소년노동자들에 대한 이러한 노력들은 어린 하녀나 젊은 견습공들이 평소의 환경과 생활상태 속에서 맞이하는 운명을 도와야 할 ‘벗’의 사명을 추구해야 한다는 조셉 카다인 추기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이었다.¹⁶⁰⁾

이러한 활동 외에도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관찰하고 이들을 복음화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가장 가난한 이들을 우선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노동자들의 사도는 노동자가 된다.”라는 조셉 카다인 추기경의 가르침을 따라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노동자는 소나 말 같은 짐승도 아니고 노예도 기계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의 아들·딸이며, 하느님의 협력자이다.”라는 말을 명심하여 철도노조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투신하였다. 또한 마부(馬夫)들이 임금인상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직장이 다른데도 영업소장을 여러 번 만난 끝에 임금을 인상시켰으며, 이들의 무질서한 생활과 위생관념을 깨우치고, 노동의 신성함과 금전의 효과적인 사용방법 등을 일깨워 주었다.

또한 신당동성당색션 회원들이 1961년 11월에 수도육군병원의 기간병 5명으로 예비팀을 구성하여 선서하게 한 이래 군인가톨릭노동청년회는 지방까지 확산되었다. 그런데 이 군인가톨릭노동청년회는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를 채택하는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청소년기부터 가톨릭청년회 활동을 한 사람이 많더라도 군에 입대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팀 조직이 와해(瓦解)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기 때문이었다.¹⁶¹⁾

158)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70~72쪽.

159) 윤정길, 2005년 11월 20일자 증언.

160)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같은 쪽.

161) 같은 책, 90쪽.

이외에도 여자재단사 등으로 예비팀을 구성하기도 하고¹⁶²⁾, 옛장수, 공업사직공도 회원들의 관찰과 침투대상이었다.¹⁶³⁾ 여성회원들은 당시 가난한 여자청소년들이 많이 선택하였던 가정부들을 복음화하면서 이들을 회원으로 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들은 하루 가운데 거의 전 시간을 가정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¹⁶⁴⁾ 또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생존하던 윤락여성들에 대한 활동 역시 전문성 결여 등 여건이 여의치 못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¹⁶⁵⁾

8. 전국조직과 국제기구 가입



전국 지도자 모임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여러 교구로 퍼져 나가자 이들을 총괄하는 전국조직이 필요하여 1961년 10월 21일에 제1차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평의회를 개최하였다. 총재인 노기남 주교, 각 교구 지도신부들과 대표들이 참석하여 활동경과를 보고한 뒤에 조직의 전국적인 확장에 따

른 당면과제를 토의하고, 전국남녀회장으로 박수길(사도 요한), 송명숙(젼마)을 각각 선출하였다.¹⁶⁶⁾ 박수길과 송명숙은 본부의 상근임원이 되어 조직과 교육자료를 정비하면서 전국의 성당들과 기업체들을 찾아다니며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알리고 조직하였다.¹⁶⁷⁾

162) 가톨릭시보, 1961년 12월 3일, 3쪽.

163) 가톨릭시보, 1960년 10월 9일, 3쪽.

164) 이영미, 같은 증언.

165) 송명숙, 같은 증언.

166) 이외에 남자부회장 겸 서울대목구 회장 김상원(아우구스티노), 회계부장 이흥춘(바오로), 조사부장 오홍균(요셉), 여자부회장 겸 서울대목구 회장 박종례(베로니카), 서기부장 천정자(바르바라), 회계부장 백정자(세실리아), 조사부장 송윤희(프란치스카) 등의 임원도 선출되었다: 경향잡지, 1961년 10월호, 45쪽;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65쪽.

전국회장에 선임된 이들은 1961년 11월 1일부터 13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평의회에 지도신부인 박성중 신부와 함께 참가하였다. 85개국 350명의 대표들이 참가한 이 평의회에서 지난 4년간 국제본부의 활동을 보고 받고, 청년노동자들의 혼인을 위한 준비, 개발도상국에서 청년노동자의 위치, 대도시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과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4개년계획 설정, 청년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대도시의 사회문제 연구, 노동실태와 직업훈련 기능의 전 세계적인 조사 등도 다루었다. 국제적 규모로서 청년노동자들의 상호원조를 촉구하고 유엔기구나 같은 국제조직들과 정부단체, 노동단체들에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의 직접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어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핵실험 중지를 요구하고, 정의와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데 모든 사람들이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채택하였다.¹⁶⁸⁾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공식회원국으로 가입되었으며, 한국대표단은 평의회가 종료된 이후 세계 각국을 순방하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와 노동조합 현황을 시찰하고 귀국하였다.¹⁶⁹⁾ 이들이 국제평의회에 참가하던 1961년 11월 2~3일에 개최된 가을주교회의에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평신도사도직 단체로 정식 인준되었다. 1958년 11월 17일에 명동대성당에서 개최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창설준비위원회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한국지부를 설립한 이후 3년 만에 국제가톨릭노동청년회와 우리나라 주교단에 정식단체로 인정된 것이다.

이처럼 서울에서 9명의 여성회원들로 시작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3년 만에 전국적인 단

167) 회장은 상근직으로 보수를 받았으나, 당시 간호사이면서 공무원이었던 이전 직업에 비해서는 신분이 불안하고 보수 역시 아주 적어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던 박성중 신부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치기 어려웠고, 비록 불안정하고 보수는 매우 적더라도 가톨릭신자로서 보람된 일이었으므로 고심 끝에 결국 수락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시 한국교회는 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이 독일의 미제레오르와 미씨오, 오스트리아부인회 등의 도움으로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마련하였으므로 이들의 급여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때는 박성중 신부가 자신의 급여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줄 만큼 매우 어려운 형편에서 일을 하였다: 송명숙, 같은 증언.

168) 한국에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도입되기 1년 전인 1957년 8월 23일부터 9월 2일까지 로마에서 87개국 3만여 명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제1차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평의회를 개최하였다. 각국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국제적 조정과 정보교환,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종교단체라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내 보인 이 평의회는 중요의제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분명한 성격을 규정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어떻게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 하는 것 등이었다. 이 평의회는 모든 나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의 날 행사 개최, 젊은 노동자들의 결혼준비에 대한 연구활동 계획, 재정자립에 대한 의견교환, 대표활동에 대한 계획수립, 전 세계 젊은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 국제사무국을 구성하고 집행위원을 선출하는 문제 등을 다루었다: 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89쪽; 경향잡지 1957년 10월호 375쪽. 한국 대표들이 제2차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평의회에 참가하기 전인 1961년 7월 22일에 필리핀 사람으로 국제 가톨릭노동청년회 여부회장인 베디빌라(Beddy Villa)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베디빌라 부회장은 1주일 동안 체류하면서 성당색션들과 직장색션들을 방문하고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급격한 발전에 감탄하였으며,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상황을 제2차 가톨릭노동청년회 국제평의회에서 보고하였다: 가톨릭시보, 1961년 8월 13일자.

169) 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90쪽; 가톨릭시보, 1961년 11월 26일자; 송명숙, 같은 증언 참조.



한국 가입 승인 순간

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이 땅을 복음화하는 도구인 신심·활동 단체를 받아들이고 활용하는 데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뛰어든 이 땅의 청년 가톨릭신자들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이웃을 복음화할 수 있다고 확

신하여 이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회원들의 이런 헌신적인 활동에 힘입어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1962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서울시내에만 남자섹션 21개에 1,000명의 회원, 여자섹션 17개에 300명의 회원 등 38개 섹션에 1,300명의 회원들로 급증하였다.¹⁷⁰⁾



안양 포도밭 야외미사

서울대목구장 노기남 주교를 비롯한 사목자들은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적극 협력하였다. 또한 이미 서구교회의 노동사목 역사와 현황,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잘 알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물론이고 한국인 성직자 가운데에서도 서구교회의 흐름과 노동사목을 잘 아는 이들이 여럿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한국

교회가 큰 곤경에 처하고, 휴전 이후에도 계속 어려울 때 프랑스교회가 우리나라의 많은 신학생들을 불러들여 프랑스 전국각지의 신학교에 분산하여 교육하였는데, 박성중 신부를 비롯한 프랑

170) 金成鏞, 聖職者의 使命과 JOC, 가톨릭대학 학지편집위원회, ALMA MATER 제6호, 가톨릭대학 신학부 학생회, 1962, 181쪽.

스유학 신학생들은 공부하는 동안 가톨릭교회의 노동사목과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직접 경험하여 사제수품 이후의 사목에 큰 도움이 되었다.

노기남 주교와 박성중 신부는 수학여건이 호전되어 외국유학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신학생들에게도 노동사목의 학문적 바탕에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하여 현장실습을 하게 함으로써 사제수품 이후 노동사목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노동사목에 관심을 기울이던 신학생들은 이들의 배려와 기대에 부응하여 학문적으로나 실제적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이론과 실습에 적극적이었다.¹⁷¹⁾

교내 학술지인 “ALMA MATER”에 가톨릭노동청년회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제반사항, 즉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신원, 정신, 정신의 기반, 근본적 특징, 조직과 방법, 역사,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탄생 등을 자세히 정리·소개하였는데, 특히 가톨릭노동청년회를 알기 위해서는 몇 권의 책이나 강연회로는 부족하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생활 속에 직접 파고들어 관찰하고 그들의 활동을 주시하며, 적극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¹⁷²⁾



북부지구 야외미사

또한 자신들의 신원을 따라 성직자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관계를 논하였다. 당시 한국의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비참한 현실¹⁷³⁾을 보면서 이들의 불행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도덕적·종교적 불행이 한층 더 절망의 수렁에 빠뜨리는데, 교황 비오 11세의 “교회는 노동자를 필요로 하

고, 노동자는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구원에 성직자와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협력이 절대적임을 강조하였다.

171) 가톨릭시보, 1960년 5월 15일자; 김수창 신부, 2005년 10월 4일자 증언 참조.

172) 金鍾南, -特殊 가톨릭 액손으로서의- JOC 運動이란 무엇인가?, 가톨릭대학 학지편집위원회, ALMA MATER 제5호, 가톨릭대학 신학부 학생회, 1960, 195~208쪽.

173) 1961년 12월 말 현재 노동자(직업인)가 전 인구의 39.7%인 9,642,939명이고 실업자는 2.9%인 730,489명(경향신문 1962년 4월 21일자)이지만, 실업자뿐 아니라 노동자도 굶주림을 면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현실이 매일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는 비참한 실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신학생들이 기고한 글들을 보면, 교황 레오 13세부터 요한 23세에 이르기까지 역대 교황들의 사회교리를 깊이 천착(穿鑿)하고, 섹션의 성공여부에 대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제가 되었을 때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도 “사제가 말로써 가르친 바를 모범에 의해서 입증하지 않는 이상 그 같은 성직은 거의 무익하게 끝장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바이다.”라는 교황 비오 10세의 말대로 실제로 모범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⁷⁴⁾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로 리나 마에스 등 초창기 국제가톨릭형제회원들의 지도와 협조를 빼놓을 수 없다. 리나 마에스와 줌머스 등은 자신의 나라에서 직접 경험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바탕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다. 또한 한국인 최초의 국제가톨릭형제회 회원인 김양순은 벨기에에서 수련하고 신학 등을 공부하면서 가톨릭노동청년회를 배운 내용으로 한국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양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그리고 외국어에 능한 이들이 적었던 당시에 벨기에 출신 국제가톨릭형제 회원들은 공문작성 같은 사무에 적극 협조했다. 나중에 한국에서 양성된 이들 가운데 많은 회원들이 직접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한국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성장에 기여한 이들이 많았다.¹⁷⁵⁾

174) 金成鏞, 같은 글, 179~181쪽.

175) 초기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희생적인 활동은 가톨릭시보 1962년 12월 2일자에 잘 요약되어 있다. 부록 3에 전문 수록.

✻ 제3절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착

1. 시대상황

1) 군사정권 등장

박정희 일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미국은 처음부터 쿠데타를 반대하여 주한유엔군사령관이 윤보선 대통령에게 무력으로 진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주한대리대사도 쿠데타에 반대하고 장면정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민은 적극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여 쿠데타세력이 우여곡절 끝에 권력을 장악하자, 미국은 민정이양을 요구하며 쿠데타세력을 인정하였다.

박정희정권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통제하였다. 1962년 3월 16일에 공포된 ‘정치활동정화법’을 통해 정치인 4,374명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15개 정당과 238개 사회단체를 해산하였으며, 1,170종의 신문과 잡지를 폐간하여 기존의 정치집단과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을 제어하였다. 박정희는 1963년 2월 18일에 성명서를 발표하여 자신은 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선거시기를 연기하고 정치활동이 금지된 정치인들을 대폭 해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국내외로부터 반대에 직면하여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와 다음 달의 국회의원 총선거로 민정을 이양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등 쿠데타주역들이 전역한 뒤에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참여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민정이양이 아니었다.

1967년 4월 18일에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의 하나로 고속도로건설을 밝혔다. 박정희는 선거 전날 청와대 기자회견을 통해 공약사업으로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의 중간부터 시작하여 제3차 5개년 계획까지 40억 달러를 투자하여 대국토건설사업을 전개한다고 천명했다.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개발,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환상철도건설, 부산 등 10대 항만의 보수 등과 고속도로건설을 밝혔다. 1967년 11월 14일의 정부·여당연석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의 건설이 결정되자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428km가 확정되었다.

고속도로 건설의 영향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의식수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자동차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정부당국자들은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구나 산업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반대로 인구의 도시

집중과 산업편중이 가속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1969년 9월 14일에 민주공화당 소속의원들은 대통령의 3선을 가능케 하는 헌법개정안을 야당 몰래 의결함으로써 박정희의 장기집권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를 제거하였다. 야당은 3선개헌 저지투쟁에 좌절한 대신에, 국민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투표에서 찬성하였다. 1969년 3선개헌은 1972년 유신독재의 전주곡이었다.

2) 1960년대 경제와 노동시장

군사정권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려고 1961년 8월에 ‘1961년 상공시책’을 제시하고, 1962년에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목표연도의 수출을 계획기간 중 증대하는 수입수요를 최대한 자력으로 조달하려고 기준연도보다 약 4.2배 증가한 1억 3,800만 달러로 책정하였다. 1963년의 재정안정화계획, 1964년의 단일변동환율제 채택, 1965년 한일관계정상화, 1966년 외자도입법 제정과 1967년 GATT 가입, 무역자유화 조치 등을 취하였다. 이러한 제반 제도적 장치의 정비에 힘입어 1965년에 타결된 한일경제협정을 시발로 미·일 자본이 본격 도입되었고, 외자에 의존한 수출지향공업화가 본격 추진되었다.

1953년 이후 감소하던 수출은 1961년에 1953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1960년대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40% 수준이었다. 1960년대 초 제1차산업 생산품과 광산물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60년대 중반부터 공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수출의 급성장은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높였다. 무역의존도는 1950년대 13% 수준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30%에 달하였다. 한국이 수출주도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이전 시기동안 진행되었던 경공업 부문이 발전하였고, 1950년대 경제개발에서 제도, 자본형성, 기술 등의 경험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¹⁷⁶⁾

2차례의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연평균 9.6%의 경제성장률, 10대재벌의 부가가치 생산은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이룩하였다. 수입대체공업화와 수출경제체제로 재편된 특징을 드러내는 1960년대는 수입대체적 중공업부문이 함께 성장하였다. 수입대체업종은 모두 거대자본을 요하므로 이를 담당할 수 있는 재벌기업들이 성장하였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은 여타의 중소기업 자본을 종속시키면서 생산계열을 형성시켰고, 새로운 물질적·기술적 토대를 통하여 생산과 자본을 집적하였다.¹⁷⁷⁾

176) 이대근 외, 같은 책, 12장;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새길, 1991, 참조.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수출기지화는 수출지향적 산업화 전략이었다. 후발 산업화국가들에게는 노동집약적 공업전개를 강요하였고, 단순·반복적인 노동과정이 주로 채택되었다. 이는 노동규준으로서 강력한 노동통제의 군부독재정권과 저임노동력의 광범위한 존재, 저급수준의 기계에 바탕을 둔 노동집약적 산업의 유혈적 테일러주의라는 통제방식을 낳게 하였다.

1962년 이후 정부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을 추구하되, 고용팽창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고도경제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과 외자도입과 수출증대에 의한 자본축적이었다. 생산연령인구와 경제활동인구는 계속 증대되었고, 취업자도 계속 증가하여 실업률은 1963년 8.1%에서 1969년 4.3%로 줄어들었다. 상시고용자도 1963년 97만 4천 명에서 1969년 203만 5천 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임금노동자의 증가는 상당부분이 농촌의 빈곤화 요인과, 이에 따라 일자리 기회를 찾아 도시로 밀려든 노동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⁷⁷⁾ 이 시기의 노동정책은 성장제일주의를 표방한 정부의 기본정책 노선으로 노조활동이 억압되고 임금인상 또한 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¹⁷⁹⁾

당시의 노동조건을 보면 그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피용자 보수율이 1959년 38.2%에서 1964년 28.4%까지 하락하였으며, 1974년까지 195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경제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경제잉여의 배분과정에서 노동자계급의 소외를 보여 주는 것이다. 1965년을 기준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60년대 전반기에 하락하였다가 1960년대 후반에 겨우 원상을 회복하여 1960~1969년에 연평균 3.6%(광업), 3.4%(제조업) 상승하였다. 이를 같은 기간 동안의 노동생산성상승률 12.6%와 비교하면 노동자의 상대적 지위는 그 동안 연평균 9%나 약해진 것이다. 한국은행의 임금기본조사보고서(1967)에 따르면, 1967년의 제조업 노동자의 93%, 광업노동자의 88%가 당시 조사연도의 실태생계비 21,370원에 크게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제조업 노동자의 70%, 광업노동자의 50%가 식료품비 9,18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당 노동시간 또한 1963년 47.5시간에서 1969년에 57.2시간으로 10시간 가까이 늘어났으며, 산업재해자는 1964년 1,489명에서 1969년에 31,705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재해도수율과 재해강도율로 보면, 1970년 당시 우리나라의 재해도수율과 재해강도율은 각각 15.47과 3.19이었다. 이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8.08, 0.64와 10.37, 0.90으로 우리나라가 훨씬 높

177) 서울사회과학연구소 경제분과,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 새길, 1999.

178) 박기호, 한국의 노동쟁의, 한국자본주의와 임금노동, 화다, 1987, 258쪽.

179) 이종원, 같은 책, 313쪽

은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 당시 건강진단을 받은 61만 9천 명 가운데 1,240명이 직업병으로 드러나 노동자의 7.9%가 직업병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⁰⁾

3) 1960년대 노동운동

1960년 4월혁명으로 이승만정권이 붕괴하자, 민중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민족 자주성 확립과 남북통일에 대한 민중의 참여보장, 민중생존권 옹호 등 사회변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은 민중들의 요구를 거부하며 미국의 냉전전략을 지탱하고자 함으로써 민중과 대립하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독재정권에 억눌려 왔던 노동자들이 폭발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동조합은 1960년에 380여 개가 만들어져 연초의 569개에서 914개로 크게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최초로 교원노조와 은행, 증권 등 사무직 노조가 등장하였으며, 일부 신문사에도 노조가 결성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의 지평이 넓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정권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전국규모로 결성된 교원노조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였다. 교원노조는 1961년 5·16군사쿠데타 직후 용공세력으로 몰려 극심한 탄압을 받고 와해되었다.

노동자들은 한해 동안 1950년대 연평균 50건의 4배가 넘는 227건의 쟁의를 일으켰으며, 어용노조 간부퇴진투쟁을 강력히 전개하였다. 1950년대 말에 등장한 전국노협의 영향력은 증대하고 대한노총은 새로운 전환을 천명하였다. 전국노협은 대한노총의 재편을 요구하였고 대한노총은 조직재편을 위한 통합대회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한노총 잔존세력은 완강하고, 전국노협은 대세를 장악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대한노총의 민주적 재편은 끝내 성사되지 못하였다. 박정희정권은 임금과 물가 동결, 노동쟁의 금지령을 내리고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사회단체를 해산시켰다.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자본이 급격하게 진출하고, 경제규모는 1960년대 연평균 9%의 고도성장을 기록하였다. 급격한 공업화를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는 1963년에 238만 명에서 1970년에 373만 명으로 급증하고, 특히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제조업노동자는 1963년 7.9%에서 1970년 13.2%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할수록 해외의존도는 높아졌고, 독점재벌의 형성과 부실기업의 대거 등장, 부익부빈익빈으로 표현되는 소득불균형을 확대·심화시켰으며, 1960년대 말 1970년대 초에 해외시장조건이 악화하자 경제는 위기를 맞고, 국내의

180) 노동청, 노동통계연감; 박기호, 같은 책, 263쪽에서 재인용.

각종 모순과 저항이 첨예하게 드러났다. 정권이 위기상황에 처하자, 국가안보의 강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정권연장을 획책하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을 억압하였다.

1961년 5월 23일에 노조해산명령을 내렸던 군사정권은 그 해 8월에 자신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별노조를 만들도록 허용하고, 9명의 간부들을 지명하여 중앙정보부에서 훈련을 시킨 뒤 약 10일 만에 15개의 산업별노조를 만들게 하고, 이를 토대로 1961년 8월 30일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결성하였다. 군사정권이 강력한 중앙집중력을 가진 산별노조를 만들게 한 것은 노동조합을 장악하여 대중적인 정치기반을 확보하고 저임금을 기초로 경제개발전략을 추진하면서 노동자의 저항을 노동자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군사정권은 1963년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산별노조 통제 하의 노동쟁의, 노동쟁의에 대한 적법판정제도, 노조운영에 대한 정부개입의 확대, 쟁의냉각기간의 확대와 절차의 복잡화 등 노동자들의 저항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노동자들의 생활상태는 고도성장과 반대로 나빠졌다. 임금은 음식물 값에도 모자라는 수준이었고, 주당 노동시간은 1963년의 50.3시간에서 1969년에는 59시간으로 늘어났으며, 산업재해는 1964~1969년에 1,489건에서 38,442건으로 30배나 증가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1964~1969년에 연평균 3.4% 증가에 그친 반면, 노동생산성은 12.6%나 상승하여 소득분배에서 철저히 소외되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은 1960년대 후반 근로기준법의 개악과 집단적 노동관계법의 개정을 요구하며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운동을 억압하고자 하였다.

조합원은 1962년의 10만여 명에서 1969년에 49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노동쟁의는 1963~1969년 간 연평균 105건에 17만 5천 명이 참가하였다. 노동쟁의는 저임금으로 인한 생활난을 반영하여 임금인상요구가 주종을 이루고, 해고반대, 노조활동 보장 등이 뒤를 이었다. 노동쟁의는 1960년대 중반까지 관·공기업 분야와 외기노조가 주도하다가 후반기에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며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외자기업에서 쟁의가 급증하였다. 한국노총은 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정책개선투쟁을 벌였는데, 정부관리기업체의 보수통제법 폐기투쟁, 주유중탄정책반대투쟁, 자본시장육성법 반대투쟁이 대표적인 것들이었다. 또한 섬유노조 산하 면방 생사업종은 전국적인 통일교섭과 총파업이 시도되기도 했으며,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노동조합의 임금이론이 등장하기도 했고, 1960년대 말에는 권력의 억압 정책에 대항하여 정치활동이 시도되었다.

4) 제3공화국 초기의 노동입법

1961년에 5·16쿠데타가 발생하면서 포고령 제6호에 의하여 노동4법의 효력이 일시 정지되고, ‘근로자의 단체활동에 관한 임시조치법’(1961년)이 공포되었다. 1953년에 노동4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근로기준법이 일부 개정(1961년)되었으며, 제3공화국이 수립된 뒤에는 노동조합법을 두 번 개정하고, 노동쟁의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을 각각 세 번 개정하였다.

1961년의 근로기준법 개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하고, 퇴직금제도도 개정하였다. 또 월차유급휴가의 적치제도와 함께 휴업지급, 노동시간·휴식시간의 예외를 신설하고, 여성의 산후 유급보호휴가의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1963년 노동조합법은 노사협의회의 설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주의의 도입 등이다. 특히 ‘조직이 기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정하여 노동조직 간의 중복과 조직경쟁을 막는 한편,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관하여 종래 아무 규정을 두지 않았던 데 비하여 전국적 규모의 단일 조직형태를 지향·전재하는 규정들을 신설하였다.

노동쟁의조정법 개정은 공익사업범위의 확대, 노동쟁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법심사, 알선서·조정서, 중재재정의 효력을 단체협약의 효력과 동일하게 인정, 긴급조정제의 신설 등이다. 특히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산하단체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조합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노동쟁의의 실질적 통제·관리를 도모하였다. 노동위원회법은 공익위원의 증원(5인까지 증원 허용), 2인의 상임위원제 신설,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신설 등과 같은 내용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4법 개정 외에 ‘직업안정법’(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년), ‘선원법’(1962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등을 제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기업 내에서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1970년)이 제정되었다. 즉,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할 때 노동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노동쟁의는 바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임시특례법은 1986년에 폐지될 때까지 수출자유지역에서 노동조합·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제3공화국 초기 노동입법의 특징은, 원조경제체제에서 경제개발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노동관계에 대하여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자 하는 정책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에 대한 국가의 간접적 규제, 노동자의 보호입법의 강화, 공익중심의

노동행정 확립, 노동쟁의 제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 마련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노동운동 특히, 파업권 내지 쟁의권에 대한 법적 통제의 강화로 인하여 건전한 비판세력으로 노동운동과 파업이 급격히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치목표로 삼았던 당시 정부는 마산, 이리 등에 수출자유지역을 설립하고, 외국자본이 적극 유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자기업에서 노조운동을 실제로 금지하였다.

2. 정세불안과 교회의 대변혁

이승만 독재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자 7·29총선거에서 10명의 천주교 신자가 국회 의원에 당선되고, 장면이 국무총리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장면정권은 정책을 현실로 채 옮겨 보지도 못한 채 단명으로 끝났다. 한국교회는 쿠데타세력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였고, 쿠데타세력은 자신의 정권장악을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적 승인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주한교황사절은 쿠데타세력이 반공체제를 강화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미국보다 먼저 쿠데타세력을 인정하였다.

1958년에 교황이 된 요한 23세는 본격적으로 산업화하는 유럽사회를 따라 교회도 변해야 한다는 요구를 본격 수용하여 실천에 옮겼다. 즉, 교회를 현대화하고 사회에 적응시키려고 1959년부터 2년 동안 준비한 뒤에 1962년 10월 1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전 세계 3,500여 명의 주교들을 소집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다.¹⁸¹⁾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한국교회가 전환기에 처한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고 쇄신하면서 겨레와 인류를 향한 봉사의 자세를 점검하게 하였다. 이에 앞서 1962년 3월 10일에 교황청은 한국교회의 자립능력을 인정하여 정식교계제도를 설정하였다. 한국교회는 완전한 재치권(裁

181) 이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 서구세력들이 독립하고 많은 민족들이 독립국가를 만들어갔기 때문에 자주·독립·사상 등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던 시기였다. 동유럽·중국·북한·쿠바 등이 이미 공산 국가가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독일·이탈리아·일본의 독재정부가 무너지 많은 식민지들이 독립되어 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서고 국제연합이 구성되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자율 사상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신생독립국들이 후진성을 면하기 위하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개발에 주력하고, 공산국가들이 경제적 평등을 내세워 독재를 합리화하였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평등, 분배정의에 대한 요청, 갈망이 급격하게 표출되어 당시 공산국가들이 급증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중요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고, 인권을 보장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서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하여 평화를 추구할 수 있는가이었다. 바로 이런 세계정세에 맞추어 교황 요한 23세가 교회개혁의 필요를 절감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것이다. 오경환,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천주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73호(1989. 19), 15~16쪽.

治權, *jurisdictio*)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어 서울·대구·광주대목구가 대교구가 되고 이들을 중심으로 3개 관구(管區, *provincia*)가 설정되었다.

현대교회사에 새로운 전기가 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인간의 보편적인 구원을 강조하고, 피라미드적이고 수직적인 교회관을 바꾸었으며, 한국교회에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실현, 민족 화해라는 사명을 안겨 주었다.¹⁸²⁾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사명 가운데 구체적인 자신들의 사명을 찾아 적극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3. 보리싹식당¹⁸³⁾

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63년부터 계획을 세운 뒤에 조직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계획사업으로 전국 7개 도시의 자유노동자(영세노동자) 3천 명을 대상으로 자유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식생활 해결(54%)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다.¹⁸⁴⁾ 자유노동자들은 무엇보다 시간이 없거나 돈이 부족하여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제3차 전국평의회를 개최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결책을 토의하였는데, 실비간이식당을 개설하여 국수를 싼값으로 제공하여 당면한 고통을 덜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 보리싹식당은 “빈민구제를 위한 급식소가 아니라, 하루의 노동임금으로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동료노동자에 대한 도움이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일하는 현장과 노동조건, 위생문제,

182) 교회의 사회복지 기능은 복음정신에 기반을 두고 실현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투신하는 모습이다.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정의의 실천은 인간의 기본권리를 확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교회는 정의의 측면에서 사랑을 강조한다. 따라서 정의와 사랑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사랑이 없는 정의는 폭력에 불과하며, 정의를 망각한 사랑은 현상의 호도에 불과하다. 공의회는 정의와 사랑의 차원에서 인류의 평화를 강조하면서 한국교회에게 특별히 민족에 대한 봉사와 민족의 화해를 요청하였다. 분단은 인류의 평화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한국교회는 남북문제로서 빈곤문제와, 동서문제로서 이데올로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받았다: 조광, 바티칸 공의회와 한국교회, 한국교회사연구소, 교회와 역사 제198호(1991. 11.), 한국교회사연구소, 5쪽.

183)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68~70쪽; 경향잡지 1963년 4월호 이하; 가톨릭시보 1963년 3월 24일 이하;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박덕선 수녀, 2006년 6월 1일자 증언; 송명숙, 같은 증언; 이영미, 같은 증언; 윤정길, 같은 증언; 송옥자, 같은 증언; 천정자, 2006년 3월 21일자 증언 등을 바탕으로 구성하였음: 필자 주.

184)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노동자의 일상생활을 관찰하는 데에서 시작하므로 노동문제 전반의 실태를 자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 적극 실천하고자 하였다. 즉, 실태조사는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근본활동 가운데 하나이며, 대단히 중요한 수단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결성된 초창기부터 적극 활용한 전통이었다. 해당시기 노동현실을 실태조사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업무의 우선순위, 경중 등을 결정하였다: 도요안 신부, 2007년 1월 4일자 증언 참조.



보리싹 식당

임금제도, 최소한의 생활보장 등의 여러 문제를 일깨워 주는 마당이다. 이 봉사를 통하여 노동자의 사명과 노동의 위대성,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면서 오락과 휴식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집을 만들어 하느님과 복음을 전하려는 데 그 뜻이 있음”이라는 설립취지처럼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인 음식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식당이었다.

1963년 2월 19일에 남대문로 5가 115번지에 보리싹식당을 열고 국수를 공급하자, 서울역과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일하는 지게꾼, 손수레꾼, 잡역꾼, 실업자 등 자유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식당에서 제공되는 국수는 하

루 수입이 좋으면 60~100원 정도밖에 안 되어 춘궁기 때는 식생활을 해결하기 어려웠던 노동자들이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도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아주 저렴한 가격인 3원을 받았다.¹⁸⁵⁾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은 단순히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만 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가족·생계비·노동시간·임금·탈선행위 등을 관찰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에 따라 바른 길을 함께 가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아주 적은 수입일지라도 저축정신을 길러 주기 위하여 당시 가톨릭노동청년회 사무실과 가까웠던 신용조합에 한 구좌 이상을 가입하여 그 날의 수입 가운데 몇 푼이라도 저축하게 하였다.

이 보리싹식당은 처음에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과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수녀들의 헌신적인 봉사로 운영하였지만, 식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 가운데 실업

185) 이렇게 국수를 원가 이하의 아주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국수를 무상으로 받은 데다가 식당종사자들이 무료로 봉사하여 인건비가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미가톨릭구제회의 부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제공하는 국수를 생산하였는데, 지금은 변화가 되었으나, 당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본원이 있던 청과동일대는 인가가 드문 지역이어서 수녀원에 국수기계들을 설치하고 넓은 공터에서 국수를 말렸으며, 수련자들이 계속하여 이를 담당하였다. 또한 한국순교복자회 수녀들과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이 식당에서 시간을 정하여 순번제로 봉사하였는데, 1,000그릇 이상을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공급하여야 하고, 당시는 취사도구들이 발달하지 못한 탓으로 매일 밤을 세워 국수를 삶았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박덕선 수녀, 같은 증언.



보리싹 식당(내부)

상태인 이들을 유급으로 채용하여 운영하였다. 이 보리싹 식당의 저렴하고 맛있는 국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지자, 문을 연 지 3개월도 못되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멀리서 찾아왔다. 또한 서울특별시가 시내에 4개의 시립식당을 운영하였는데, 보리싹식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듣고 이 시

립식당들을 인수하여 운영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남대문로에서 시작된 보리싹식당이 종로·동대문·영등포·문래동 등지로 확장되어 1963년 5월 15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자, 하루 연인원 5,0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자유노동자들이 이들 식당에서 한 끼를 해결하였다. 애초 보리싹식당 활동은 미국가톨릭구제회 등 가톨릭만 도와주었지만, 이처럼 사업이 확대되자 개신교와 남대문경찰서 등도 적극 지원하였고, 곧이어 광주·대구·안양 등지로 확산되었다.

이 보리싹식당들은 초기에는 식당기능만 하였으나, 노동자들이 적은 액수라도 저축하는 신용조합, 가난한 이들이 무료로 혼인의식을 거행하는 예식장, 무단가출자들의 생활을 관찰하고 교육하여 선도하는 복음실천의 마당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조셉 카다인 추기경의 가르침대로 '지역적인 대중을 위한 학교'가 된 것이다. 이처럼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보리싹식당을 통하여 가난한 자유노동자들의 끼니를 손쉽게 해결하여 주고, 식당을 매개로 이들 노동자들의 전인적인 생활개선에 힘쓰자 남대문경찰서장이 감사장을 전달하여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방지거반의 활동은 개인활동에서 시작하였으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체의 조직적이고 전국적인 활동으로 확산된 데 반하여, 보리싹식당 운영은 처음부터 대다수의 회원들이 동시에 참여하여 자유노동자들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여론을 긍정적으로 변모시켰으며, 노동자 전체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을 이끄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 두 가지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의 다양한 초기노력들 가운데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전개된 활동들이었으며, 성과 역

시 확연하게 드러나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표적인 활동이었다.

4. 노동에 대한 자각과 환경개선



서울연합회 회의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은 무엇보다도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노동자들의 활동이므로 초창기에 다른 사도직들처럼 사회봉사, 선교에 헌신하면서도 노동자의 고유한 활동으로 사도직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식은 1963년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 제5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선언문과 강

령에 잘 드러난다.¹⁸⁶⁾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섹션들이 아직 성당 중심이었지만, 직장섹션들이 늘어나면서 노동현장을 복음화하는 회원들의 변화와 성장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숙명대로 수동적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회원이 된 뒤 노동의 기쁨과 보람을 깨달았으며,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될 만큼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모하여 복음의 가치인 희생과 봉사를 일상에서 실천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에서 오는 굴욕감, 수치심, 절망, 고통을 긍지, 자부심, 희망, 기쁨으로 바꾸어 나갔다.¹⁸⁷⁾

회원들의 의식변화는 동료와 작업환경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문제의 원인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료회원들과 회합으로 해결책을 찾아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18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 제5주년 기념행사는 1963년 9월 1일에 진명여자고등학교 3·1당에서 서울대교구 장 노기남 대주교, 평양대목구장 서리 캐롤 몬시뇰, 전국 지도신부들, 전국각지에서 모인 2천여 명의 회원들이 거행하였다. 이 기념행사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노동자들의 노력을 기구(기도) 중에 기억할 것이며, 이번 행사에 참석한 전 회원들이 성신(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입도록 간구하면서 교황강복을 보낸다.”는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가톨릭시보, 1963년 9월 8일자, 1쪽. 선언문과 강령 전문은 부록 3에 수록.

187)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74~76쪽.

회원들은 우선 노동계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임원들이 1963년에 보사부 노동국과 한국노총을 수시로 방문하여 전국사업장명부, 한국노총의 사업보고서 등과 각 산별노조 신문을 구입하고 각 교구연합회에 우송하여 노동관련 자료를 축적하게 하였다. 한편, 노동자들의 봉급과 노동시간, 봉급지급 상황조사,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자 위생상태 조사, 직업소년 실태조사, 자유노동자 실태조사 등으로 노동계의 현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각종사고로 발생하는 사망과 부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하였다.¹⁸⁸⁾

회원들은 실태조사 활동과 자료수집 외에도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열악한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의무시설을 확충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금지와 위험시설 제거 등에 동료들과 힘을 합하였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 각 섹션의 회원들, 그리고 각 교구연합회와 전국본부 임원들이 앞장섰다.¹⁸⁹⁾ 회원들의 의식변화, 노동환경에 대한 관심과 개선 노력은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증가하고 직장팀이 확대되는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분화와 확산

1) 가톨릭노동청년회 설립과 활동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청년노동자 활동이기 때문에 만 30세¹⁹⁰⁾를 넘거나 혼인하면 대부분 떠났다. 노동계의 인간화와 복음화는 청소년이나 청년들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노동자들

188) 같은 책, 76~77쪽.

189) 회원들의 노조결성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나는 노고와 성과는 다음과 같은 여성회원의 편지에 잘 나타난다. “무기력한 우리 JOC는 십자가의 무기만 믿고서 대결한 지 거의 6개월, 마침내 주의 뜻대로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 매일 밤 우리들은 저녁을 굶어가며 고 방ziger 지도신부님 방에 모여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될 때까지 진지한 토의를 나누며 돌아가는 정말 가슴 아픈 날들을 보냈습니다. … 십자가가 무겁다고 한숨을 지을 때가 많았지요. … 우리 JOC 힘을 어느 누구도 침해하지 못함을 공장 측에서도 크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손색이 없는 노동계의 혁신을 위해 지금보다 더 큰 과제를 천주께서 맡겨 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을 얻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라면 불가능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협조해 주신 신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천주님께 감사드립니다. JOCF 말다 올림.” 즉, 노조결성을 통한 노동자 활동은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에 입각한 회원들의 투철한 관찰자세, 팀 회합을 통한 해결모색, 청년노동자 개개인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엄성, 노동계 안에서 걸어야 할 분명한 진로 등을 잘 나타내 준다. 같은 책, 77~79쪽.

190) 규정은 만 30세이지만, 경우에 따라 조금 넘을 수도 있다.

이 전 생애를 바쳐 이룩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 이후에 장년노동자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신을 중단하지 않고 구현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가톨릭노동청년회가 급속히 확산되어 혼인 또는 30세가 넘는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MOFC: Mouvement des Ouvrier Familial Coréen)를 발족하였다.

1964년 1월 18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서 혼인한 세 가정(이 바오로와 로사, 엄 클레멘스와 손 프란치스카, 한 루가와 장 안젤라)이 중심이 되어 당시 이름으로 ‘성인가톨릭노동청년회’¹⁹¹⁾ 한 팀을 발족하였다. 이들의 헌신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같은 해 5월 9일에 한국가톨릭 서울대교구노동장년회(회장 정남대)¹⁹²⁾를 발족하였다. 그 뒤 1966년 3월 17일에 서울의 4개 팀 50여 명의 회원들이 제1회 서울대교구연합회 총회를 개최하여 최동진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박성중 신부를 지도신부로 추대하여 ‘국제가톨릭노동장년회연합’(MMTC: Mouvement Mondial des Travailleurs Chrétiennes)’의 정식회원국으로 발족하였다.¹⁹³⁾ 그 해에 회원 5명이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이래 회원들이 계속 참여하였다.¹⁹⁴⁾

서울대교구에서 발족된 가톨릭노동장년회 팀들은 1964년의 성가팀, 1965년에 명동본부 중심으로 까르딘팀, 1965년에 대방동 중심의 요셉팀, 8군 분유회사 중심의 분유팀, 1966년에 당산동 중심의 당산동팀, 영등포전화국 중심의 전화국팀, 1967년에 대방동 중심의 등대팀, 상도동 중심의 지평팀, 1968년에 장충동본부 중심의 사랑의 모임, 신당동 중심의 금성팀, 도림동 중심의 복자팀, 구로동 중심의 한뿌리 모임, 신당동 예비팀인 셋별팀, 돈암동 예비팀인 도토리팀, 1969년에 용산 중심의 예비팀인 바오로팀, 1970년에 도림동 중심의 도림동팀 등이다.¹⁹⁵⁾

가톨릭노동장년회는 월 1회 모여서 각자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나누어 실천으로 생활에 반영하고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개인발전·가정발전·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이 각종회합에서 취급한 사건과 주제는 부부나 자녀교육문제 같은 가정문제나 성당과 이웃, 직장문제 등 다양한 현실문제들이었다.¹⁹⁶⁾

191) ‘성인청년회’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당시는 가톨릭노동청년회밖에 몰랐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장년회의 올바른 이름과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도요안 신부, 같은 증언 참조.

192) 서울대교구, 제709호 친서 28호 인준: 가톨릭노동장년회 서울대교구연합회 제32회 정기총회 자료집, 4쪽 참조.

193) 가톨릭시보, 1966년 3월 27일, 3쪽. 한국은 설립 당시부터 창립위원(charter member)이었다: 도요안 신부, 같은 증언 참조.

194)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종합보고서, 1970년 4월 1일자.

195) 위와 같음.

196) 성가정을 이룩하는 일(성가팀, 1964년), 개인생활 발전의 일(성가팀, 1964년), 술(까르딘팀, 1965년), 부부생활(요셉팀, 1965년), 부부 간의 대화(분유팀, 1965년), 노동자의 임금불만 해결(당산동팀, 1966년), MOTC 회원

이들의 활동은 대체로 두 가지 실천과정으로 전개되었다. 하나는 각 모임이나 팀 회합에서 다른 주제를 실천하는 활동, 다른 하나는 각 모임에서 실천하지 못한 주제를 본회본부에서 직접 실천하는 활동이었다. 첫 번째로 전개되는 과정인 회합에서 다른 주제를 실천하는 활동은 상부상조, 생활의 합리화, 노동조합교육활동, 주택조합 활동 등이었다.

① 상부상조

각 모임 또는 팀마다 재정이 빈약하고 각 회원의 생활수준이 불우한 점을 지적,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전반을 원활하게 하고, 회원들이 생활하면서 상부상조하기 위하여 ‘계’식 또는 ‘신용조합식 적금’을 자체로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월 1회 회합에서 회원들이 500원씩 납부하고 추첨하여 전체금액의 50%를 모임의 기금, 나머지 50%를 당첨자 개인이 소유하는 제도인 ‘주머니 제도’, 일반적으로 성행하는 ‘계’와 같지만, 참가회원의 수에 가톨릭노동청년회 기금의 몫을 추가해서 필요한 사람 순으로 찾아가며, 마지막 몫으로 두는 제도인 ‘친목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다.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연간 2, 3회 연구회 또는 야유회, 모임 또는 팀 회합의 교류를 통하여 친교를 나누고, 상부상조하고, 생활, 산업정보 지식을 교환하며, 직접 또는 교구를 통하여 생활을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또한 생산업자와 소비품 판매업자를 연결하여 물품을 싸게 구입하고, 노동조합활동과 지방노동위원회를 연결하여 산업정보와 지식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나아가 각 기업의 노사협조를 위하여 회원의 불만과 기업주의 애로를 조사하여 상호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각 기업체를 견학 방문하며, 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목적과 정신에 관한 이해를 촉구하는 간행물을 정기로 발송하고, 좌담회를 개최하여 이해를 돕게 하였다.

② 생활의 합리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은 입회하면서부터 성가정에 대한 주제를 취급하고 충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가톨릭 노동가정운동은 성가정으로부터”라는 표어가

의 결속(전화국팀, 1966년), 새가정·신혼(등대팀, 1967년), 성가정과 사회생활(사랑의 모임, 1968년), 사회불신(사랑의 모임, 1968년), 실업회원의 구제(사랑의 모임, 1968년), 가정평화의 여성(금성팀, 1968년), 성당 일에 협조(한뿌리모임, 1968년), 이웃과 유대(등대·복자팀, 1968년), 직장노동활동(복자팀, 1968년), 성소문제(사랑의 모임, 1970년), 자녀교육문제(금성팀, 1970년) 등이다.

충분히 이를 증명하였다. 가톨릭교회 신비체의 지체가 되는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의 각 가정은 마땅히 성가정의 질서와 정신을 따라야 한다.

즉,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 순종하며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성가정). 부부 간의 신뢰와 애정, 부부관계는 바로 혼인성사 은총의 계속이므로 정상적인 부부생활의 악폐가 되는 관념과 제도는 배격하고 지양하여야 한다(부부생활). 남자가 마시는 술은 어디까지나 사교적이어야 하므로 그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술은 마시되, 술 뚜껑을 바로 닫는다(술). 한국가정의 부역은 부인들이 부역일을 하는 데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부인들이 허리를 굽히지 않고 부역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역을 개조하자(신혼부부). 신혼생활을 할 때는 식구가 단출하므로 전세나 셋집에 사는 것이 별로 불편치 않았으나, 자녀들이 늘어나 생활의 불편은 늘어나고 집주인과 이웃의 복잡한 인간관계가 파생하므로 주택문제가 시급하다(신혼생활, 주택조합). 자녀들의 가정교육은 무조건 엄한 방법으로 다룰 것이 아니고 방법론으로 중용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 텔레비전도 무조건 해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니 유익한 것은 되도록 장려하고, 유해한 것은 보지 않도록 해야겠고 여기에는 상당한 관심이 요망된다(자녀교육).

③ 노동조합교육활동

가톨릭노동장년회에 소속된 회원의 조합활동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산별노조 중 9개 노조들이 적극 활동하고, 나머지 7개 노조들은 미온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회원들을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의 정기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1970년까지 22명의 지도자를 배출하였다. 조합활동 중에는 직장분회장에 출마하여 적정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조합운영을 민주화하기 위한 대화에 참여하는 등 직장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④ 주택조합활동

가톨릭노동장년회 회원들은 대부분 가난한 공장노동자들이었으므로 집이 없어 달동네에서 사글세로 살거나 형편이 좀 나아도 겨우 전세를 얻을 정도여서 밥은 굶지 않고 옷은 입을지라도 거주공간을 둘러싼 고통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공동으로 해결하면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1969년 11월에 주택조합을 발족하였다. 이 계획은 오랫동안 각 모임에서 보고된 자료를 토대로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약 7할 이상의 회원가정들이, 집이 없어 전세나 사글세를 면치 못하고, 이런 이유로 그들의 일상생활에 수많은 심각한 불편과 문제점이 드러나며, 특히 유아와 어린이보기, 교육문제, 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주택단지 기공식

정주부의 불편한 살림, 이웃 간의 복잡한 관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 그 결과 모든 회원들은 집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인간생활의 3대요소인 의식주에 대한 의의와 중대성을 느꼈다.

이들은 당시 한국정부가 시급히 해결하려는 주택문제 해결책에 호응하여 주택난을 해결치 못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 스스로의 역량으로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들은 집단생활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상부상조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궁극적인 복지사회건설에 이바지할 뜻으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을 위한 주택단지를 건립하였다.

사업계획은 먼저 서울특별시 일원에 대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신청회원의 부담으로 대지조성자금을 확보하며, 대지조성에 필요한 시공은 회원기술진을 통하여 조성하는데,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모든 것을 관장하기로 하였다. 건축설치는 주택은행의 설계도에 준하고, 건축비는 주택은행 용자와 신청회원 부담으로 하며, 시공은 회원기술진을 동원하고, 대지조성과 건축에서 모든 부담을 이행한 신청회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들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에 주택조합사무실을 개설하고, 대표 정남대(요셉), 총무 허옥(베네딕토), 감사 송성수(그레고리오), 회계 조전호(야고보), 서기 권봉미, 현장소장 윤상수(바오로) 등을 각각 임명하였다. 제1차 주택단지는 영등포구 독산동에

대지 1,101평을 구입하여 가입회원 18가정이 1970년 5월 1일에 기초작업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며, 곧이어 32가정이 2, 3차 주택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였다.

⑤ 약혼자교실 개설

가톨릭노동장년회는 1968년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가톨릭여학생관에서 가톨릭시보사와 ‘약혼자교실’을 공동으로 개설하여 청춘남녀들에게 건전한 교제와 약혼문화, 혼인준비과정을 교육하고, 11월 14~23일에 여학생관에서 제2회, 이듬해인 1969년에도 두 차례 약혼자교실을 개설하였다.¹⁹⁷⁾

⑥ 전국연합회 결성



전 미카엘 신부와 각 교구 대표

서울대교구에 이어 1967년에 수원·대전·대구·부산교구 팀이 각각 발족되어 1968년 8월 18일에 가톨릭노동장년회 총재 김수환 대주교, 박성중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지도신부, 일본 대표 4명, 국내 각 교구대표 13명과 30여 명의 옹서버들이 참석하여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연합회’를 결성하고, 회장 등의 임원을 선출하였다.¹⁹⁸⁾

가톨릭노동장년회 전국연합회는 활동지와 회합교재를 발행하였으며, 제2차 국제평의회에 대표 3명을 참석시키고, 한일지도자교류를 추진하였다. 이어 주교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교황청 인류복음화성성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1,000달러를 받기도 하였다.

197)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같은 보고서.

198) 가톨릭시보, 1968년 8월 25일, 3쪽; 한국가톨릭노동장년회, 같은 책, 143쪽.

2) 가톨릭농민회 분할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발족된 이후 회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였다. 당시는 노동조건이 성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시는 빈민활동, 농촌은 농민활동으로 전개하였다. 전주교구가 1960년 2월 11일에 농촌지역인 김제성당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시작한 이래 이웃 성당과 공소들로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신앙생활 양양, 도박 안 하기, 겨울철 새끼 꼬기 등의 생활교육과 농촌계몽운동, 국토봉사단 위로 등의 봉사활동이 주를 이루었다.¹⁹⁹⁾ 1961년 7월에 경기도 용인군 양지성당에 농촌청년들로 구성된 예비팀이 조직되었고, 다른 교구도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농촌계몽운동으로 전개하였다. 지도신부였던 박성중 신부 역시 1962년 3월 3일, 양지성당색션 방문 중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농촌과 그 가족들에게 적용시키는 데 전력하고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였다.²⁰⁰⁾

당시 우리나라는 아직 농업국가이어서 수많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였으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교재와 프로그램이 농촌청년에 적합하지 못하여 활동이 식어갔다. 농촌청년은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당시의 열악한 상태에서 분리된다면 농촌청년들이 발전하는 데



제7차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평의회

199) 그러나 농촌청년들의 이농으로 팀이 해체되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80~85쪽.

200) 경향잡지, 1962년 1월호, 45쪽.

어려움이 많을 것이므로 가톨릭노동청년회 내에 농촌부를 두었다가 농촌청년활동이 본격화하면 독립시키고자 하였다.²⁰¹⁾ 1964년 10월의 전국평의회가 가톨릭노동청년회 농촌청년부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여 농민회가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산하단체로 편성되어 초대 지도신부로 박성중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 지도신부, 초대회장에 박수길이 선출되어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에 사무실을 두었다.²⁰²⁾ 그리고 광주대교구, 전주교구가 자신들의 지역에 맞는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개발운동, 농촌계몽운동 등의 독특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분리된 뒤에도 3년 동안 현실여건 때문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산하기구로 존속하던 가톨릭농촌청년회(JAC)가 1966년 8월 28일에 개최된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평의회에서 농촌부를 독립시키기로 결의하여 10월 17일에 구미성당 구내강당에서 전주·수원·대전교구와 왜관감독대리구 신자 등 60여 명이 참석하여 창립되었다.²⁰³⁾

3) 이민정책

급속하게 진행되는 초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오늘날과 달리 1960년대는 급속한 인구증가가 가장 큰 사회문제였고, 정부는 이 문제를 무엇보다 가족계획이라는 인위적인 불임정책을 중심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복음정신에 위배되는 정부시책을 따를 수 없는 교회는 대안으로 이민정책을 제시하였다. 마침 가톨릭노동청년회가 1961년 제2차 국제평의회 원칙에 따라 브라질가톨릭노동청년회와 여러 차례 교섭하였는데, 브라질과 과라과이 등 남미국인들이 넓은 토지에 비해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민정책을 적극 펴고 있었다.

201) 20세기 초반부터 카다인 추기경이 확인한 원칙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자신들의 사도, 즉 노동자가 노동자들의 사도, 의사가 의사들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사회환경사도직 개념으로 『사십주년』에 나타난 교황권고이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천명하는 바이다(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20항 이하 참조).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 사회환경사도직이 확산·발전되기보다는 신심위주의 운동단체들이 더 큰 인기를 끌었고 발전하였다: 도요안 신부, 같은 증언 참조.

202) 가톨릭시보, 1964년 10월 18일, 1쪽. 1965년 10월에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전국평의회에서 한국은 가톨릭 인구가 적으며, 농촌사회나 도시사회의 분당과 공소관계로 가톨릭농촌청년회를 가톨릭노동청년회에서 분리하면 가톨릭활동이 약해지고, 조직 간의 대립과 지도자, 지도신부 문제 등이 대두되어 가톨릭농촌청년회를 가톨릭노동청년회 농촌부로 계속 계속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42쪽; 가톨릭시보, 1965년 9월 19일, 3쪽; 가톨릭시보, 1966년 8월 28일, 1쪽; 가톨릭시보, 1966년 9월 11일, 3쪽.

203) 가톨릭농촌청년회는 “새로운 방법과 생활로 농촌을 그리스도화하자”는 강령으로 1952년에 벨기에의 루벵에서 발족된 조직이다. 18세 이상 35세까지 남녀는 신앙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조직과 활동을 직장이나 성당 중심으로 하는 데 비해, 가톨릭농촌청년회는 마을단위로 본당·교구·전국·국제본부 순으로 조직된다: 가톨릭시보, 1966년 10월 23일, 3쪽.

브라질정부가 주교들을 통하여 한국인 농업가정을 초청하자 1964년 2월 27일에 도림동성당 주임 서 요셉(José M. Suárez, S.D.B., 1926~) 신부가 환경과 계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브라질을 방문하였다. 한편, 4월 25일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지도신부 박성종 신부가 브라질과 외국순회 방문결과를 보고하였다.

당시 브라질은 신자가정만 갈 수 있었고, 농사지을 땅을 받았지만 너무 덥고 모기가 많고 물도 부족하여 대부분 되돌아왔다.²⁰⁴⁾ 즉, 당시의 이민정책은 남미주교들의 요청과 한국교회의 결정에 따른 이민정책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남미국가들은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이 이민해 올 것을 기대하였으나, 한국인이민자들이 끝까지 농업에 종사할 목적으로 이민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²⁰⁵⁾

4) 해외파견 노동자

1960년대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부족한 일자리, 외환부족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 당시 서독은 3D업종기피 현상이 심해져 이를 해외인력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부족한 일자리와 절대적인 외환부족 문제를 젊은이들을 서독에 파견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으므로 간호사, 광부들이 서독에 들어갔다.²⁰⁶⁾

서독가톨릭노동청년회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예비교육을 광부들에게 해 줄 것을 요청하자, 서울대교구와 춘천교구가 이를 담당하였다. 우선 1964년에 파견된 서독광부 400명 가운데 10명을 접촉하고 지도하여²⁰⁷⁾ 회원 28명과 예비회원 50명을 양성하였다. 이들은 독일가톨릭노동청년회와 손잡고 그 곳에 유학하던 장익(張益, 요한, 1933~) 신

204) 한국살레시오회 왕 요셉 신부, 2006년 4월 15일자 증언.

205)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68쪽.

206) 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하고 싶었지만 자본이 없어 독일에 차관을 요청하였는데, 독일정부는 은행 지급보증을 요구하였다. 당시 우리나라는 너무도 가난하여 은행지급보증을 서 주는 나라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가 독일정부와 재교섭하여 결정된 것이 지급보증담보로 간호사 2천 명, 광부 5천 명을 파독(派獨)하기로 하였다. 즉, 그들의 3년치 임금을 은행에 담보로 예치하고 4천만 달러를 독일에서 차관으로 받은 것이다. 가난하였던 한 시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당시 파독간호사·광부들의 노동이 적게는 한 집안을 살렸으며, 크게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것을 반영하는 실례로는 1965~1970년대 독일에서 들어오는 송금액이 1965년 상품수출 총액의 10.5%를 차지하였음을 들 수 있다. 그저 안 먹고 안 쓰고 아껴서 서로 경쟁하듯이 더 많은 돈을 송금하려고 노력했던 그들의 삶이 우리의 어려웠던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허창수 엮음, 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1998, 13쪽.

207) 가톨릭시보, 1964년 10월 11일, 3쪽.



강원도 탄광촌 방문교육

부의 지도를 받아 한국광부들에게 다가가 신앙, 교양 등을 통하여 회원으로 양성하였다.²⁰⁸⁾ 이어 1965년에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임원들을 파견하여 광부 400명을 강원도 장성과 서울 수유리에서 교육하여 15명이 세례를 받고, 52명의 예비회원들이 장성성당 주임 이영섭(李永燮,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1923~) 신부 집전으로 입회선서를 하고 서독으로 파견되었다.²⁰⁹⁾ 이들은 서독가톨릭노동청년회와 관계하면서 에센과 왈숨에 팀을 발족하였다.²¹⁰⁾

6. 우리 사회의 신조

1967년 6월 30일에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우리 사회의 신조」라는 사목교서를 발표하였다. 이 사목교서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 가운데 사회, 경제 차원의 구체적인 사안들, 특히 노동문제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결실인 공의회문헌과 전통적인 사회교리의 핵심내용을 근거로 비판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와 자세들을 제시하였다. 남북분단과 공산주의자들의

208) 경향잡지, 1964년 10월호, 9쪽/통권 제56권, 493쪽.

209) 경향잡지, 1965년 1월호, 14쪽/통권57권 14쪽.

210) 이역만리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 활동을 하는 김영태(스테파노)의 편지를 통하여 당시 재독가톨릭노동청년회의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부록 3에 전문 수록.

재침(再侵)을 내세운 군사정권의 강압통치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저항으로 매우 불안한 정정(政情)이 계속되었으며, 한일회담 이후 일본에서 들어온 굴욕적인 차관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부흥을 꾀하였으나,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무역증진을 위한 저곡가, 저임금 정책으로 농민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도 어려워 사회불만은 늘 폭발 직전이었다.²¹¹⁾

이 교서는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제반상황을 실감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서로의 권리를 보장하며, 또한 자신과 가족과 사회와 하느님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권과 경제, 노동의 신성함, 분배문제, 공동체의 정의, 노동자들의 단체협약 등 여러 문제를 언급하였다. 실제로 이 성명서는 가톨릭교회가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발표한 최초의 성명서로, 그 동안 사회문제에 대하여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한국천주교회가 날로 심각해져 가는 사회상황 속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는 의무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²¹²⁾

이러한 시대흐름을 따라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생활과 환경개선, 계몽과 선교활동에 치중하던 종전의 모습에서 노동착취와 탄압극복, 사회정의실현, 즉 노동현장 안에서 복음을 적극 실현하는 자세로 전환하고자 하였다.²¹³⁾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이처럼 방향을 전환하는 데 직접 영향을 준 것은 1967년에 12월에 발생하여 1968년에 종결된 강화도심도직물사건이었다.²¹⁴⁾

211) 1960년대 후반의 한국사회와 경제는 제2차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으로 대변된다. 제1차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이 계획으로 국민총생산액은 1963년의 6,930억 원에서 1971년에 1조 5,618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여기에서 2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3년의 17.8%에서 1971년에 29.9%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1965년 6월에 조인된 한일협정의 결과로 도입된 일본자본과 그 해에 시작된 베트남과 병으로 얻은 전쟁특수라는 문제가 있었다. 동시대에 이농현상은 점차 심해졌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계속되는 저임금과 산업재해, 장시간의 노동으로 억압당하고 있었다. 비록 노동조합원은 1966년에 34만 명, 1968년에는 40만 명으로 증가하였지만, 그 조직률은 15%에 불과하여 노동자의 증가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97~99쪽. 부록 3에 전문 수록.

212) 서경돈·차기진·이경수·강중훈, 해방 이후 가톨릭교회의 인권운동,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05, 74쪽.

213) 남영근, 현대 한국천주교회와 가톨릭노동청년회활동, 한국교회사논문집 II, 1985, 1163쪽.

214) 서경돈·차기진·이경수·강중훈, 같은 책, 75쪽.

✻ 제4절 교회의 노동참여의 전기

1. 심도직물사태와 교회의 개입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폐막된 뒤인 1960년대 후반에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즉, 원주교구(1965)·마산교구(1966)·안동교구(1969) 등이 설정되고 1968년 4월에 마산교구장 김수환 주교가 서울대교구장이 되었으며, 김수환 대주교는 1969년 3월 28일에 추기경으로 서임되었다. 한편, 1968년부터 각 성당마다 주임신부의 자문기구인 ‘사목회’를 조직하고, ‘한국평신도사도직협의회’를 출범시켜 본당, 교구, 전국으로 평신도의 활동조직을 갖추었으며, ‘평신도 사도직의 날’을 제정하여 평신도도 주일 미사 때 강론하기 시작하였다.²¹⁵⁾

한국교회는 이처럼 외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가운데 스스로 쇄신하고 사회에 적극 참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1960년대 후반 이후 인간기본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교회의 태도는 1968년 초에 발생한 강화도 ‘심도직물사태’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국교회 주교단은 노사분규에 관한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매도될 때 『사회 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한다』는 공동사목교서를 반포하여 노동활동의 정당성을 천명하였으며, 이 사목교서는 한국교회가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나타낸 구체적인 징표이었다.

1) 사건의 발단

강화도는 인삼, 화문석 등의 특산물을 생산하고, 소형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와 개펄에서 조개 종류를 채취·양식하는 수산업종사자들이 있지만, 곡물중심의 농업인구가 대부분으로 늘 고질적인 가난에 시달려왔다. 그런데 이 땅의 산업화의 물결이 서해의 외진 땅 강화도까지 밀려와 육지

215)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따라 1965년 1월 1일부터 우리말로 미사를 봉헌하는 한편, 사제와 신자들이 마주보며 전례를 거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1966년에 『미사통상문』을 간행하고, 1967년에는 이제까지 문답에 의존하던 교리를 현대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가톨릭교리서』를 편찬하였다. 1968년에는 박해시대 이래 계속 사용하던 『천주성교공과』를 현대화하여 『가톨릭기도서』로 간행하였다. 1969년 1월에는 개신교와 신구약 성서를 공동으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1970년에 공동번역 신약성서, 1977년에 구약성서가 간행되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인 교회일치운동을 가시적으로 실천하였다.



전 미카엘 신부

와 교통수단을 아직 배에 의존하던 시기에 종업원이 1,200명이나 될 만큼 큰 공장인 심도직물을 비롯한 섬유공장들이 수십 개나 세워져 여기에서 생산되는 직물이 국내소비는 물론이고 막대한 양이 수출되어 이 땅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년 내내 농사지어 봐야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기 어려워 입을 하나라도 덜면 다행이라던 이 시기에 비록 박봉(薄俸)이었지만, 자식들이 정기적으로 타오는 월급은 가난한 부모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가난하고 못 배운 이 지방 소녀들이 공장에 취업하여 가족 생계를 도왔는데, 한참 열심히 공부하여야 할 어린 소녀들은 이웃집

언니 호적초본을 대신 내밀고 취직할 만큼 당시 강화에서 직물공장은 대단한 존재였다. 그래서 “강화에서 딸 셋만 있으면 부자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린 여자 노동자들이 많았다.²¹⁶⁾

직물공장에 다니던 이들은 지독한 가난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하루 12시간, 공휴일 전날의 야간조는 24시간을 밤낮으로 이어 일하는 등 장시간 중노동으로 폐결핵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이들이 받는 급여는 일한 것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다²¹⁷⁾. 그러나 오직 가난 때문에 공부도 못하고 일하여 가족과 나라의 살림에 큰 보탬이 되는 이들을 향해 들리는 소리는 격려와 위로가 아닌 “공장 걸레”라는 이들의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을 수 없는 모욕과 멸시였다. 그런데도 이들은 적극 대항하거나 이런 일이 거듭되지 않게 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의지도 없이 그저 일만 하였다.²¹⁸⁾

1965년 9월에 강화도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한 전 미카엘(Michael Bransfield, M.M., 全, 1929~1989) 신부²¹⁹⁾가 공장소녀들의 이러한 참상을 목격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의

216) 미카엘 모임, 전(미카엘) 神父 추모집 우리들의 친구 전(미카엘) 神父, 대구(제일기획인쇄사), 1997, 63쪽.

217) 이 소녀들은 무의촌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하여 파터슨(Patrick Patterson, M.M., 파 파트리치오) 신부가 1965년 3월에 설립한 ‘그리스도왕의원’의 단골 손님들이었다. 폐결핵을 앓는 소녀에게 필리핀 의사수녀가 달걀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하였으나,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여도 계란 한 알 사 먹을 수 없을 만큼 극도로 궁핍하였다: 이옥수, 2005년 12월 16일자 증언.

218) 송옥자, 2005년 10월 11일자 증언; 김명순, 2006년 1월 25일자 증언; 이옥수, 같은 증언.

219) 1929년 8월 11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1948년에 예수회가 운영하는 이나시오대학에 입학하여 노틀담대학교 상경대학에 편입한 뒤 1951년에 졸업하였다. 사제성소를 이룩하기 위하여 1953년에 미국 메리놀외방선교



한중훈 신부와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 대표들

본당사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제임을 깨달았다. 무엇보다 공장직공들에게 자신들이 하느님의 모상인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자신들이 하는 노동이 인간의 숭고한 행위이며, 업무 그리고 사용자와 자신들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권리를 명확히 깨달아 자신들이 누려야 할 가치를 되찾아주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였던 것이다.²²⁰⁾

전 미카엘 신부는 이 문제를 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회장이던 송옥자(고레티)를 초청하였다. 송옥자는 처음에 강화를 정기적으로 오가다 나중에는 강화에 눌러앉아 직물공장 여직공들을 다각적으로 지도하였다. 초기회원들은 그리스도왕의원의 간호사들인 송화자(헬레나), 김화숙(바르바라), 장월주(사비나), 심도직물 팀의 이옥수(세실리아), 윤기준(베아타) 그리고 이화직물과 상호직물의 노동자들이었는데, 마침내 1965년 11월 23일에 가톨릭노동청년회 여자에비팀을 발족하고, 1966년 8월 14일에

회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하고, 1959년에 사제가 되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인천교구 송림동성당 보좌신부로 부임하였다. 1년 뒤인 1961년부터 1964년 4월까지 김포성당 주임신부로 역임하고, 1965년 9월에 강화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였다. 1966년 4월에 남산리에 ‘그리스도왕농장’을 개설하여 공소와 극빈가정에 신품종 돼지를 나누어주고, 경운기, 탈곡기, 양수기 등을 무료로 분배하여 농촌소득증대를 도와주었으며, 의료지원과 영농기술지원에 힘썼다. 1969년 5월에 강화성당을 떠나 간장병이 심해지자 1970년에 미국으로 돌아가 간 절제수술을 받고, ‘밀워키 개발의 집’(Milwaukee Development House) 영성지도 신부 겸 지부장으로 일하다 1973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가톨릭노동청년회 서울대교구 북부연합회 지도신부, 1974년 3월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지도신부로 활동하였으며, 1984년 2월 13일에 신설된 인천교구 연안성당 주임신부로 부임하여 사목하다가 1989년 11월 14일에 간암으로 선종하였다. 미카엘 모임, 같은 책; 한국가톨릭대사전 1, 278쪽 등에서 해당사항을 발췌 요약하였음. 이하 전 미카엘 신부로 명기함: 필자 주.

- 220) “미국에서 노동조합이 생기기 이전보다 이곳의 조건은 더 열악하다. 특히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1주일에 7일 전부, 하루 12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한 달에 그들이 쉴 수 있는 날은 고작 이틀뿐이다. 하루 24시간 노동도 여기서는 비상식적인 게 아니고 폐결핵과 과로 또한 흔한 증상이다. ... 이곳 한 공장에서는 뉴욕의 거대한 시장에 100만 달러 상당의 실크 제품을 팔고 있다. 이 옷을 입는 사람들이 이곳의 상황을 본다면, 한국에서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어린 소녀들을 돌보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은 코피를 흘리는 일이 잦고 끊임없이 기침을 해대며 몸무게도 자꾸 줄어든다. 얼굴은 마치 도버헤협의 꺾이지는 벼랑처럼 보일 때도 있고 기계 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도 다반사이다. 그 아이들이 집에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어두는 부모들도 그런 것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하다.”(전 미카엘 신부가 미국 메리놀의 방선교회 본부에 보낸 편지: 미카엘 모임, 같은 책, 67쪽)



송옥자

12명이 회원으로 선서하였다. 계속 회원들이 늘어나 주간조는 일과가 끝나는 저녁, 야간조는 아침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육에 참가한 덕분에 강화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이 때 전 미카엘 신부는 지도신부로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적 사회정의의 실현하여야 할 회원들이라는 사실을 역설하고, 역대 교황들이 반포한 사회회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노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왕의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메리놀수녀회의 수녀들도 집회장소를 제공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을 통해 나오는 교회의 가르침을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에게 적극 전해 주었다. 그러므로 당시 어린 회원들은 학교교육은 제대로 못 받았지만,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신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등 교회의 사회교리를 투철하게 인식하고 있었다.²²¹⁾ 수녀들은 이들의 영성을 풍요롭게 해 주면서도 수업을 가르치는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리는 여유까지 가르쳤다.²²²⁾



221) 당시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만나본 지난날 어리고 약하기만 했던 대부분의 회원들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가르침을 학자들처럼 체계적으로 정리하지는 못하지만, 40여 년이 지난 오늘날도 가톨릭노동청년회 교육을 통하여 받아들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필자 주.

222) 이옥수, 같은 증언; 김명순, 같은 증언.

송옥자와 본당신부, 수녀들의 다각적인 지도를 통하여 건전한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으로 성장하던 직물공장 노동자들이 가톨릭노동청년회 회합을 통하여 자신들이 기계와 노예처럼 취급됨을 관찰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표현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첫 단계임을 판단하였다. 그래서 공장 내의 노동자들과 함께 1967년 2월 21일에 전국섬유노조 조직부장을 초청하여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이 결성됨으로써 받는 혜택’, ‘노조법규’ 등을 수강한 뒤 섬유노조 중앙본부의 협조를 얻어 1967년 3월 4일에 심도직물 종업원 13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²²³⁾

회원들은 1967년 5월 9일에 심도직물주식회사 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노조가입원서를 받아 5월 14일에 노조결성대회를 소집하였지만, 사용자의 이해부족과 탄압 때문에 공장구내에서 결성대회를 치를 수 없었다. 부득이 장소를 강화성당 구내의 그리스도왕의원 2층 식당으로 옮겨 약 300명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법적 절차를 따라 전국섬유노조 심도직물분회(분회장 함덕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1967년 7월 22일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불법단체 운운하면서 단체협약체결을 거부하고, 근무시간에 개인을 불러 노조탈퇴원서를 강요하면서 분회장 함덕주에게 압력을 가하여 휴직하게 함으로써 분회장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한 뒤 확대회의를 열어 사용자가 요구하는 박부양을 분회장으로 선출하고 조합원을 900여 명으로 늘렸다.²²⁴⁾

1967년 11월 4일에 심도직물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때의 단체협약 내용은 기존의 심도직물회사의 취업규칙을 이행하는 정도였다. 그 뒤 회사 요구로 분회장으로 선출된 박부양은 기업주 편이 아닌 노조원들의 참된 대표로 일하겠다고 마음을 바꾸었다. 즉, 박부양 분회장은 나중에 정당한 노동자들의 권익과 정의를 위하여 싸우는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과 전 미카엘 신부의 지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도직물에 이어 상호직물도 1967년 12월 18일에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고용주가 노조를 해체시키기 위하여 노조활동을 제지하고, 12월에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 2명을 불법으로 해고하였으며, 1967년 12월 30일에 최항준 등 천주교신자 6명을 포함한 상호직물 노조분회장 등 간부 14명을 근무태만이라는 이유로 해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근무태만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노조를 결성하려고 준비한 천주교신자이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었다. 1967년

223) 이전에도 강화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신념 부족, 도민의 봉건적 사회관념, 노동조합을 불순활동으로 보는 것과 같은 나쁜 여건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여 이 때의 결성준비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쪽.

224) 이하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전국본부, 강화군JOC회원고용거부사건진상보고서, 1968년 4월 15일자를 발췌·요약하고 송옥자·이옥수·김명순 등의 같은 증언 등을 참조하여 기술하였음: 필자 주.

12월 30일에 이화직물도 정영숙 등 2명의 천주교 신자를 해고하였다.²²⁵⁾

1968년 1월 4일에 고용주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박부양을 해고하고, 1968년 1월 6일에 회사간부들을 총동원하여 종업원들을 회사강당에 집결시켜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김영서를 분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강요하고 김영서를 분회장으로 선포하였다. 1968년 1월 7일에 노조원들이 박부양 분회장의 해고진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장 내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해고된 박부양 분회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사용주가 거부하여 조합원들이 회사 밖에서 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강화성당에 장소를 제공해 줄 것을 애원하였다.²²⁶⁾

이에 대하여 전 미카엘 신부가 성당건물의 일부인 한식가옥강당(심도직물 공장 정면에 위치)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노조는 구두(口頭)로 경찰서에 집회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날 박은양(전국섬유노조간부)과 박부양 분회장, 그리고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장소가 비좁아 강당 뜰에서 참석하는 노조원들도 있었다. 회의 초기부터 참석하였던 경찰이 도중에 퇴장하였다. 잠시 뒤 뜰에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지적하며 하늘이 보이는 곳은 옥외인데, 48시간 전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불법집회라고 하면서 경찰관 6, 7명이 출동하여 강제로 해산을 명하고, 이 집회의 신청자도 아닌 천주교신자 5명을 경찰서로 연행하였다. 이후 1주일 동안 경찰이 거의 천주교신자들만 골라 연인원 30명을 소환하여 심문[喚問]하였다.²²⁷⁾

같은 날 오전에 심도직물주식회사의 실제소유자인 김재소 공화당 국회의원, 사장 김재기, 강화경찰서장, 강화경찰서 정보계장 등이 사제관으로 들어와 주일미사를 집전하는 전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가 미사가 끝난 뒤 전 신부를 응접실에 불러 폭언하였다. 이들은 노조를 선동하고 기업운영에 간섭하며 무식한 노동자들에게 불온사상을 주입시켰다는 등 공장의 노사문제에 대한 책임 전부를 전 신부에게 전가(轉嫁)하고 반공법 제4조를 적용하여 입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들이 2시간 동안 전 신부를 위협하여 전 신부는 다음 미사에 강론하지 못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 심도직물회사가 전 신부의 간섭 때문에 공장을 무기한 휴업한다는 공고문을 공장정문에 게시하였다. 또한 심도직물회사가 1968년 1월 8일에 강화도에 있는 21개 직물회사들과 함께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은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앞으로는 고용하지 아니한다는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연명(連名)으로 날인(捺印)하여 채택하고 관계요로에 발송하였다.

1968년 1월 8일 오전 10시경에 국회의원 김재소가 종업원 350여 명을 회사강당에 불러모

225) 가톨릭시보, 1968년 1월 28일, 2쪽.

226) 위와 같음.

227) 위와 같음.

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노동조합 때문에 문을 닫겠다. 너희들은 노동조합을 깨뜨리고 일을 하겠는가? 혹은 노동조합을 계속하겠는가를 택하라. 노동조합과 천주교 전 신부가 너희들 봉급을 주느냐? 무엇 때문에 천주교회에 몰려다니며 노동조합을 하느냐?”

1968년 1월 10일에 심도직물회사의 사주(使曠)로 구성된 노조수습대책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심도직물주식회사 공장 앞에 모인 약 150명의 노동자들이 전 미카엘 신부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성당까지 약 150미터를 시위하였다. 그 가운데 약 50여 명이 성당구내로 들어가 사제관을 포위하여 20여 명의 대표단이 사제관 응접실까지 들어와 전 신부를 둘러싸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전 신부에게 묻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어 천주교신자 5명을 회사에서 축출하겠다는 등 7개의 결의문을 낭독한 뒤, 전 신부에게 책임을 지라는 등 3개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2시간 동안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²²⁸⁾

같은 날 오후에 강화경찰서 정보계장이 전 신부의 신변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전 미카엘 신부를 강화경찰서로 연행하였으며, 강화경찰서장이 전 미카엘 신부를 2시간 동안이나 설득하고, 다시 전 미카엘 신부를 심도직물주식회사 사장실로 데리고가 국회의원 김재소와 억지로 대면하게 하여 경찰간부, 회사간부 등이 전 미카엘 신부와 대화하는 중에 한국어에 서툰다는 약점을 이용하여 이번 사태에 대한 전적인 사과를 교묘하게 유도하였다. 즉, “지역사회 향토개발과 계몽을 위하여 애써 온 사목활동이 선동이라는 오해를 받았다면 사과한다.”는 등과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전 미카엘 신부가 모든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였다고 역선전하였다.

1968년 1월 11일에 심도직물주식회사가 종업원 약 150명을 2층 강당에 모이게 하고, 지금까지 노조에 적극 협력한 자 90명(50여 명의 천주교신자 전부와 가족 중에 천주교신자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시는 노조를 비합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노조)와 시말서(회사)를 강제로 받았다.

228) 당시 강화성당 주변은 일방적으로 업주의 편을 드는 경찰로부터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여 오랫동안 무질서 상태에 있었다. 주민들 대부분이 전 미카엘 신부나 수녀들,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인 어린 여직공들의 말보다는 업주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위협에만 귀를 기울였다. 더구나 누구보다 사목자와 수도자들의 양심과 연행을 절대 신뢰하여야 할 본당회장을 비롯한 어른들과 신자여직공들의 부모들도 강화지역의 경제상황이 나빠지고 딸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만을 두려워하여 본당 주임신부나 수녀들을 탓하면서 등을 돌렸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업주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전혀 거리끼지 않고 수녀원에 돌을 던지면서 갖은 욕설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자,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을 지도하던 송옥자와 대부분의 수녀들이 수녀원 밖을 한 발자국도 못 나갔다. 그러자 필리핀의사인 코라스 수녀가 이들을 향해 “너희를 그 동안 정성을 다하여 치료도 해 주고,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돌보면서 잘해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하여 일하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못되게 하느냐?”고 호통을 쳤으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오랫동안 계속 행패를 부리며 업주들의 뜻에 굴복할 것을 강요하였다. 송옥자, 같은 증언; 이옥수, 같은 증언; 김명순, 같은 증언.

2) 교회의 개입



나길모 주교와 강화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

물주식회사는 전 미카엘 신부가 사과하였으므로 조업을 재개한다고 하면서 무기 휴업하던 단 공장을 4일 만에 다시 열었다.²³⁰⁾ 경찰은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에게 전 미카엘 신부를 강화도에서 떠나게 할 것을 강요하였으나, 나길모 주교가 이를 강력히 거절하였다. 1968년 1월 13일에 이러한 사태가 알려지자 인천교구는 관계자들이 모여 진상을 조사하기로 하고 ‘강화군 천주교신자 고용거부사건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나길모 주교는 전국주교들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전국주교단의 이름으로 각 언론기관에 보도하고 정부당국에도 호소할 것을 부탁하였다.²³¹⁾

전국섬유노조중앙위원회도 1968년 1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심도직물 분규사태에 직접 개입하여 부당해고된 박부양을 본래의 직책으로 복직시키라는 등 4개 항목의 결의를 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정식으로 쟁의에 돌입하겠다”

229) 중앙일보, 1968년 1월 13일 토요일, 인천판 4쪽.

230) 중앙일보, 1968년 1월 15일 월요일, 인천판 4쪽.

231) 明洞天主敎會, 明洞天主敎會 二百年史第1輯 韓國가톨릭人權運動史, 明洞天主敎會, 1984, 50~51쪽. 당시 전 미카엘 신부는 “오늘의 종교는 사회정의의 구현이란 점에서 보더라도 많은 현실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위선자란 낙인을 받기 쉽다. 밤낮 24시간 노동한 뒤 우리를 찾아온 신자에게 무슨 하느님의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그 교우에게 신부로서 인간에 대한 천주님의 사랑은 논하게 된다면, 적어도 나는 20세기에 살아있는 올바른 성직자가 될 기본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선자일 것이다. 우리 종교인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정의와 평화’의 편에 계시고 이 사회정의를 정리하고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의의 사람들과 다 함께 서로 의논하고 협력해서 개인의 발전과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라고 자신의 신념을 피력하였다. 가톨릭시보, 1968년 1월 28일, 2쪽.

사태가 전 미카엘 신부, 가톨릭노동청년회, 노동조합 등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오도(誤導)되고, 해고된 직원들이 생계의 위협마저 받자 교회는 1968년 1월 11일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와 천주교 인천교구대표 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다.²²⁹⁾

1968년 1월 12일에 심도직

는 공문을 1월 23일자로 발송하였다.²³²⁾ 한편, 1968년 1월 18일에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가 특별 메시지를 발표하였다.²³³⁾

1968년 1월 20일에 강화군 천주교신자 고용거부사건 수습대책위원회도 강화군 내 21개 직물업자들이 불법·부당하게 결의한 7개항을 즉각 취소하고, 해고한 종업원을 무조건 즉각 복직시키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교의 자유를 침해한 업자들이 공개사과하고 사목의 자유를 보장하며, 천주교 신자들에게 양심과 신앙에 따라 그리스도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³⁴⁾

문제가 예상 밖으로 확대되자 경기도경찰국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이종학 경기도경찰국장의 주선으로 1968년 1월 21일에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 강의선 가톨릭노동청년회 인천교구 지도신부, 이진엽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본부 회장, 제 요셉 등과 김재소 의원, 윤조영 강화경찰서장, 임연석 삼호직물사장, 이상기 심도직물부사장 등이 만나 수습대책을 논의하였다. 나길모 주교가 이 자리에서 김재소 의원 등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1. 전 미카엘 신부의 명예훼손 부분(사상, 기업 간섭[공시]) - 서장의 협박 조합조직 가담 전 미카엘 신부 사과부분-각서(시말서) 무조건 철회
2. 지오씨 불법단체시인 및 탄압
3. 1, 2항에 대한 사과문은 협상일부터 3일 이내에 문안작성 양측 대표단이 검토한다.
4. 사과문 검토 즉시 중앙 일간지(한국, 조선, 중앙, 경기매일)에 발표.
5. 같은 내용을 3,000매 등사하여 강화도민에게 교회측이 지정한 사람에게 분포한다.
6. 같은 내용의 사과문을 붓글씨로 써서(전지 크기로) 심도직물 정문, 성당 게시판, 각 공소 게시판에 부착한다.²³⁵⁾

232) 공문내용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항: 분규 중에 있는 심도직물분회 등 여러 개 노조활동을 돕기 위하여 한국노총에 지원을 요청한다. 제10항: ① 해고된 분회장(박부양)을 본래의 직책으로 복귀시키라. ② 쟁의에 돌입할 경우 전국본부에서 쟁의기금을 조달한다. ③ 분회장이 구제될 때까지 생활비를 본부에서 지출한다. 제11항: 심도직물조합원 이종성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 12항: ① 심도직물분회 임원 중에서 반동행위를 한 자는 그 징계권을 중앙집행부에 일임한다. ② 박부양 분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회의 의결사항은 이를 일체 무효로 간주한다. 그런데 이번에 제명처분을 받은 이종성은 전에 섬유연맹위원장을 지낸 사람으로 심도직물에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받은 것이다: 가톨릭시보 1968년 2월 4일 3쪽.

233) 부록 3에 전문 수록.

234) 1968년 1월 21일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가톨릭시보, 1968년 1월 28일, 3쪽. 부록 3에 전문 수록.

235) 위와 같음.

교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강화직물협회는 1월 22일에 해명서를 보내 자신들은 결코 종교자유를 억압하거나 가톨릭노동청년회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이를 오해하여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강변하였다.²³⁶⁾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직물업자들이 사건을 호도(糊塗)하자, 1968년 1월 28일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가 전국임시평의회를 소집하여 심도직물사태를 논의하고 한국천주교주교단에 강화도에서 일어난 사태가 발전도상에 처한 한국교회의 시련이요 진통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사목방향에 따라 노동계의 제일선에서 분투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회원들을 적극 성원해 주기를 요청하는 호소문과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1968년 1월 29일에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이 거둔 의견금을 강화노동자들에게 전달하였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총재주교인 김수환 마산교구장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화를 방문하였다. 김수환 주교는 기업주들이 노조활동을 방해하려고 폭력배를 동원한 흔적을 보면서 당시의 사태가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를 짓밟는 노조탄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부당국자들이 농촌희생을 전제로 한 산업화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어린 여성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과, 외부와 격리된 섬이기 때문에 기업주의 횡포가 더 심한 강화도의 특성이 잘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수환 주교가 개신교 조승혁 목사와 성공회 리처드 신부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다가 잠시 산보하는 중에 기업주들이 보낸 폭력배 10여 명에게 욕설을 듣고 협박을 받으면서 ‘우리에게도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데, 힘없는 어린 여직공들에게는 얼마나 못된 행패를 부릴까?’라고 생각하며 그 날 미사에서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에게 “억눌리고 고통 받는 노동자들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진 연약한 소녀들과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에게 존경을 표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합니다.”라며 위로하고 격려하였다.²³⁷⁾

한편, 인천교구는 이 사건에 항의하는 서한을 심도직물에 보냈고, 강화군수습대책위원회도 성명서를 발표하여 천주교신자들에 대한 탄압과 부당해고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1968년 2월 5일에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가 두 번째로 전국주교들에게 서신을 보내자, 주교단은 2월 8일에 교황대사관 공관에서 임시주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때 김수환 주교의 보고를 들은 주

236) 부록 3에 전문 수록.

237) 추기경 김수환 이야기 25.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 평화신문 제748호/2003. 11. 16.

교단은 강화성당 신부와 신자들의 노동자들을 위한 모든 활동을 지지하면서 인간의 기본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수호되어야 하며, 기업주들의 부당한 억압이나 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천주교신자 고용거부 등 7개 항목의 직물업자협회 결의문이나 김재소 국회의원과 경찰서장이 정당한 노동운동을 ‘불온사상’이라고 운위한 것은 자유·공산 두 진영을 갈라놓은 이념의 상치(相馳)를 초래한 현실적 비극에 비추어 황당무계한 처사였기 때문이다.

강화성당이나 가톨릭노동청년회의 모든 활동이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처사라고 확언한 주교단은 성명서에서 사회활동의 구성 원천이며 주체인 인간, 즉 기업주나 노동자는 동등한 존엄성을 지녔다고 밝혔다.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 차별 없이 취업의 기회균등 권리를 가지며,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키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과 가족, 사회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 생활이 향상되지 않는 국가의 경제부흥은 망상이며 승공(勝共)도 없다고 한 주교들은 자본의 횡포가 공산주의자의 공격의 초점임을 상기시키고, 정부는 모든 권익을 보장하여 약육강식의 사회적 폐단을 제거하여 국가발전을 촉구하고 사회각계가 한국의 노사관계개선에 협조할 것을 호소했다. 이 성명서는 언론매체에 게재되었으며²³⁸⁾, 한국교회가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발표한 최초의 성명서로서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문서로 평가된다.²³⁹⁾

이 날 오후에 서울대교구장 서리 윤공회 주교가 주교단을 대표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주가 종교적 이유로 피고용인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히면서 해고한 8명을 즉각 복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김재기 사장과 강화도 경찰서장, 정보계장 등이 지난 1월 17일에 강화성당에서 주일 미사를 집전하는 전 미카엘 신부를 불러내 “반공법 위반으로 입건하겠다.”고 위협한 일이 있음을 밝히고 “성직자를 용공분자로 취급한 사건에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사건이 전국의 건전한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이의 정당한 해결을 위해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²⁴⁰⁾ 원주교구장 지학순 주교는 주교회의 성명서와는 별도로 전 미카엘 신부에게 격려서한을 보내고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용감히 싸워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같은 날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강화도 천주교신자 고용거부사건 수습대책 위원회가 강

238) 가톨릭시보, 1968년 2월 11일, 1쪽; 가톨릭시보, 1968년 2월 18일, 1쪽.

239)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21쪽. 부록 3에 전문 수록.

240) 경향신문, 1968년 2월 9일 금요일, 3쪽; 동아일보, 1968년 2월 9일 금요일, 3쪽; 대한일보, 1968년 2월 9일 금요일; 서울신문, 1968년 2월 9일 금요일.

화직물업자협의회와 경찰서장, 김재소 의원에게 이들의 해명서에 대한 반박문을 발송하였다. 강화도 심도직물 사건에 대하여 주요언론들이 사건보도와 사실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종교를 이유로 불법하게 해고한 노동자들을 복직시킬 것을 거듭 요구하였다.²⁴¹⁾

3) 사건의 마무리



심도직물사태 주역들과 용동진 신부

예상 밖으로 교회가 강력하게 저항하고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하자, 1968년 2월 15일에 강화도 직물업자들 가운데 상호직물 대표가 전국섬유노조와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합의하고 협정서를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갔다. 1968년 2월 16일에 강화직물업자협의회가 한국

일보, 조선일보에 해명서를 발표하고, 강화성당 전 미카엘 신부의 활동을 불순한 것으로 오인한 자신들의 경솔한 처사를 시인·사과했다. 이들은 이어 1월 8일에 결의한 ‘천주교신자고용 거부’ 등 7개 항목의 결의문을 철회하고 해고된 노동자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상호직물이 경기도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아들여 2월 25일까지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전국섬유노조와 합의하고²⁴²⁾, 21개 직물공장 대표들이 지상을 통해 “전 미카엘 신부가 노조결성을 선동하고 노동자들에게 불온한 사상을 불어넣는다 운운한 것은 전 미카엘 신부를 오해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사과하여 일단 무마되었다. 그러나 박부양 심도직물분회장 문제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기댈 수밖에 없고, 복직되기로 한 상호직물의 최항준 등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노조는 키우겠다.”고 결의한 것처럼 사용자가 여론에 밀려 승복한 것같이 보일 뿐,

241) 중앙일보, 1968년 2월 10일, 사설. 조선일보, 1968년 2월 15일, 사설; 한국일보, 1968년 2월 15일, 2쪽 기사도 비슷한 내용이다.

242) 조선일보, 1968년 2월 20일 화요일, 3쪽.

실제는 노조를 탄압하였다.²⁴³⁾ 인천교구장 나길모 주교가 김재소 의원에게 항의서신을 발송하고, 주교단도 교회의 사명, 인간의 존엄성, 기회균등, 결사의 자유, 정당한 보수, 사회정의, 국가의 의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정의와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²⁴⁴⁾

1968년 2월 25일에 상호직물 해고자 14명 가운데 13명만 복직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와 강화도 천주교신자 고용거부사건 수습대책위원회가 복직이 안 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1968년 2월 29일에 강화도 천주교신자 고용거부사건 수습대책 위원회와 강화사건 가톨릭노동청년회 대책위원회가 2월 16일자 강화직물업자협의회회의의 해명서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자 2월 말에 해고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복직되고, 3월에 나머지 12명,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부양 분회장도 7월에 복직됨으로써 마무리되었다.²⁴⁵⁾

이 사건은 직물회사 내부의 노사투쟁으로 그치지 않았다. 교회가 사회정의와 인권문제에 깊이 참여하였으며, 노동자들의 인권을 회복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어린 여성회원들과 성직자, 수도자, 교회지도자들이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이들과 투쟁할 때 전국의 신자들은 기도하고 물질을 지원하여 이들을 지지하고 격려했다. 강화도사건은 그 기간 중 69회나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으며, 교황 바오로 6세가 국무성장관을 통하여 한국주교단에게 격려와 치하의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²⁴⁶⁾ 이 사건을 통하여 가톨릭교회는 소외계층에 대한 생존권의 위협을 명확히 인식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구현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전개된 가톨릭교회의 노동활동은 물론 교회의 민주화와 인권운동, 현실참여와 문제해결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2. 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 제10주년 기념행사

1968년은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 제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5월 1일에 대구에서 노동자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고, 5월 22~23일과 6월 3~5일 두 차례 동안 ‘노동문제와 교회’라는 주제로 ‘JOC 창립 1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243) 경향신문, 1968년 2월 21일.

244) 부록 3에 전문 수록.

245) 가톨릭시보, 1968년 3월 31일, 3쪽; 7월 14일, 3쪽.

246)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56쪽.



가톨릭노동청년회 10주년 행사

아시아지역 지도신부인 스탠 (Stan) 신부, 박성종 전국본부 지도신부, 탁희준 성균관대학교 노동문제교육원장, 인천교구 강화성당 주임 전 미카엘 신부 등이 ‘JOC의 사명’, ‘평신도의 사명’, ‘한국의 노동문제’ 등의 주제를 강의하였다. 이 세미나는 가톨릭노동청년회 전국평의회, 훈련회의 방향정립 노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10년을 총정리하였다.²⁴⁷⁾

지난 10년 동안 크게 발전한 가톨릭노동청년회 창립 10주년 행사를 1968년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성대하게 거행하였다.²⁴⁸⁾ 10월 19일에 서울대교구 도림동성당 애전고등공민학교에서 개막식을 거행하고, 회원들의 활동체험에 중점을 둔 웅변대회를 개최하였다. 14개 교구 대표연사들이 차례로 등단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공헌해야 할 바를 역설하였다. 이어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10년 동안의 왕성한 활동을 기억하며, 발전할 것을 간구하는 미사와 ‘사회발전과 노동자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그리고 합창·독창·무언극·연극·농악 등 다양한 장르로 공연한 교구별 특기자랑을 통하여 각 교구의 특색을 드러냈다. 밤에는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이 애전고등공민학교 강당에서 자신의 꿈과 활동경험들을 나누었다.²⁴⁹⁾

둘째 날 행사는 진명여자고등학교 삼일당에서 계속되었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총재 김수환 대주교, 박성종 전국 지도신부, 각 교구 지도신부, 관계인사들, 빨간 넥타이를 매고 하얀 스카프를 쓴 11개 교구의 약 1,500여 회원들이 참석하였다. 대구대교구곽정돈(요셉)이 낭독

247)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54쪽; 明洞天主敎會, 같은 책, 59쪽.

248) 창립 제10주년 기념행사는 애초 8월 25~26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노동청년들을 합일정신과 우정으로 이끌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노동자들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대(對) 사회에 시위하며, 가톨릭노동청년회 정신을 널리 보급하고 노동자들을 계몽키로 하고, 행사는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세미나와 연예 프로로서 대중을 계몽하고, 경비는 약 50만 원 정도로 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예정보다 늦어졌다: 가톨릭시보, 1968년 2월 4일, 3쪽.

249) 서울대교구 남부지구 지도신부인 도요안 도림동성당 보좌신부가 미8군으로부터 슬리핑백을 얻어 함께 잘 수 있도록 하였다: 도요안 신부, 2007년 1월 30일자 증언.



이진엽

한 “가톨릭 노동청년들은 그리스도적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청년노동자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성실하게 책임을 수행하여 생산성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노사쌍방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하려는 공동선의 추구에 계속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회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을 다짐했다.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이진엽(요셉) 전국회장이 기념사를 통하여 “가톨릭노동청년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정의구현에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총재주교인 김수환 대주교가 격려사로 “가톨릭

노동청년들의 활동이 한국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인류전체의 진보를 위하는 것이 되어야겠다.”고 말하면서 “가톨릭노동청년들은 사회 안에 그리스도로서 나타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양숙(마리아나) 전국여자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공로표창과 모범표창을 하였으며, 기념식 이후 삼일당에 마련된 특설제대에서 한국의 노동자와 세계평화를 위한 미사를 총재주교와 14명의 사제가 공동으로 집전하였다.

이어 열린 노동문화제는 박성중 전국 지도신부가 착상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이 가운데 윤석운이 연출한 표정무용 ‘노동자의 구원의 행렬’은 농촌과 도시노동자들의 비참한 모습을 표현하였고, 노동자의 구원의 길은 우정과 협력, 믿음의 길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미마을 회원인 김대현이 만들고 회원들이 출연한 연극 ‘용, 황톳불에 떨어지다’와 코미디, 독창 등 각종 프로그램으로 창립 제10주년 기념행사를 모두 마쳤다.²⁵⁰⁾

3. 교회일치운동

강화도사건은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개신교에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제반문제에 근본적인 관심을 촉구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여러 분야에서 교회일치운동에 적극 나섰던 한국교회는 노동과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개신교와 함께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²⁵¹⁾ 이러한 노력이 결실되어 1969년 10월 24일에 가톨릭과 개신교가 서울시민회관에서 노동문제 대강

250)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53~154쪽; 가톨릭시보, 1968년 10월 27일, 3쪽.

251)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는 제2대 서울대교구연합회 회장으로 유럽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실무자로 일한 천정자(바르바라)의 활약이 밑받침이 되었다. 천정자, 2006년 3월 21일자 증언.

연회를 공동주최하고 교회가 노동자의 인권옹호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사회발전과 노동문제’를 주제로 양 교회 산하 10여 개 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이 역사적인 모임에 연사로 나선 김수환 추기경(노동문제를 이렇게 본다), 강원룡 목사(근로자의 사명), 유홍렬 박사(근로자의 역사적 위치), 주요한 시인(기업인에게 이렇게 말한다)은 한결같이 인간의 존엄성을 되찾아 사회발전에 노동대중의 참여를 돕는 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교회의 시대적 사명임을 천명하고 5개 항목에 달하는 결의사항을 채택했다. 이 날 강연회를 마치고 주최단 전원과 참석한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회발전과정에서 노동자의 사명이 중대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가톨릭·개신교 공동 결의문

- ① 근로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사회여론조성에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② 건전한 노동운동 육성을 위한 지도자 양성에 적극 협력하며 지원한다.
- ③ 우리는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노동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기업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적극 노력한다
- ④ 우리는 산업발전의 주체인 노동자의 존엄성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신적 기초형성에 공헌한다.
- ⑤ 우리는 민주적인 기업인을 적극 지원하여 기업발전과 민주사회건설에 교회적 공헌을 할 것을 다짐한다.²⁵²⁾

1960년대는 정치·경제 상황이 급격히 변화였으며, 한국교회는 정식으로 교계제도가 설정되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따라 개혁하면서 사회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등 변화와 성장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읽으며 역대교황들의 회칙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바탕으로 하는 교회의 사회교리를 따라 노동문제에 개입하고 정당한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를 통하여 교회의 노동관을 이 사회에 고취시키며 노동자의 권익과 인권신장을 위한 성과를 드러내고, 강화도심도 직물사태라는 사건을 통하여 주교단이 전면에서 나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252) 가톨릭시보, 1969년 11월 2일, 2~3쪽.

로 노동의 숭고함,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당위성 등을 천명하였다.

1960년대의 가톨릭노동청년회는 자신의 신원과 본질을 확인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갔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을 따라 평신도사도직과 가톨릭노동청년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회원의 자격규정, 가톨릭노동청년회 7개 운동의 대상과 범위규정 등을 연구와 토의를 통하여 정립하였다. 또한 가톨릭노동청년회가 전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팀과 섹션, 섹션과 교구, 교구와 전국본부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되고, 사제들과 깊이 일치하여야 하므로 지도신부·회장·서기·회계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교구·관구 단위의 연구회·훈련회를 정착시켰다.²⁵³⁾

1960년대 교회의 변화와 실천은 1970년대 이후 노동문제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대한 교회의 본격적인 개입에 밑거름이 되었으며, 이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이러한 가시적인 노력은 후일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함께 내적인 성숙을 불러온 동인(動因)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253)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같은 책, 155쪽.